현대불교

금주 법구

마음은 우주의 근본, 만상은 본체이고
한 생각 뒤어나온 현상은 그림자이네
이 마음 고요 속에 착한일 생각하면
거울 속 얼굴처럼 언행이 일치하리.

-법구비유경-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2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 347 호

뉴스속 뉴스 news in news

삼천사 주지스님의 하루

새벽 4시, 좌선에 든다. 2시간의 좌선을 끝낸 후 아침공양을 하며 그 날의 일정을 체크한다. 은평구립도서관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전 7시 반. 직원회의를 통해 전날의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그에 따른 업무를 지시한다. 9시경부터 시작되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직원회의는 가급적 30~40분 이내에 마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법인 인덕원 사무실에 도착하는 10시부터는 간단하게 직원회의를 열고, 인덕원이 운영하고 있는 치매단기보호센터나 인덕 어린이집에 들러 이곳 어르신이나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불편한 것은 없는지를 살핀다.



점심공양 후 오후 4시까지는 삼천사에서 하루 평균 50여명 신도들의 상담을 받는다. 이후에는 구청회의나 구치소 법회, 은평구사암연합회 법회 등에 참석하고, 지역 행정당국 관계자나 복지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난 5일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불교 및 지역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불교복지유공자상을 받은 은평노인복지관장 성운스님(삼천사 주지). 스님의 하루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화, 수요일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동국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듣는다. 현재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2학기를 마친 상태. 강의가 없는 날에는 은평구청에서 법회를 열거나 여러 분야의 인사들을 만난다.

성운스님의 하루는 웬만한 기업의 CEO(전문경영인)보다도 더 바쁘다.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운스님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만 해도 은평노인복지관, 치매단기보호센터, 은평구립도서관 등 10곳이나 된다. 게다가 '풍경소리' 대표이사, 서울구치소 종교교화위원회장, 푸른 서울 가꾸기운동 자문위원 등 불교계 · 정부 · 시 · 구에서 맡고 있는 직책만도 15개에 이른다.

"부처님의 자비실천은 복지에 나서는 것입니다. 시나 구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까닭도 불교위상을 높이고, 지역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부족한 잠을 차에서 보충할 정도로 바쁘게 활동하는 성운스님. 스님이야 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포교인의 사표(師表)로서 부족함이 없다.

한명우(취재 1부 차장)

장 군 죽 비

◇스님은 인간과 하늘의 스승(人天師). 그런 스님들을 위한 교육 기관인 중앙승가대의 교육 환경은 최하 수준. (2면)

◇도난 위험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전통 사찰, 방범 시스템 강화한다. 방심(放心)과 탐심(貪心)을 미리 막는 것도 중생 제도. (9면)

◇인도 불교 되살린 불가촉 천민의 아버지 암베드까르 박사 추모법회에 30만명 동참. 신분 차별 철폐로 이어가기를…. (22면)

◇삶의 벼랑으로 몰린 여성 불자 위한 복지 시설, 종교계 중 골찌자(慈) · 비(悲) · 희(喜) · 사(捨)의 정신은 경전 속에 갇혀있는가. (23면)

"부처님과 함께하니 감옥도 극락"



◇제3회 창작 찬불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무기수 최봉종 씨.

무기수 최봉종 씨 창작 찬불가 대상 수상

10년전 불교 귀의 … 참회의 삶 '노래로'

'가시밭길 인생길에 지쳐서 쓰러지며 무명 구름에 가리어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찬불가 '나유타'의 가사에서)

불교음악 발전과 신인 발굴을 위해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제3회 창작 찬불가 공모 경연대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인 최봉종(31)씨가 자작곡 '나유타'로 대상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다.

'나유타(nayuta)'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다. 최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이 찬불가에는 불법을 만나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가 친숙한 대중가요 리듬으로 표현됐다. 최씨는 작사 작곡은 물론 직접 노래까지 불러 이날 심사위원은 물론 청중들로부터 큰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최씨는 17살 때 교도소에 들어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14년째 복역 중으로, 법무부에 수차례 참가 허가를 청원한 끝에 11월 26일 가까스로 허락을 얻어 이번 대회에 출전,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원래 사형수였던 제가 무기수로서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만도 죄스럽다"고 말하는 최씨는 "어둠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참회의 기회를 얻은 만큼, 생명 다하는 날까지 108배하는 마음으로 찬불가 창작에 힘쓰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씨는 10년 전 교도소에서 처음 불교를 접한 후 불교음악에 관심을 갖고 독학으로 음악공부에 매달려 그동안 20여 찬불가를 작곡했으며, 지난해 열린 2회 대회에서도 합창곡 '업'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불교음악을 공부하며, 마음을 평화를 되찾은 최씨는 현재 대전교도소내 악단지휘자로 활동하며 모범수로서 생활하고 있다. 최씨의 대상 수상을 계기로 대전교도소 측은 조만간 최씨의 찬불가 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반영규 불교음악협회 이사장은 심사평을 통해 "'나유타'는 참회와 연기의 가르침을 담은 가사에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가 진솔한 감동을 준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창작 찬불가 공모대회는 예심을 통과한 9팀이 동요와 록,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찬불가를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벌였다. 우수상은 안민경, 박성규씨가 듀엣으로 부른 '지옥과 극락은'(혜성스님 작사, 진희연 작곡)이 차지했고, 아름다운 노랫말 상은 '바로 가까이'(이승원 작사, 작곡)에 돌아갔다.

이날 발표된 9곡은 내년에 CD로 제작되어 불교단체와 사찰에 보급될 예정이다.

여수형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 민영교도소 추진 '난항'

설명회 무산 … 제안서 21일까지 제출해야

불교 민영교도소 설립 추진이 난항에 부딪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5일 개최한 불교 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한 설명회에 참가자가 없어 행사자체가 무산됐다.

조계종 기획실 박재현 계장은 "3백억원의 초기투자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인 만큼 투자를 희망하는 불자들의 문의가 많지 않다"며 "전망이 밝은 민영교도소 사업을 희망하는 불자들의 참여가 있을 경우 조계종에서 행정 업무을 대행해줄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법무부가 정한 민영교도소 제안서 제출시한이 오는 21일까지인 만큼 빠른 시일 내 투자설명회를 다시 가질 계획이다.

한편 2003년 말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민영교도소는 재소자 포교효과는 물론 정부가 운영비의 90%를 보조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 유망한 복지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기업들이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다 보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종교계에 수탁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비구니 원로 법희 스님 입적



조계종 비구니계 원로인 법희(法喜)스님이 5일 법랍 73세, 세수 84세를 일기로 평택 명법사에서 입적했다.

법희스님은 1917년 생으로 1928년 마곡사 영은암에서 명덕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수덕사, 대승사, 수정암, 김용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년간 안거를 성만하는 등 평생을 마음공부에 바쳐 온 선승이다. 69년 명법사 주지를 거쳐 조계종 7~8대 비구니 7증사에 추대돼 많은 비구니 스님들을 배출했다.

영결식과 다비식은 7일 명법사와 마곡사에서 봉행됐다. 49재는 1월 22일 오전 10시 평택 명법사에서 봉행된다. ☞스님행장 3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제주 존자암 수행굴 찾았다

베일 속에 가려졌던 제주 존자암 옛터 수행굴이 한라일보 학술 탐사팀에 의해 모습을 드러냈다. 한라산 영실 동남쪽 해발 1,530m지점에 위치한 수행굴의 길이는 29m로 40여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 ☞관련기사 23면

사진= 한라일보 제공

총지종 내년 창종 30년

법의 · 가사 새로 제작

총지종(통리원장 혜암)은 26일 오후 2시 부산 정각사 서원당에서 '아사리 법의 금가사' 점안불사 및 봉대식을 갖는다. 총지종은 내년이 창종 30주년이 되는 해임을 기념해 법의와 가사를 새로 제작했다.

대종사의 법의는 은은한 문양의 황금색 법의에 홍가사, 종사 이하 스승들은 자색법의에 황금색 가사로 양 소매 끝단에 각각 3개의 디자인 선을 넣어 삼밀의 숫자적 의미를 나타냈다. 금가사는 태장계를 의미하는 범자 '아'자와 금강계를 의미하는 범자 '밤'자를 각각 가사의 좌, 우에 수놓고 '밤'자가 가운데 쓰여진 육합상을 중앙에 수놓아 목에 걸 수 있게 했다.

이경숙 기자

신행수기 공모 15일 마감

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내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7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2001년 12월 15일
△당선작 발표: 2002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현대불교신문사

인도 암베드까르 박사 45주기 추모법회 22면

영어는 공부가 아닌 생활입니다.

2002 겨울 청소년 영어캠프

원어민 영어 정교사들과 2주일간 동고동락…
영어 현장 실습 · 문화 체험



정보화 시대 국제화 시대…. 영어가 더없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001년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영어 교육이 100% 회화 위주로 바뀐 시점에서 부모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걱정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한가지씩 영어 과외 학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중요한 한가지는 언어는 생활이고 문화이며 습관이다. 영어 습득은 살면서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흡수되어지는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고 언어 흡인력이 강한 초 · 중등학생들이 2주일간 원어민 영어 정교사와 완벽한 2중언어 부교사가 동시에 담임을 맡아 하루 24시간 함께 자고 먹고 보고 느끼고 생각을 나누는 현장 체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어를 공부가 아닌 생활로 받아들이는 눈을 스스로 뜨게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3주간의 영어로만의 생활은 결코 짧지 않은 언어체험의 기간이 될것입니다.
이번 청소년 겨울 영어캠프는 어린이 여름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이 불교계 최초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불자 청소년들을 위해 동국대학교 후원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영어권 현지에서 살면서 습득하는 것이 영어 배우기의 최선책이라면 이번 영어캠프는 현지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자신감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CIG ■후원 동국대학교 ■협찬 일품여행사

영어캠프의 특징

1. 한반에 15명 미만의 소수정원제 수업
2. 집중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발음교육
3. Canadian 영어교사와 2중 언어보조교사가 함께 하는 수업
4. 다양한 야외학습 및 문화 현장체험
5. 캠프 진행기간동안 부모님들을 위해 학생들의 활동 인터넷으로 매일 소개(www.buddhanews.com)
6. 캠프 후 3개월간 E-메일을 통한 영어학습 제공

▶프로그램

일 자	내 용
1월14일(월)	도착, 숙소배정, 오리엔테이션, Level Test, 친구사귀기 I
15일(화)	오전, 오후 영어수업, 저녁 그룹작업(과제물)
16일(수)	오전 영어수업, 오후 스포츠활동, 저녁 특강
17일(목)	오전, 오후 영어수업, 저녁 그룹작업(과제물)
18일(금)	오전, 오후 영어수업, 저녁 친구사귀기 II
19일(토)	경주 Study Tour
20일(일)	자유시간, 종교활동, 스포츠활동, 저녁 그룹작업(과제물)
21일(월)	스키 타기(무주리조트)
22일(화)	오전 자유시간, 오후 영어수업, 저녁 그룹작업(과제물)
23일(수)	오전 · 오후 영어수업, 저녁 중간 TEST
24일(목)	오전 · 오후 영어수업, 저녁 그룹작업(과제물)
25일(금)	오전 · 오후 학교수업, 저녁 그룹작업(과제물)
26일(토)	오전 영어수업, 오후 최종 TEST, 저녁 그룹작업 발표 및 송별회
27일(일)	수료식, 숙소정리 후 집으로

▶일 정 : 2002년 1월 14일(월) ~ 27일(목) (2주간)
▶장 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무주리조트(스키)
▶대상 및 인원 : 10세부터 15세까지 초 · 중등부 각 40명 선착순 마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서 참가 가능
▶참가비 : 108만원(신청금 30만원은 신청시 납부)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와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 학생을 정확히 아는 것이 효과적인 지도의 출발입니다.

▶문의및 접수 영어캠프 사무국 : 전화 (02)394-3998 팩스 (02)6352-3998
www.buddhapia.com

사 설

분규사찰문제 조속해결 기대

"대중이 화합하지 못할 때는 각자가 행동을 삼가야 한다. 법답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참아야 하는 것이며, 부드러운 사랑으로 법답게 노력해야 한다. 화합은 물과 젖을 합한 것과 같으니 불법을 같이 배워 안락하게 공부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

〈사분율〉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어지는 게송에는 "원한은 증오로써 사라지지 않나니, 오직 갚음이 없음으로 원한은 사라진다"고 찬송한다. 새삼스럽게 이 말을 인용하는 이유는 모처럼 전개되고 있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화해무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불교중흥의 초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종파주의자가 아니라도 많은 미래학자 내지 지성인들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불교의 역할이 막중하리라고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미주 내지 유럽에서 불교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종교 사회의 도래와 함께 불교가 누리던 기득권이 사라진 것은 이미 오래이며, 불교 하면 시대에 뒤쳐진 낡은 사상으로 느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해방 이후 지루하게 전개된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라 말할 수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대 종단의 숙원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이에 양측이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 실무진들에게 세부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몇 년이래 분규사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다. 사실 삼보정재는 어느 개인의 것도, 특정 종단의 것도 아니다. 교단 구성원 전체, 한국불교도 전체, 나아가 한국문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국민 전체의 것이다. 작은 것에 매달려 지리멸렬할 시간이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어서 문제를 해결한 뒤에 내실을 다지는 것이 불교중흥의 초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두 종단의 합의하에 분규사찰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고대한다.

불교 민영교도소 서둘러야

격리수용과 감시감독 위주의 교도행정에서 자비와 교화 중심으로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민영교도소가 내년부터 우리사회의 가시권(可視圈)안에 들어온다. 우리는 이 민영교도소가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불교계의 적극 추진에도 또한 기대를 걸고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격리와 징벌이 아니라 수인들을 교화 교정(矯正), 그들의 사회적응력을 길러 거듭나게 한다는 근대적 의미의 교도정신은 무엇보다 종교적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구미(歐美) 선진국에서 이미 민영교도소가 전체교도소의 10% 전후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단체 중심의 교도소가 재범률을 크게 낮추고 있는 예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내년 초 민영교도소 사업자를 선정할 법무부가 종교단체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런 점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

교도 행정에서 징벌의 문제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구속 통제 등 징벌권이 과연 종교단체나 복지기관에 속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인권문제, 그리고 경제적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3백억 원이라는 엄청난 초기투자액도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영교도소는 불교계가 힘과 지혜를 기울여 운영해나가야 할 범종단적 사업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범죄인 교화야말로 종교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일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사업이나 선진국 민영교도소가 초기 적자를 부대사업 등으로 극복, 이제 당당한 흑자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민영교도소가 중대한 종교적 역량의 시험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불교 민영교도소의 성공은 불교계의 지평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종교계 지형판도를 다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내년, 우리는 불교 민영교도소의 발족을 지켜보며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불교 민영교도소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중앙승가대 교육환경 열악

전산화 미비 · 교수연구비 등 낮아…종단 지원 절실

교육부 종합평가 지적

중앙승가대의 교육환경이 일반대학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승가대는 11월28~29일 이틀간 교육부로부터 받은 대학종합평가에서 전산화, 타대학과의 교류, 교수 연구 활동 등 교육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평가에 따르면, 도서관-전산실-수행관을 하나로 묶는 전산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아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또 교수와 학생 간에 이메일조차도 주고받을 수 없는 등 '정보화 시대'라는 말을 무색케 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경우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CD나 VTR 등의 기자재가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한 달 도서구입비가 다른 대학의 1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았다.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여건 역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유급 조교가 없고, 교수 연구활동비도 일반 대학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었다. 학교 전체 예산 중 교수 연구개발비는 1%로, 교육부 기준 4%에 크게 못미쳤다.

대학과 불교학 발전의 중요 관건이 되는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 및 부속기관 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과의 교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 교류도 일본 경도불교대학이 유일하다. 같은 종립학교인 동국대와의 교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불전국역연구원, 불교사학연구소 등 부설기관 4곳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평가단은 이같은 현실이 재원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판단, 학교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까지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승가대의 한 관계자는 "재원의 60% 이상을 종단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단의 지원이 늘지 않는 이상 개선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취임식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3일 오후 서울 세검정 하림각에서 제3대 회장단 취임법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원장 도영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각 지역 신도회장과 외부인사 등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백창기 중앙신도회장과 각 지역신도회장이 도영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승가교육 전망' 좌담회

무비 · 법장스님 등 참석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이 12일 오후 1시30분 교육원 회의실에서 종단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가교육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수행 및 교육 풍토 쇄신과 확산방안 ▲승가고시 시행 성과와 전망 ▲기본교육기관 체계화와 중앙승가대 위상 정립 ▲강원교육에 대한 진단과 전망 ▲특수전문교육 활성화 방안 ▲사미의제 정착과 법계에 따른 승가위계 시행에 대한 전망 등 종단 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를 벌이게 된다.

좌담회에는 무비(교육원장) 법장(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법산(승가고시위원회 위원장) 무관(교육원 교재편찬위원장) 종림(고려대장경연구소장) 홍선(중앙승가대 교수) 지오(교육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지형(청암사 강주) 향적(종회 교육분과위원회 위원) 스님이 참석한다. 한명우 기자

종단협 방북 연기

조불련 내년초 재협의 요청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은 3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에 12월 11일로 예정돼 있던 방북일정의 연기를 요청했다.

조선불교도연맹은 "종단협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던 중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양해를 구하고 "내년 초 다시 방북 협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종정감사 우수사찰 표창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5일 교육원 교육부장으로 재직하며 사미의제 정착 및 강원교과목 표준화, 3급 승가고시 등을 시행, 승가교육 발전에 기여한 계성스님(전등사 주지)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사진)

또 2545년도 종정감사 우수사찰로 선정된 월정사 송광사 용주사 동화사 갑사 운문사 표충사 향일암을 표창했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부장급 스님 인사


◇혜공스님


◇월해스님


◇동우스님

총무-혜공
기획-월해
교무-동우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1일 총무원 총무부장(재무부장 겸직)에 우혜공스님(대구 관암사 주지), 기획부장(규찰부장 겸직)에는 김월해스님(대전 금강정사 주지), 교무부장(사회부장 겸직)에 고동우 스님(홍성 기원정사 주지)을 각각 임명했다. 태고종은 내년 1월말 열리는 임시중앙종회에서 종단체제를 새롭게 정비할 때까지 과도기 3부장 겸임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현대만평 김 영 민



더 추워지기 전에…

전화 한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현대불교를 구독하여 주시는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행의 동반자' 현대불교가 지로용지를 들고 은행에 가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 고객부로 전화로 신청만 하시면 구독료가 자동으로 납부되어, 보다 편한 마음으로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좋은 점
- -매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 -구독료 연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 -통장에 구독료 납부 내역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납부확인이 명확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 해지 방법

①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 은행	결제 조건	이체 희망일
농협을 포함한 모든 은행(단, 우부욱 수협은 제외)	예금 잔액이 구독료 보다 적을 경우, 통장에 남아 있는 만큼만 납부됩니다	매월 5, 15, 25일 중 선택

②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다음달부터 구독료가 자동이체 되므로 신청 당월 구독료는 지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문의 전화 : 02)737-0090,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보안되어 있읍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교상미국의 우진왕(優璡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어린 동참으로 부처님의 복덕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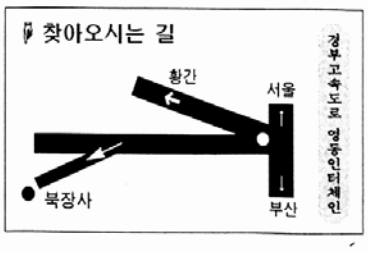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교 통 편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오면 됩니다.

목어

'다름' 넘어 '원융'



주역의 화택규(火澤 睽)괘는 '다름', '어그러짐', '반목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괘의 단전(彖傳)을 보면 그 '다름'의 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남녀는 서로 다르고 어그러지지만 뜻이 통하고, 만물은 서로 다르지만 그 일이 하나로 귀결된다. 그러니 '다름'의 의미가 참으로 크며, 그것을 잘 써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괘를 통해서 오늘의 사회를 보면 참으로 '다름'이 끝까지 '다름'으로만 여겨져, 그것이 궁극적으로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되는 큰 이상이 실종된 듯 하다. 제일 심하게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정치판일 듯싶고…, 여야의 정쟁을 보면 이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라는 큰 목표에 대한 생각을 함께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 그렇게 각자의 이해타산에 따라 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큰 목적에 합치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있다고 믿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까지 나와는 다른 존재를 소중하게 알기 보다는, 다른 존재에 대하여 우선 적대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마음 구조를 지니고 있는 듯싶다. 다른 존재와의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큰 하나 됨을 지향해 가기보다는 자기를 중심으로 내세우고 남을 눌러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캐고 또 캐 들어가면 그 바닥에 남북 분단의 상황이 놓여 있다. 상대방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 버려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적개심을 키워오던 세월이 얼마였던가? 나와 다른 존재를 없애야 한다는 방식으로 살았던 세월에 형성된 왜곡된 심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사회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법의 성품 원융하여 두 모습이 없네"하는 법성게의 첫 구절…, 어렵게 볼 것도 없을 것 같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두 모습, 그 근본에 놓여 있는 하나의 민족을 보라는 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볼 때 둘로 나뉘어진 모습이 제대로 보이고,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다시 하나 됨을 이루는 새 역사의 장이 열리는 것은 아닐까?

성태용(건국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정대-운산 스님 조속 매듭 '합의'

조-태 분규사찰 이번엔 해결될까

조계-태고종 분규사찰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것인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4일 취임인사차 방문한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 운산스님과 양 종단간 묵은 현안인 분규사찰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 종단은 1월 초부터 분규사찰 해결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대스님은 이 자리에서 "조계종과 태고종은 한 뿌리이며, 한국불교의 근간"이라 전제하고 "이제 털 것은 털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는 방향으로 매듭짓자. 조계종단 스님들도 같은 생각인 만큼 양 종단이 화합하는 방향으로 분규사찰 문제를 처리하자"고 밝혔다. "못 찾을 것은 빨리 포기해야 해결된다. 나는 선암사는 태고종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힌 정대 스님은 "조-태 문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종회에서 위임받아 총무원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라"고 배석한 총무부장 원택 스님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운산스님은 "한국불교가 새로운 큰 틀을 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태 분규문제를 해결하자"며 "조-태분규사찰 해결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전통을 확립하고, 태고종도 전통종단의 위상을 찾는 일인만큼 곧바로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태고종에서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내년초 실무협상 '가속도'
봉원사 땅 처리문제 '현안'

지난 91년 조계종 사회부장을 맡아 분규사찰 협상안을 내놓은 바 있는 정대스님과 역시 태고종 실무대표였던 운산스님은 과거 양 종단이 사찰 소유권을 놓고 대립했던 역사는 역사대로 묻어버리고, 새롭게 한국불교를 써나가자는데 동의하며 손을 맞잡았다.

순천 선암사 향림사, 서울 봉원사 백련사 안정사 등 10여개 분규사찰문제는 법적 소유권은 조계종에, 점유권은 태고종이 갖고 있어 조계-태고종간의 미묘한 현안이 돼왔다.

조계종 의현 총무원장과 월주 총무원장 재임 당시 각각 협상안이 나왔으나 91년은 순천 선암사, 95년은 봉원사 대중들의 유휴재산 활용에 대한 반발 때문에 좌절된 바 있다.

95년 협상안의 경우 조계종이 봉원사의 유휴재산을 처분하여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증앙승가대 이전 등을 생각한 반면, 봉원사 태고종 스님들은 토지의 처분은 삼보정재의 유실을 가져오는 만큼 그곳에 불교병원이나 학교 같은 목적사업을 해야 한다며 토지처분을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 그런 만큼 이번 분규사찰 해결도 종국에 가서는 봉원사 땅 처리문제가 가장 첨예한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봉원사 주지 인공스님은 "봉원사는 삼보정재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하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분규사찰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기회에 분규사찰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양종단 스님들의 분규사찰 해결에 대한 의지표현을 반기면서도 서로 양보와 타협이 없을 경우 예전처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행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교계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사진 오른쪽)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4일 만나 분규사찰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늘진 이웃위해 평생 헌신

5일 입적 법희 스님 행장

"우리가 나무라면 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우리가 물이라면 흙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우리가 돌이라면 징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 같은 화두를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항상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야 한다 강조하고,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자비행을 멈추지 않았던 법희스님(명택 명법사 회주)이 5일 입적에 들었다.

스님은 5일 저녁 11시 평택 명법사 대중들과 제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오자 선정에 든 채 지긋히 미소로 맞이했다. 제자들이 스님의 미소를 보고 음성공양을 올리자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한 스님은 자리에 누운 채 새벽 3시30분 평온한 모습으로 열반에 들었다.

평생 참선과 묵언수행을 해온 스님은 칭찬과 꾸중도 '나무아미타불' 염송, 음의 고저로 대신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중스님들과 신도들은 큰스님이 아미타불을 된소리로 하면 꾸중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맑은 소리로 하면 칭찬으로 들었다고 한다.

비구 비구니, 네 상좌 내 상좌, 이판 사판 구별하지 않고 도움이 꼭 필요한 후학들에게 과감하게 박사과정 취득까지의 학비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도 스님의 돋보이는 면모였다.

스님은 수덕사, 대승사, 수정암, 김용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하는 등 생활 속에서 선 수행을 평생해온 비구니계의 대표적인 선승이다.

계율을 지켜 청정했던 스님은 86년부터 조계종 7~8대 비구니계 수계산림의 7증사를 역임했다. 스님에게서 비구니계를 받은 비구니만도 300여명에 이른다.

엄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했던 스님은 늘 자비행을 강조하여, 항상 제자들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 것을 당부했다.

"기도처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항상 내가 서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처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스님은 이렇게 대중스님과 신도들을 가르치며 법당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려운 현장에서 기도하게 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스님들과 신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평택역에서 부랑인과 실직자 12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매일 결식아동 41명의 도시락을 각 학교로 전달했다. 매년 소년소녀가장 6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네팔 대성 석가사 건립기금 지원 활동도 전개했다.

스님은 열반에 들기 며칠 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의 모습을 보지도 알지도 못했노라. 마치 그믐밤에 비단옷을 입고 걸어온 것과 같이 살았노라"는 말씀을 남겼다.

김원우 기자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비행을 펼쳐온 비구니 원로법희 스님.

조계종 중앙신도회 본·말사 연수 호응 높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관아래 올해 3월부터 실시했던 '사찰신도회 및 신도단체 지도자 연수회'가 지난 12월 1일 신흥사 연수를 끝으로 모두 16차례의 일정을 마쳤다.

전국 24개 교구본사 중 불국사, 범어사, 관음사를 제외한 21개 본사 및 말사의 사찰 신도회 임원과 신도단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수회는 355개 사찰과 39개 신도단체가 참여하는 등 외형적인 성과를 거뒀다. 조계종 전체 사찰 수는 2천여 개에 이르지만 이중 60% 가량이 본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40%의 사찰 중에서도 신도회가 있는 곳이 절반도 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도회가 구성돼 있는 사찰은 거의 대부분이 연수회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포교 활성화 기여
다양한 프로그램 '과제'

외형적 성과 못지않게 연수회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신도교육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사찰조형이나 불교적 세계관, 환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신도 지도자로서 필요한 소양교육에 비중을 둠으로써 현실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사찰들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분과토론을 벌임으로써, 지역 포교 활성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했다. 연수회 과정에서 신도들 스스로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도 성과 중의 하나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겼다. 연수회 참석자 대부분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부족한데 따른 불만을 나타냈다. 일례로, 충북 법주사 연수회의 경우 이 지역의 관심사인 '직지심경'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같은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다.

또 다양한 시청각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초빙,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육 효과를 반감시켰고, 직장 · 직능단체의 참여가 저조해 사찰 신도회와 직장 · 직능 단체간의 상호 연계가 만족할 만큼 이뤄지지 못했다.

중앙신도회는 이같은 욕구를 수렴해 내년에는 연수일정과 교육내용 및 연수회 운영방식 등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연수회 횟수나 연수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교 외에 사회정서에 부응할 수 있는 지도자상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교육내용의 다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중앙신도회 오용승 조직부장은 "내년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지역별로 신도회와 청년회, 직능단체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연수회 성과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 교구본사가 주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우리곁에 한발짝 성큼 다가오는 성철큰스님
중앙일보에 6개월간 절찬리 연재된 〈산은 산 물은 물 - 곁에서 본 성철스님〉. 그 감동의 이야기 드디어 책으로 출간!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❶❷
잔잔한 미소로 만나는 큰스님의 따뜻한 절간 삶
서슬 푸른 기개와 고집으로 알려진 한국 선불교의 거목 성철스님. 그러나 그 뒤에는 더없이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탱글탱글한 뱃가죽에 으쓱해하고 아이들과 짓궂게 장난치는 천진함, 새로운 물건에 어린애처럼 신기해하는 모습, 제자를 호통치듯 슬쩍 감싸 안는 모습. 20년간 그분을 모신 원택스님의 눈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큰스님의 모습을 만나십시오.
원택 지음 | 각권 270쪽 내외 | 값 각 8,500원
서점에 있습니다. http://www.gimmyoung.com TEL 02)741-1990 김영사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틀러가 묻는다.
"당신은 행복한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달라이 라마와 마주앉아 던져본다면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달라이 라마·하워드 커틀러 | 류시화 옮김 | 351쪽 | 값 9,500원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
그를 바라보는 거의 매순간, 그는 웃고 있거나 미소를 짓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을 미소짓게 만든다. 그는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이며, 몇 권의 탁월한 영상서적의 저자이다. 왜 그는 그토록 인기가 있는가? 종교를 초월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달라이 라마. 그와 단 몇 분간만 앉아 있어도, 당신은 점점 더 행복해지는 길 이외 수 없을 것이다.

일주문



동국학원 합동 수계법회

녹원 동국대 이사장 스님은 17일 오후 2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불기 2545년 재경 동국학원 합동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원효학원 이사장 선출

홍교 대각사 주지는 4일 열린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회에서 제17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복지부장관상 수상

지완 서울노인복지센터 원장은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3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2일 출판 기념회

김기석 불교단체총연합회장은 12일 서울 마포 홀리데이 인호텔에서 '한 생각 열어주는…'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서울노인요양원장 취임

권경임 조계종 복지재단 자문위원은 13일 노원구소재 서울시립노인요양원장으로 취임한다.

제5회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



불교기자협회(직무대행 이재우)는 3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제5회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기획보도부문 현대불교신문 천미희 김주일(사진 중앙) 기자, 취재보도 부문 법보신문 김형규 남배현 기자에게 각각 시상했다.

"다목적 여성불교회관 꼭 세우겠어요"

포항시민대상 받은 김경희 보살



"경로당, 양로원, 불자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겸하는 복합 여성불교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마지막 원입니다. 부처님 일 더 잘하라고 주는 상이니 더욱 노력해야지요."

제 6회 포항시민대상 수장자로 결정된 김경희(67 · 포항시불교여성회장) 회장은 수상의 기쁨보다 해야 할 일이 먼저 떠오른다. 김 회장은 여성단체가 없던 시절 포항여고 동창회 봉사를 시작으로 새마을 부녀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포항불교여성회장, 대도어린이집 원장 등을 역임하며 여성권익 신장과 포항 불교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 26살 결혼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꼭 40년째다. 이번 상은 포항여성문화센터 관장, 경상북도 도의원을 지내며 불교계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여성과 불교의 위상을 높여 온 결과다.

'불교'와 '봉사'라는 두 단어로 요약되는 김경희 회장의 법명은 '삼보심'. 김회장은 그 '법명을 준 화엄스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일깨워 준 화엄스님이 안계셨다면 지금의 나도 없다"고 말하는 김회장은 스님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불법을 펴겠다는 원을 세웠고 그것이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힘들 때면 '봉사의 현장마다 기독교인들은 넘쳐나는데 불자가 없어서야 되겠나' 하고 각오를 새롭게 했고, 마침내 84년 포항여성불자회를 창립했다.

김회장은 "18년 동안 '불교'로 묶인 회원들은 수재민돕기, 심장병 어린이돕기, 독거노인돕기, 동국대 병원 봉사 등 곳곳에 불심의 뿌리를 내리며 신명나게 다녔다"고 전한다. 또한 청소년 포교에 대한 김회장의 관심도 남달라 여성불교회관이 건립되면 봄 · 가을로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김회장은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를 잊은 채 "내가 가진 모든 열정을 쏟아 여성불교회관 건립 불사는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시상식은 31일 포항시청에서 열린다.

천미희 기자

"매년 연등축제 · 경로잔치 열어요"

캐나다 한인불교회 최종학 회장



"캐나다에도 한인불교회가 있습니다. 매년 연등축제와 경로잔치를 여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노숙자 등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도 저극 나서고 있습니다." 11월 30일 본사를 방문한 캐나다 한인불교회(CKBA) 최종학 회장(65)은 캐나다 한인 불자들이 한국불교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고국에 알리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회장은 연꽃을 형상화 한 뱃지와 브로우치를 내보이며, "지난해 4월 한인불교회를 상징하는 로고를 제정해 3백여 회원들에게 각기 한 쌍씩을 나누어 주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이는 한국인 불자라는 자긍심이 서서히 자리 잡히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94년 결성된 한인불교회는 한국인 재가불자 모임으로는 유일하게 캐나다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종교단체로 공인받았다. 이때부터 한인불교회는 불광사(주지 광옥), 대각사(주지 양일), 정혜사(주지 정혜) 등 캐나다에 있는 한국사찰과 연계허 토론토 크리스티 공원에서 연등축제와 야단법석을 열며 한인 불자들의 신심을 다져 왔다.

최 회장은 "한인불교회는 젊은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불우 이웃 돕기나 환경 보호와 같은 대사회적 일에도 적극 관심을 두겠다"고 계획을 털어놨다.

오종욱 기자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원장

티베트 난민돕기 1억여원 쾌척



"지난 7월 다람살라와 라다크를 방문했을 때, 티베트 난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는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야 실천하게 됐다는 생각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최근 티베트 난민을 돕기 위해 10만 달러(약 한화 1억3천만원)를 기부한 불교아카데미 NGO지원분과장 겸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원장(44).

김 원장은 지난 7월 티베트 망명정부가 위치한 다람살라와 라다크 난민촌을 방문, 티베트 난민들의 어려움을 보고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됐다고. 이 돈은 현재 달라이라마방 한준비위 등이 계획하고 있는 난민촌 의료시설 건설, 앰블란스 구매, 도로 건설 등9가지 티베트난민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인 6만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로 티베트난민 돕기는 물론 부산 티베트 문화회관 건립 사업과 티베트 동북아 대표부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북한산 관통로 저지 종교 · 시민연대 발족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저지를 위한 종교 · 시민연대(공동대표 일면 스님, 최열)'가 5일 조계사에서 발족, 시민과 종교인들이 함께 하는 북한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다.

발족식에는 봉선사 주지 일면 스님과 부주지 각원 스님,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 등 400여명이 참석해 종묘공원까지 항위시위를 벌였다.



군불교위원회 계룡대서 출범식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 스님)는 11월 30일 대전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출범식 및 제33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성광 스님은 "군불교위원회의 출범으로 불교포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돼 군포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무사 장병 4천여명 수계법회

군불교진흥회(회장 정각 스님)는 1일 논산 연무사에서 '군불교진흥회장 정각 스님 수계대법회'를 열고 논산 훈련소 장병 4천명에 대한 수계식을 봉행했다. 정각 스님은 "군생활중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처님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리방송상 · 자랑스런 불자상 시상

사단법인 불국토(이사장 정관스님)는 5일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제9회 보리방송문화상 및 자랑스런 불자상 시상식을 가졌다. 3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스님이 자랑스런 불자상을 수상했고 보리방송문화상 불교방송부문에는 최윤희PD, 황청원씨, 김종천 기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원회 군장병 위문법회

한국불교대원회(이사장 장세우)는 2일 경기도 고양시 제5733부대 내 용주사에서 군장병 위문합동법회를 봉행했다. 5733부대장과 장병, 신도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동국대 최봉수 교수의 특강에 이어 미리 마련한 떡과 과일로 군장병들을 위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군법당 개축을 위한 불사금도 전달됐다.



선각종 월드컵 승려홍보단 발족

대한불교 선각종(종무원장 정암)은 2002년 월드컵 성공기원을 위한 승려홍보단을 발족시켰다. 종회의장 동명 스님이 단장인 승려홍보단은 8일 상암경기장 개장식과 13일 광주월드컵 경기장 개장식 경기에 참석해 응원전을 펼쳤다. 정암 스님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거리홍보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정각사 대웅전 낙성식

전북 익산 정각사(주지 정산)는 1일 대웅전 낙성식 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초청법사인 혜인 스님(삼화불교대학장)을 비롯 법성 스님(전남북 종무원장), 법장 스님(율곡사 주지), 진성 스님(김제 관웅사 주지), 창우 스님(김제 석담사 주지) 등 사대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봉 卍 샘재 영천암 남산 고정일 큰스님 초청 대법회 축



정일대선사

귀의 삼보하옵고, 여기 샘재 영천암에서는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모든 좋은 공덕과 복덕의 인연을 맺도록 여러 신도님들을 모시고 삼재기도, 동지기도, 정초기도를 봉행코져 하오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기도 동참 인연 공덕으로 가정 안락하시고 가족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아울러 동지날에는 선학원 이사장이시고 서울 보광선원과 정각사죽림선원 조실로 계시는 남산 고정일 큰스님을 초청하오니 동지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감로 법문을 들으시고 큰스님께서는 일평생을 참선 수행과 중생 교화에 다 바치신 청정하신 선승 큰스님이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듣기 쉽도록 가장 잘 설하시고, 또 큰스님께서는 이미 쌓은 선근공덕이 높아 한번 친견하는 것만으로도 다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을 구족하고 여러가지 소원을 남김없이 다 성취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오시어 큰스님 귀한 법문 들으시고 다 함께 성불하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축원드리옵니다. 또 동지날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과 함께 독거 노인분들께 생필품 전달도 하겠사오니 부디 꼭 참석하시어 부족한 소납을 격려해 주시고 반드시 소납이 서원한 대로 미혼모를 위한 사회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백고좌 법회를 꼭,꼭,꼭 열 수 있도록 부디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날마다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불교방송에 전국적으로 영천암 법회가 방송되오니 꼭꼭 들으시고 현대 불교 신문에도 영천암 큰스님 법회를 취재해서 나가오니 꼭 읽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 영천암에서 도서실을 만들고져 하오니 불자님 가정에 다 읽으신 불서와 각종 영험록, 법문 카세트테이프, 법문 비디오테이프, 불교관련 CD가 있으신 분께서는 영천암으로 기증을 해 주시온다면 하루속히 도서실을 열 수 있겠사오니 부디 많은 동참 바라옵고 기증하실 불서가 많으신 분께서는 전화를 해 주시면 소납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사오며 적으신 분들께서는 영천암으로 오실때에 잊지 마시고 가지고 오시면 크나큰 도움이 되겠사오니 단 한권의 불서라도 괜찮사오니 부디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전하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보시하는 공덕보다 수승하다고 하오니 꼭 도서실 불사에 동참하시어 문서포교를 할 수 있도록 법공양을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샘재 영천암에 기도 동참 인연 공덕으로 무량복락을 성취하시기를 합창 축원 하옵니다.

주지 乘 卍 합장

● 고정일 큰스님 초청 법회 개최하는 날 : 양력 12월 22일, 동지날(음력 11월 8일)토요일 오전 10시반

- 삼재기도, 동지기도, 정초기도 시작하는 날 : 양력 12월 2일(음력 10월 18일)일요일 오전 10시반
- 삼재기도, 동지기도, 정초기도 마치는 날 : 2002년 2월 26일(음력 내년 1월 15일)화요일 오전 10시반
- 동지기도, 정초기도 가족 생축 기도비 : 30,000원, 공양미, 3되 3흡, 향, 초
-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내년에 늘 삼재되는 해이오니 가족분들중에 삼재가 든 분이 있으시면 한분도 빠짐 없이 꼭 삼재기도에 동참하시어 가족건강과 삼재소멸하시기를 바라옵니다.
- 삼재기도비 : 1인당 30,000원
- 삼재기도 준비물 : 삼재 든분 입던 속옷, 한벌, 향, 초
- 기도 마치는 날 : (내년 정월 대 보름날) 삼재풀이 기도를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기도기간 중에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사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진보버스터미날에서 전화 주시면 동지날만은 모시러 나가겠습니다.
- 동지날 모든 차량은 시랑초등학교 안 빈터에 주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디오 법회시간 : 오전 10시 5분 ~ 오전 11시까지 방송.(방송날짜는 동지날 알려드립니다.)
BBS(불교방송) 대구 FM94.5MHZ, 서울 FM101.9MHZ, 부산 FM89.9MHZ, 광주FM89.7MHZ,청주FM96.MHZ

"서울 관인성조국악 무용학원 원장님이신 최정희 보살님의 판소리 심청가와 살풀이 춤 공연이 동지날 있사오니 부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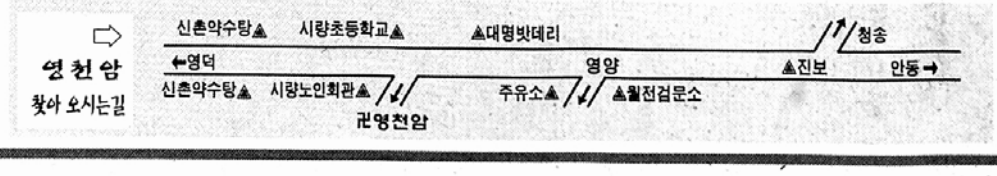
卍니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卍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 1리 548-3번지

샘 재 영 천 암 (靈泉庵)

전 화 : (054)873-2724 휴대폰 : 016-521-2724 FAX : (054)873-2724

▶온라인 입금 계좌번호
농 협 : 711089-51-056599
우체국 : 700419-02-052632
예금주 : 곽명희



직장불자회 포교사 '스승같은 도반' 활동

"회원 중에 포교사가 있어, 법회를 훌륭하게 진행시키고 교리공부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신행활동도 기획해, 회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찰불교회 고문 김진홍 포교사(퇴직 경찰)의 말이다. 김진홍 포교사의 언급처럼, 직장직능신행단체 내에서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는 자체적인 포교팀을 운영하고 있고,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는 '전법팀 발족'을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다. 이밖에도 서울시청불자회, 금융단불자회, 교사불자연합회 등에서도 포교사들이 포교팀과 같은 상설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모임의 포교부장 역할을 맡아 법회를 집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법회집전 주도…조직 활성화 기여

이왕이면 '나도 자격따자' 호응늘어

직장직능불자회가 스님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일면에는 회원들의 포교사 자격증 취득이 밑받침이 되고 있다. 지난 2~3년 사이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한 직장인 불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조계종 포교원의 산하기구인 포교사단에서 직장직능 불자회에 소속된 포교사를 중심으로 '직장 포교팀'을 운영하며 해당 불자회에서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직장직능 신행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포교팀을 조직한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의 경우, 회원 포교사의 활동으로 교정기관 내 불자회를 창립하는 데 적잖게 효과를 보았다. 또한 재소자와 가장 가까운 교정인이 법회를 집전하는 과정에서 재소자와 교정인과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것은 물론 법회 참석률도 증가했다.

서울시청불자회 역시 회원 중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조정봉, 강화평 회원들이 97년부터 법회를 집전하고 있는데, 법회의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찰불교회는 포교사단 내 10여 명의 전·현직 경찰 포교사로 구성된 '경찰 포교팀'의 지원을 받아, 경승이 없거나 활동이 미미한 경찰서의 법회마다 참여해 경찰 불자들의 신심을 돋우고 있다.

금융단불자연합회의 김윤하 운영위원장은 "직장인 포교사들은 해당 불자회를 주도하며 사찰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사찰 예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절하는 법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는 '스승 같은 도반'"이라며 "행원 불자들 중에도 교양대학을 다니며 포교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용산경찰불교회가 전국경찰불교회 김진홍 고문(포교사)의 집전으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유구자 씨는 "포교사가 되면 책임감이 생겨서 단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직장내 불교단체도 활기를 띠게 된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 직장직능 담당자인 조양회 신도주임은 직장직능 포교사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직장 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며 일시적인데 그치지 않고 현장 포교를 인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한자 한자 쓰는 불경 번뇌심 사르르 녹아요"

경찰청 서예법회 인기



경찰청불교회가 매주 금요일 정오 법당에서 여는 서예법회(사진)가 경찰 불자들의 마음공부는 물론 일반 경찰들이 발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남현서예학원 남현 원장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서예법회에는 평균 20여 경찰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무종교나 타종교인의 호응도 크다는 것. 특히 법회 의식을 하는 대신 반야심경 등과 같은 불교 관련 내용을 한 자 한 자 써가는 것으로 진행돼,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가르침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서예법회를 맡고 있는 민인홍 반장은 "종교를 떠나서 누구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법당을 문을 두드리고 사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불교회는 서예법회 참가자들의 작품을 모아, 내년에는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철마는 자비를 싣고…

매월 천원 보시금 적립

철불협 새해사업 확정

본청 정동진의장 선출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이하 철불협)가 본청불자회 정동진 회장(사진)을 철불협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철도인 포교를 위한 전법팀 구성 △신행단체와의 연대 강화 △2002 철마는 자비를 싣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사업을 확정했다.

11월 27일 열린 전국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40여 임원들은 협의체 형식으로 있던 철불협을 전국규모의 연합회로 재정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 의장 선출에 이어 실무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공무원불자연합회,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직장직능단체와의 유대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철불협은 실천하는 철도인 불자상을 세우자는 취지에서 '2002 철마는 자비를 싣고'라는 보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2002 철마는 자비를 싣고'는 매월 1인당 1천원을 불우 이웃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철불협은 여성 불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철불협 내 여성 지도자 발굴을 통해 여성 철도인의 포교기반을 다지는 한편, 3월까지 철도인 포교를 전담할 전법팀을 구성하고 사내 인트라넷에서의 포교 효과도 높이기 위해 사이버 포교부장을 선출하는 등 포교 대계도 마련했다.

박창식 실무운영위원장은 "철불협이 그동안 본청불자회가 창립되지 않는 바람에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승무소 중심으로 개별적인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회칙 개정과 새 의장 선출로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이기호 경제수석 청와대 불자회장 맡아



청와대불자회 제 6대 회장에 이기호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55·사진)이 선출됐다.

청와대불자회(이하 청불회)는 1일 임원회의를 열고, 박준영(국정공보처장) 前 청와대불자회장의 후임으로 청불회 고문인 이 수석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노동부 장관을 거쳐 지난 99년부터 대통령 경제수석을 맡고 있다. 이회장은 옛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진념 경제부총리 등과 함께 근무하면서 경제개발시대때부터 경제정책 입안에 직접 참여해 왔으며 돈독한 불심으로 평소에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 불자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청불회는 내년 1월중 봉행하는 신년법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함께 치를 예정이다.

현재 1백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청불회는 96년 8월 박세일, 이각범 당시 수석 등의 주도로 청와대 직원불자회로 창립돼, 각 당 국회의원불자회 및 불교계 지도층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신행 활동을 펴 왔다.

오종욱 기자

게시판

알림

▲휠체어 전달식=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14일 오전 10시 복지관 강당에서 자비의 휠체어 30대 전달식을 갖는다. 이날 복지관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위한 초청강연 및 감사패 증정식도 마련한다.

▲사랑의 김치나누기=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12일 복지관 현관에서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치나누기' 행사를 갖는다. (02)265-9471

▲어르신 전통공연=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14일 오전 10시 '어르신 전통공연 발표회'를 개최한다. 관내 5개 경로당 공연팀이 나와 민요, 시조창 등을 선보인다. (051)271-0560

모집

▲산수교실=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산수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산수교실은 교과서 예습 및 복습으로 진행되며, 1~6학년 초등학생들을 대사으로 실시된다. (02)817-8052

▲차량운행 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밑반찬 배달을 맡을 차량운행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배달은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3~5시에 실시된다. (02)2203-3677

이전

▲행원문화재단 사무실=행원문화재단은 1일 서초구 서초동 1603-67번지 강남부속상가 10동 401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586-6521

▲고려대장경 연구소=고려대장경연구소는 성북구 안암동 5가 8번지 구 중앙승가대 비구니 수행관 4층으로 연구소를 이전했다. (02)797-0585

화촉

▲본사 취재1부 김재경 기자는 16일 오후 1시30분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그린웨딩파크에서 유경숙 씨와 화촉을 밝힌다. (017)332-0856

우리 모임에선

서경교사불자 환경법회



서울·경인교사불자회(회장 이호영)은 지난 11월 25일 도봉산 망월사 일대에서 환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40여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쓰레기 봉투와 집게로 매표소에서부터 망월사를 경유하는 등산로와 문수암 및 해거스님 부도탑 주변에 버려진 오물을 치웠다. 또한 회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 관통도로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사찰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교사 불자들이 적극 나설 것을 서원했다.

부경하불동 교도대 위문

하이텔불교동호회 부산경남모임은 1일 통도사 극락선원 정기법회에 참석해 선원장 명정스님의 법문을 듣고, 오후 2시 부산구치소 경비교도대를 방문, 점심을 함께 하고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15명의 회원들은 경비교도대와 함께 오관게를 독송했다.

서울 한빛은 천수경 강의

한빛은행 서울불자회는 13일 오후 7시 30분 본점 4층 강당 503호실에서 지도법사 법현스님을 모시고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원들은 법현스님의 우리말 천수경 강의도 듣는다.

교정인련 달력 배부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는 2002년도 '수용자 달력'을 제작하고 수원지회, 영등포지회, 안동지회 등 전국 42개 지회에 배포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수용자 달력은 교도소 포교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과천 불자회 법장스님 법문

과천청사공무원불자연합회는 14일 오후 6시 과천청사 3, 4동 지하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불교인'을 주제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건교부·보건복지부·농림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불자회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이 것 이 궁 극 의 진 리 에 이 르 는 길 이 다

The Dhammapada

붓다의 법구경은 'dhammapada(담마파다)'라고 불리워진다.
이 이름은 이해해되어야만 한다.
'dhamma'는 전 우주가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궁극의 법, 로고스를 의미하며,
'pada'는 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구경은 궁극의 법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는 귀중한 경전을 뜻한다.
붓다는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
아에스 담모 사난타노 (Aes dhammo sanantano)
- 이것이 그 법(法)이다, 영원한, 오랜 그리고 다함이 없는.

붓다의 이 경문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명상적으로 그 경문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명상적으로 그 경문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내가 의미하는 것은 논쟁적인 분위기 속에 있지 말라는 것이다 -
그것은 귀 기울이는 방식이 아니다.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 있어라, 여성적이라.
- 오쇼 법구경 2권 본문 중에서 -

부록 : '이것! 대나무가 전하는 말' CD(60분)
오쇼 법구경 시리즈 1권에는 마치 대나무 숲 한가운데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연주곡 CD가 들어 있습니다.

오쇼 붓다의 길
법구경 시리즈 1~12

현재 1~6권까지 출간되었으며,
7권~12권은 매달 게속 출간됩니다.

신간!!!

오쇼 | 신국판 | 각 권 12,000원

전화 02) 711-4227,8 | 팩스 02)711-4229 | www.goldenflower.co.kr | 도서출판 황금꽃

1시간 이상 참선 '생활화'

신행현장

신행회 서울지회 1백여 보살들



◇신행회 서울지회는 안양소년원, 소망의집, 광명복육원을 매월 방문해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사진은 안양소년원 찬불가 지도 모습.

20년간 쌈지 돈을 모아 불교계 안팎의 복지시설을 방문하며 불우한 이웃을 도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신행회 서울지회(회장 김명숙) 100여 보살들. 신행회는 81년 참선과 봉사가 깨달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한 영명스님(전남 순천 신행선원장)의 법문에 감동한 불자들이 하나 둘 스님을 찾은 게 계기가 돼 결성됐다. 이 때 서울에 살고 있는 불자들은 서울지회를 따로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신행회 서울지부의 활동은 단순하면서도 진지하다. 우선 회원들은 매일 아침 남편과 자녀들이 집을 나서면 참선에 든다. 개인 사정에 따라 참선하는 시간은 각기 다르지만 1시간 이상은 꼭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회원 중에는 3시간 이상 면벽을 한 채 화두참구를 하는 보살들도 여럿 있다. 이렇게 오전을 참선으로 보내면 오후에는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독송한다. 10여 년 이상 된 회원들은 보현행원품을 달달 외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지라, 집안 정리를 하고 장을 보는 중에도 독송은 계속된다.

참선과 독송으로 닦은 회원들의 신심은 주말이 되면 실천으로 나타난다. 둘째주 일요일에는 경기도 의정부 광명보육원을 찾는다. 보육원의 어린이들에게 맛있는 특식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에 의해 어질러진 보육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일이며 아이들의 옷을 세탁하노라면 하루가 후딱 간다. 8년째 이 곳을 방문한 신행회 서울지회 회원들이라, 시설의 부엌살림이며 청소 및 세탁도구들이 손에 익어 마치 엄마들처럼 일을 척척해 낸다. 또한 아이들 개개인의 입맛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봉사활동
경전 독송도 꾸준
공부·실천 둘다 열심

돈까스, 잡채, 김밥, 탕수육, 오징어볶음 등을 먹는 아이들의 점심시간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이밖에도 신행회 서울지부는 서울 독산동 소망의집 장애아들과 안양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 불자들을 매월 한 차례 이상 만나고 있고, 지난해부터 결손가정의 자녀들의 공부도 돕고 있다.

신행회가 참선과 독송 그리고 봉사, 이 세 가지를 20년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에 대해 신행회 서울지회 김명숙 회장은 "회원 모두 매년 여름 전남 순천 신행선원에서 3박 4일 동안 열리는 '참선 및 독송 수련회'에 동참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매월 두 차례 마련되는 영명스님의 참선 강좌에 참석해, 자신의 공부를 점검받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신행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수련회나 강좌에는 서울지회를 비롯해 부산, 광주, 혜광명안불자회, 운문사, 봉녕사, 동학사 등 10개 지회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회원들이 타 지회와 비교하는 시간도 가져 타 산지석을 삼는 계기도 된다는 것이다.

영명스님은 늘 회원들에게 "지혜가 있으면 자비로 나아가고, 자비가 있으면 방편을 찾고, 방편이 있으면 힘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선과 보살행이 함께 할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스님의 철학이자, 신행회 서울지회 회원들의 마음도리이기도 하다.

신행회 서울지부는 15일 회장 김명숙 씨의 집에 모여 송년모임을 갖는다. 이날 결산이나 임원선출 등도 하지만, 후원을 좀더 살갑게 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봉사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부터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내 몸과 마음을 닦고 업장을 소멸해 가는 수행의 일부분임을 알게 된다"는 신행회 서울지회 김명숙 회장은 "이번 논의에서 돈과 행위보다는 마음이 앞서는 봉사를 하자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행회 서울지회=(02)786-1104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빈 맷돌 돌리기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발견해야 참으로 아는 것이다. 남이 가르쳐 준 것을 듣고, '그게 이렇더라' 고 하는 것은 지식이 될지는 몰라도 참 지혜는 못 된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은 문자에 얽매이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동안 내가 체험한 것만을 설한다 하셨고, '이 법은 와서 보라는 법이요 현실의 법이며 누구나 증험할 수 있는 법' 이라고 설파하셨다.

조사님들도 문자나 말을 희롱하는 제자들을 앵무새 중이라 하시며 '방, 할' 로 다스리셨다.

경전과 어록은 체험한 것을 일러주기 위한 방편이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이 교문(敎門)을 세우신 것은 부득이한 조처였지 거기에 머물라고 한 게 아니었다.

말이나 문자는 체험을 나타내는 도구이지만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그 의미가 같을 수는 없다. 언제나 조금씩은, 때로는 아주 크게 그 의미가 어긋난다.

예컨대 잘 익은 과일을 먹은 사람이 제가 맛본 것을 표현하려고 '참 맛있다' 고 했다 하자. 그는 맛을 체험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다만 '맛있다는구나' 할 뿐이지 아직은 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직접 먹어볼 때에 그 나름대로의 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자로만 '맛있다' 라는 표현에 접한 사람은 어떠할까. 그의 경우라면 '맛있다' 는 말이 '잘 익은 과일을 먹다' 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질 않는다. 그의 관념세계엔 '맛있다' 는 말이 주는 많은 연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전깃줄을 만진 사람이 '어이쿠'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어이쿠' 라는 문자가 언제나 '전깃줄을 만지다' 라는 의미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어록도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 따라 제각기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줄줄 외우고 가로 세로로 꿰고 있는 것과 실제로 맛을 보는 것과는 천지차이가 있다.

단 한 줄의 말씀이라도 직접 체험할 일이다. 빈 맷돌을 열심히 돌린들 얻을 게 무엇이랴.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사는 '나눔'에 눈 돌려야 할 때"



지현스님
봉화 청량사 주지

인간은 본능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 그 본래의 근성(根性)대로 호전적인 면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지상에서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는데, 고대 중국에서 인간 본성을 두고 성악설(性惡說)과 성선설(性善說)로 나뉘어 논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를, 예수는 사랑을, 마호메트는 평화를 주창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한번도 싸우지 않은 쪽은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군을 내세워 저 유명한 백년전쟁을 치렀고, 평화를 주창한 마호메트의 이슬람도 끝없이 싸웠고, 오늘도 미국 등 서방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주창한 예수의 기독교

"맹신은 전쟁의 불씨
악의 순환 더는 없어야"

가 어찌 싸움을 원했으며, 평화를 주창한 마호메트의 이슬람이 어찌 그들 교도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도록 했겠습니까. 문제는 맹신입니다. 이슬람 과격파(그것을 원리주의라고 함)는 매우 호전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졌지만 아프간 사태의 중심에 서 있던 탈레반 정권은 여자 아이들과 여교사들을 아예 모두 학교에서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TV에서 그 아이들이 밤에 비밀리에 모여 공부하는 장면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옛날 일제치하에서 우리 여학생들이 밤에 몰래 모여 독립운동 집회의 전단을 가슴에 품고 왜경의 눈길을 피해 골목골목으로 쫓기듯 흩어지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시큰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발각되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지스런 맹신의 짓입니까.

맹신은 맹신을 불러 테러를 저지르고 급기야 전쟁의 불씨를 지피는 악(惡)입니다. 물고 물리는 악의 순환, 이런 짓을 어찌 종교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감히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전쟁은 피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종교를 빙자하여 저지르는 행위는 특히 금해야함은 물론입니다.

화는 화를 불러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용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렵고 어지러운 이 시절에, 우리 불자들은 다시 한 번 부처님의 자비를 가슴속 깊이 되새겨 보아야겠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적을 스스로 무찔러 자비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한(有限)합니다. 윤회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만고의 법칙을 사람들은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앞의 이해타산에 억눌려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와 타인이 서로 다르지 않다' 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그러한 마음도리에서 찾아야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적극적인 행위인 '나눔' 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은 서설(瑞雪)이라고 합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상서로운 첫눈이라는 뜻입니다. 내리는 눈을 맞으며 아이들은 좋아라고 뛰어다닙니다. 순진무구한 웃음을 허공에 날리며 눈과 함께 놉니다. 세상 모두가 눈 속에 묻히고, 불안하지 않고 포근하기만 합니다. 이 첫눈을 신호로, 오랜 가뭄이 해갈되고 위축됐던 경제와 불안정한 정치가 풀리고 온 사회가 두루 평안하길 기원해 봅니다.

신행 캘린더

11월 12일 (수)

■성주사 발굴추진위 현판식=강화도 선원사는 오후 3시 충남 보령 성주사지에서 성주사발굴추진위 현판식을 연다. (016)323-8236

■'김장 담가주기' 행사=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독거노인과 부자가정 등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행사를 연다.(051)363-2063

■아동송년잔치=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오후 2시 30분 5층 강당에서 가족 단위로 진행되는 '아동송년잔치'를 개최한다. (02)2282-1100

12월 13일 (목)

■송광암 '가족수련회'=전남 고흥 송광암은 1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061)843-8488

12월 14일 (금)

■제2차 가산포럼=가산불교연구원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수행과 개인 그리고 공동체'를 주제로 제2차 가산포럼을 개최한다. 출발은 명륜동 4가 가산연구원. (02)765-9602

■보현불교대학 특강=대전 보현불교대학은 오후 7시 대법당에서 박광서 교수를 초빙해 '미래사회와 불교'라는 주제로 특강을 연다.(042)624-6555

■채색의 힘-그 아름다움의 힘 전시회=가나아트홀은 불교적 모티브와 전통회화기법을 소재로 박생광, 박래현, 이화자 작가전을 연다. (02)720-1020

■길상사 '대중법회'=서울 성북동 길상사는 오전 10시 극락전에서 회주 법정스님을 법사로 창건 4주년을 기념하는 정기대중법회를 봉행한다. (02)3672-5945

12월 16일 (일)

■한마음선원 수계식=한마음선원은 오전 11시 안양 본원에서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을 계사로 수계식을 봉행한다.(031)470-3100

12월 17일 (월)

■동국학원 수계법회=동국학원은 오후 2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02)2268-2314

12월 18일 (화)

■천안경찰서 불자회창립법회=천안경찰서불자회는 오후 4시 회의실에서 경승실장 법혜스님을 법사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041)561-0112

불교문화상품 전문 사이버 몰 마하몰(www.mahamall.co.kr)

기획상품 - 고급 경상 (홍송)

기존의 경상 가격이 높아 쉽게 구입하지 못한 사찰 및 불자가정에 보다 폭 넓은 보급을 목적으로 마하몰에서 기획상품으로 홍송원목의 고급 경상을 저렴한 가격으로 한정된 물량만 공급하고자 합니다.



무늬목 접착가공이 아닌 고품질의 홍송 원목을 사용하여 가치를 최대한 높였습니다.
재질 : 고급 홍송 원목 조각 : 십장생, 연화
표면처리 : 원목 생들기름 도장마감
규격 : 가로120Cm×세로42Cm×높이 38Cm
※ 특별공급가 : 495,000원

우리가 바라는 세상
아름다운 사이버 불교 세계

2001년 하반기 결산 전 상품 할인
기간 : 12월1일~12월31일
※ 월드컵 기념종 및 천연염색 상품 제외
※ 3만원 이상 구매 고객 모두에게 고급 기도포 증정 (3만원 이하 구매시 운송료 2000원 별도)

SALE 5%

불자반지 · 목걸이



卍(만)자를 둘러싸고 있는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테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반지(14K / 18K)
정상가 : 110,000원(14K) / 145,000원(18K)
할인가 : 104,500원(14K) / 137,750원(18K)

목걸이(14K / 18K)
정상가 : 155,000원(14K) / 195,000원(18K)
할인가 : 147,250원(14K) / 185,250원(18K)

천연염색이불



옛부터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염색법에 의한한방이불로서, 기존의 인체에 해로운 화공약품으로 염색한 이불과는 전혀 다른 숯, 황토, 쑥등 인체에 유익한 100% 천연 한방 약재로 염색처리한 이불입니다.

종류 : 숯, 황토, 쑥
정상가 : 150,000원

포대화상

오래된 소나무(노송)를 이용하여 100% 수작업으로 조각한 작품입니다.



포대화상(大)
규격 : 높이45Cm×넓이30Cm
정상가 : 368,000원
할인가 : 349,600원

포대화상(中)
규격 : 높이22Cm×넓이13Cm
정상가 : 50,000원
할인가 : 47,500원

포대화상(小) 규격 : 높이13Cm × 넓이7Cm
정상가 : 15,000원 / 할인가 : 14,250원

※ 100% 수공에 작업 작품이므로 사진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송기간은 3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장미목 염주세트

수주(數珠)라고도 하며 예불할 때 손목에 걸거나 손으로 돌리기도 하며 염불이나 절을하는 횟수를 세는데 쓰기도 하는 법구의 하나이다.



재질 : 장미목
구성 : 염주(10mm) + 단주(25mm)
정상가 : 15,000원
할인가 : 14,250원

● 지면에 광고된 상품과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불교문화상품 문의 전화 : 02)732-1520 무통장 입금계좌 : 국민은행(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14. 경전독송 언제부터

언제부터 경전을 독송하기 시작했을까. 불교사의 전승에 의하면, 경전은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직후 가섭 존자가 발의하여 결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 재세시부터 몇 가지 경전을 독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초기불전들이 증명한다. 그 사례 가운데 하나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권3에 실린 향료 무역을 위한 항해 도중, 경전을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인생의 항로를 바꾼 사람, 그리고 포교사의 모범이 된 인물의 이야기이다.

B.C 6세기 인도에 푸르나라는 무역업자가 있었다. 그가 무역을 위해 머나먼 바다를 항해하고 있던 어느 날 밤, 상인들이 갑판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소리가 푸르나를 갑판으로 이끌었다. "이익밖에 모르는 상인들이 천상의 노래를 부르다니"라고 의아스럽게 여긴 푸르나는 한 소절의 노래가 끝나자 상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노래를 아주 잘하는 군요." 노래를 멈춘 상인들이 말했다. "상주(商主)여, 이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상인들의 대답을 들은 푸르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신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고 생각했다. 〈율장〉은 당시 푸르나의 심경을 "일찍이 불법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었던 푸르나는 오늘에서야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는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부터 깊은 믿음이 생겨 상인들에게 물었다"고 적고 있다.

설법제일 푸르나 존자 독경소리듣고 귀의

푸르나가 물었다. "부처님은 누구이시며 어떤 말씀을 외우십니까." 상인들은 조용히 대답했다. "부처님께서는 사문이신 고오타마이시며 석가족으로서 수염과 머리를 깎으시고 가사를 입으시며 바른 신심으로 출가하셨습니다. 그 분은 부와 나라조차 버리시고 산림에 계시면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셨으니 이 분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우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설법하신 〈올타남송〉, 〈제상좌종〉, 〈세라니송〉, 〈모니지송〉, 〈중의경〉입니다."

푸르나가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상인들은 슈라바스티의 절에 계신다고 대답했다. 푸르나는 그날 밤을 갑판 위에서 새웠다. 부를 찾아서 이 항구 저 항구를 떠돌던 자신의 분방한 인생을 암도하는 그 무엇인가가 푸르나의 가슴을 흔들었던 것이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한다. 경전을 염송하는 소리를 듣고 회심한 푸르나는 항해 무역을 통해 모은 재산을 포기하고 진리의 바다에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이 불교의 역사에서 불굴의 포교정신과 뛰어난 변재를 가진 포교사의 모범으로 알려진 푸르나(富樓那) 존자다.

푸르나가 초기의 수업을 마치고 수나발라득가국으로 전법을 떠날 때 부처님은 "그 나라에는 성질이 포악하고 모진 욕설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들이 그대를 능욕하고 비방한다면 어찌 하겠는가"는 질문한다. 이에 푸르나는 목숨을 해치려 해도 끝없는 인욕과 전도에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답을 올린다.

이처럼 한 소절의 경전 말씀이 부를 찾아 바다를 오가며 항해무역업자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또한 푸르나는 대승경전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에 다시 등장하여 부처님으로부터 "나는 항상 그를 법을 설하는 사람 중의 으뜸이라고 말해왔다"는 찬탄을 받고 있다.

경전은 불교의 표상이며 불교가 전해진 광대한 지역, 모든 시대의 문화적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지혜의 보고(寶庫)이다. 그러므로 〈법화경〉 여래수량품은 "여래께서 설하신 경전은 모든 중생을 고뇌에서 해탈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다(如來所演經典 皆爲度脫衆生)"고 불교경전의 의미를 정의한다. 그러나 수행체험과 불교적 직관이 필요한 불교연구를 학자들에게 떠넘겨버리고 "경전연구는 학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비껴 서서 세속의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를 찾아서 표류하는 지식방랑자가 되고 만 현대 한국승가의 실정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한 노고를 바쳐 경전을 읽고 대중들이 수지할 수 있는 불교의 사상과 신앙, 문화와 의례를 생성하고 조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불법의 빛이 번져간 불교 원래의 무늬를 복원하는 작업인 것이다. ▩경학회 회주

출가사문 생활양식이자 수행방편

참불자의 길 탁발(托鉢)



◇조계종이 깨달음의 사회화 일환으로 탐골공원에서 마련한 자비의 탁발행사에서 불자들이 보시를 하고 있다.

스스로 나를 낮춰 인욕하는 마음 닦아 남방불교 지금도 성행

걸식아동 돕기 탁발, 이재민 돕기 탁발, 이웃과 민족을 위한 자비의 탁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탁발(托鉢)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탁발의 본래 모습은 요즘 행해지는 것과 같은 '특별행사'가 아니다. 출가사문의 생활양식이자 수행의 한 방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갓 출가한 사문에게 "출가 사문의 생활은 이 세상의 어떤 생활보다 하급의 생활이며 출가자는 얻어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모든 출가자는 밥을 얻어먹어야 했으며 이를 탁발이라 한다. 사실 이러한 걸식은 수행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을 얻어먹는 고대 인도의 풍습이었다. 이러한 관습이 그대로 불교의 수행인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탁발은 일반적으로 걸식(乞食), 걸행(乞行) 등으로 일컬어지며 손에 발우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탁발에 대해 "가난한 집과 부잣집을 가리지 않고 차례로 일곱 집에서 탁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출가 수행자의 생활은 엄중한 규율에 입각하고 한치의 어긋남도 허용치 않는다. 먹는 일도 예외는 아니다. 의식주에 탐착하지 않고 오로지 불도를 구하는 두타행(頭陀行)도 그 중 하나다.

이 두타행 중에서 일좌식(一座食)과 부작여식(不作餘食)이라는 규칙이 있다. 일좌식이란 오전 중에 거리에 나가 음식을 얻는데, 탁발해서 얻은 음식을 오전 중 한 끼만 먹는 것으로 오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부작여식이란 생명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만 먹는 것이다. 만약 걸식한 음식이 많을 때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걸식할 때는 수행자는 반드시 네 가지 마음(乞食四事)을 가져야 한다. 심신을 바르게 하고(住正戒), 용모를 단정히 해 위의를 갖춰 보는 이로 하여금 공경하여 믿고 따르게 해야 하며(住正威儀), 법도에 따라 걸식하고 부정한 생각을 여의어야 한다(住正命). 그리고 몸이 괴로움의 근본임을 알고 음식은 겨우 몸을 지탱할 수준에서 만족해야 한다(住正覺)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걸식의 참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가섭이여, 자비심이 있다 해도 그것이 능히 두루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태여 부잣집을 버리고 가난한 집에만 가서 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식은 평등한 법에 머물러서 차례로 해야 합니다. 걸식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쌓인 업을 부수기 위함이며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지 않을 도를 이루게 해주기 위해 음식을 얻는 것이다."

결국 출가사문이 탁발을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중생들이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리고 수행자들은 탁발을 통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나를 낮춤으로써 아집과 아만 그리고 인욕하는 마음을 닦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탁발 제도는 부처님 당시부터 수행자들이 행하였고, 남방의 불교권에서는 지금도 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방 불교권에서는 생활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수행의 한 방편으로 탁발이 가끔씩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까지 스님의 탁발을 했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공식적으로는 탁발을 금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㊶

서현모(徐顯模)에 대한 답서

마음은 인연따라 자유롭게 나타나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이 일은 선방 생활을 오래 하거나 선지식을 많이 찾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마디 한 구절 아래에서 곧바로 계합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진실을 말함에는 털 끝 만큼의 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곧바로' 라고 말하지만 벌써 구부러진 것이고, '계합한다' 고 말하지만 이미 어긋난 것입니다. 하물며 다시 경전을 끌어 들이고 가르침을 들며, 이치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여 구경(究竟)에 이르고자 함에 있어서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털 끝만 한 것이라도 있으면 바로 티끌이다' 고 옛 스님이 말했습니다. 본래면목을 아직 알지 못하고 망상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비록 강바닥의 모래만큼 많은 도리를 말한다고 하여도 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있든 말할 수 없든 별다른 일은 아닙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마조 스님은,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고 말할 수 없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다' 고 했습니다."

본래면목이 분명하다면 선(禪)이라 하든 교(敎)라 하든, 부처라 하든 중생이라 하든, 입을 열든 입을 다물든, 앉아 움직이지 않든 서서 다니든, 생각을 하든 생각을 잊든, 깨어 있든 잠을 자든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일부러 선이라 할 것도 없고 교라 할 것도 없고 부처라 할 것도 없고 중생이라 할 것도 없고 고요히 앉아 있을 것도 없고 서서 다닐 것도 없다. 오히려 선이라 하든지 교라 하든지 부처라 하든지 중생이라 하든지 구분하고 차별하여 세우고 무너뜨리고 한다면 선(禪)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선은 원래 보고 듣는 온갖 일과 온갖 행위와 온갖 생각에 착착 들어맞아서 털 끝 만큼의 어긋남도 없다. 그러나 생각을 앞세워 따지고 헤아려 간다면 단 한 가지 일이나 단 한 가지 행위나 단 한 가지 생각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놓아두면 본래 옳지 않은 것이 없지만,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면 한 가지도 옳은 것이 없다. 이것을 두고 털 끝 만큼의 차이로 하늘과 땅 만큼이나 벌어진다고 말하는 것이고, 털 끝 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바로 티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번갯불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본래면목은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일으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일으키면 상(相)을 따라 분별하고 분별하게 되면 취하고 버림이 있게 되니 가면 갈수록 더욱 어긋나기만 한다. 그러나 아무리 어긋나더라도 진실을 알고 보면 어긋남이 없다. 마치 본래 정해진 모습이 없어서 인연따라 자유롭게 모양을 바꾸는 것이 물의 본성이어서,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겨서 어떤 모양으로 변하더라도 본래의 물은 조금도 바뀜이 없이 그대로 물인 것과 같다. 만약 물이 자신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인연따라 바뀌는 모양에서 자신을 찾는다면 물은 결코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본래 모양이 없어서 인연따라 자유롭게 나타나고 사라진다. 그와 같이 인연따라 나타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의식이요 느낌이요 의지요 지식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이나 느낌이나 의지나 지식 등 알음알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찾으려고 한다면 마치 물이 그릇의 모양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마음은 어디에든 나타나 있지만 스스로는 정해진 모습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달았으면 모든 곳에서 마음을 볼 수가 있지만,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어떤 곳을 찾더라도 어디에서도 마음을 찾을 수는 없다. 인연따라 흘러가는 '이것'은 흘러가지 않는다.

http://www.mindfree.net

알림 김태완 선생이 『서장』, 『원오심요』, 『전심법요』, 『금강경』 등을 가지고 겨울 특별 법회를 1, 2월 동안 부산에서 개최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문의는 011-9550-1459(김태완), 011-9520-0054(이정화).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전법인을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0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인환스님(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김호귀(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신진규법사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천포교원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우리춤과(30명) · 한문학과(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12월 10일 ~ 2002년 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4시(우리춤반)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 학 일 시 2002년 2월 2일(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064)755-2203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니르바나님은 내 맘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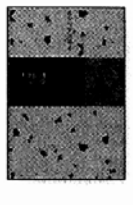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 1890~1981)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이 책은 다석사상에 입각하여 불교의 대표적 경전 '반야심경'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고 풀이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석의 종교다원주의적 관점과 비교종교학적 관점하에 반야심경을 『성경』 등과 비교해 해설을 붙여 놓았다. 저자는 각자 맘속에 있는 니르바나님을 깨닫고 그것에 의지해 '얼나'(法身, 영적인 나)를 찾아 참다운 자아에 이를 때 절대세계와 하나가 되어 생사(生死)를 넘어서는 참다운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박영호 지음 / 408면 / 15,000원 / 양장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벼락치듯 깨닫는 지혜의 경전인 금강경을 다석사상을 바탕으로 새롭고 알기 쉽게 풀이했다.
박영호 지음 / 296면 / 13,000원



노자(빛으로 쓴 얼의 노래)
이광수, 최남선, 김교신까지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다석의 노자 「도덕경」 풀이.
박영호 역 · 저 / 408면 / 12,000원



장자(자유에 이르는 길)
어렵지만 꼭 읽어야 할 보배로운 경전, 장자의 웅장하고 심오한 사상을 명쾌하게 풀이했다.
박영호 역 · 저 / 463면 / 12,000원

두레의 多夕 사상전집
1 2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상)(하) 3 다석 류영모가 본 예수와 기독교 4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5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6 다석사상으로 본 유교(근간) 7 다석 류영모 어록(근간) 8 다석 류영모 강의록(근간)

도서출판 **두레** 전화 : (02)702-2119 팩스 : (02)715-9420

이렇게 들었다

환경대책

"흙과 물은 나의 옛 몸"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지는 것이다. <유마경>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행할지니라. 세세생생 몸을 받아 상주하는 법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쳐 방생하게 하고 항상 널리 교화하여 보살계를 강설해 중생을 구제해야 하느니라. <범망경>

▨저 불국토에는 목욕할 수 있는 호수가 수 없이 있다. 그 호수에는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물(八功德水)이 철철 넘치고 맑은 향기가 풍겨 마치 감로수와 같은 느낌이다. 호수 속에는 푸르고 붉고 노랗고 흰 연꽃이 눈부시게 피어 물 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환희에 넘쳐 마음의 때가 말끔히 씻긴다. <무량수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월 30일 지난해부터 지역주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진통을 겪어온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 본회의에 넘겼다.

이 특별법안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가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상류지역 주민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상류지역 오염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장관뿐 아니라 해당 시도지사도 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수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유지인 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따른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은 수계관리 기금으로 지원토록 했다. 환경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적극 환영할만하다.

불교에서도 환경사상은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國土淸淨)'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을 통해 '환경과 우리 몸이 둘이 아님(身土不二)'을 말씀하셨다. 〈사분율〉에 보면 "발우를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뼈·상아·뿔 같은 것으로 바늘 등을 만들지 말며,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또 〈보리행경〉을 보면 "일체의 유정은 무량한 수명을 갖게 하라. 항상 즐겁게 살고 죽음이란 말마저도 없어지게 하라. 또 모든 곳은 부처님과 불자들이 가득하여 법음이 언제나 즐겁게 울리게 하라. 모든 생물들에게 새 나무 광선 허공으로부터 법음의 울림이 쉴 새 없이 들리게 하라"고 설하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법적인 제재보다는 이에 앞서 국민들 모두가 쓰레기 적게 버리기, 생활하수 줄이기 등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내 주변에서부터 환경보존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김주일 기자

'지적재산' 훔치는 것도 명백한 범죄

불자 세상보기



조성열
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무국장

교수사회 논문 베끼기 끊임없는 표절시비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지난 11월에 외국의 학회지에 실린 국내 대학교수의 논문이 외국 학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교수가 사과문까지 발표하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더욱이 논문의 공동저작자인 한 교수는 자신은 표절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했는데, 그 말이 더 어처구니가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의 지적 재산을 훔쳐갈 요주의 국가라는 뜻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났다고 말한다.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적으로 선두 업종인 산업분야도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 보호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제기된 외국 학회지의 논문 표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른다. 사회 각 분야에서 표절이 판을 치고 있다. 새로 발표된 음반의 표절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외국방송을 표절한 방송 프로그램도 많다. 해외 문학작품과 해외 학술서적의 표절,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상품의 디자인 표절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표절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표절 중 무단복제에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표절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인용으로 간주되는 표절은 불법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인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무단복제로 범법 행위가 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의 지적재산을 훔치는 것에 대하여 관대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복제 사실을 지적하면 도리어 비정하고 예의없는 인간으로 간주된다.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 선배 교수의 표절 사실을 지적했다가 자퇴하기도 했다. 심한 경우 오히려 불법행위자가 큰소리치거나 집단적으로 반발하기도 한다.

국내 지적재산권의 보호 역사는 선진국에 비해 짧다. 저작권 보호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도 10여년 정도 밖에 안된다.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는 옛말이 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한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인 지적재산 보호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 학창시절 원서나 교재를 통째로 복사해 사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짜집기해 리포트를 제출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예전에 관행처럼 행했던 일들을 범죄 행위라고 단정해도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타인의 지적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지 않았기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우리 주위에 산재하는 불법복제 행위에 대하여 누가 누구를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국가는 학생들의 교과서에 지적재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어릴 때부터 지적재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저작권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는 불법복제 방지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현재 세계는 정보통신산업을 주축으로 디지털 사회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는 지적재산이 중요시되는 사회다. 남의 것이나 베끼고 모방해서는 정보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타인의 지적재산을 보호해야 우리의 지적재산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이슬람과의 대화' 강좌 연기 소식 듣고 아쉬움

지난 5일 불교아카데미가 계획했던 '이슬람과의 대화' 강좌가 연기돼 아쉽다. 더욱이 연기된 이유가 수강자 부족이라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 이번 강좌는 최근 일어난 9·11 테러 때문에 이슬람교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아마 홍보만 충분했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참여인원부족 때문에 강좌가 연기됐다는 사실은 불교계 단체의 행사 추진력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화려한 대의명분에 비해 실제로 그 행사를 말아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너무 허술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론의 흐름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추진된 행사가 없었는가를 교계 단체들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 회기동 강명헌>

태고종 새 총무원장 종도간 화합 나서길

얼마전 태고종이 중앙종회에서 운산스님을 만장일치로 새 총무원장에 선출했다. 이것은 태고종단이 그 동안 침체와 혼란을 면치 못했던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태고종은 총무원장 선출 문제로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너무나 크고 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태고종단 종도로서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따지고 보면 그 원인은 첫째로 종단에 인재가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종도들의 의식과 사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과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는 화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종단현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새 총무원장 선출을 계기로 종도간의 화합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과거의 잘못된 인습과 사고와 선입견을 과감히 버리고 환골탈태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화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 안산시 김국성>

독거노인 119서비스 응급상황 병원이송

독거노인들을 위한 119서비스를 소개하려 한다. 나는 지방에 홀로 어머니를 남겨두고 서울로 올라와 고학하고 있는 불자청년이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나름대로의 꿈을 펼치기 위해 상경은 했지만,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항상 맘에 걸려 걱정이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어와 산동네 자취방에 몸을 누울 때면 마음 한 구석이 언제나 무거웠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원터치부름' 전화기를 무료를 설치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척 반가웠다. 응급상황시 곧바로 119응급대에 연결돼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서비스라고 한다.

지금은 전화기가 설치되어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불자들에게 '119원터치 부름' 서비스를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됐다.

<관악구 봉천동 박민석>

● 현대불교를 읽고

복지기사 많이 다뤘으면

얼마 전 한 불자가 모자보호원에 입소하려다 개종을 요구받았다는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다원화 사회에서 함께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 앞서, 불교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는 개신교 천주교에 비해 사회사업의 영역도 좁고, 활동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단이나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교계 언론이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복지와 관련한 활동이나 문제점을 폭넓게 보도해 불교복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현대불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

<부산 동래구 박민정>

기고

집단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 보살필 책임



이우상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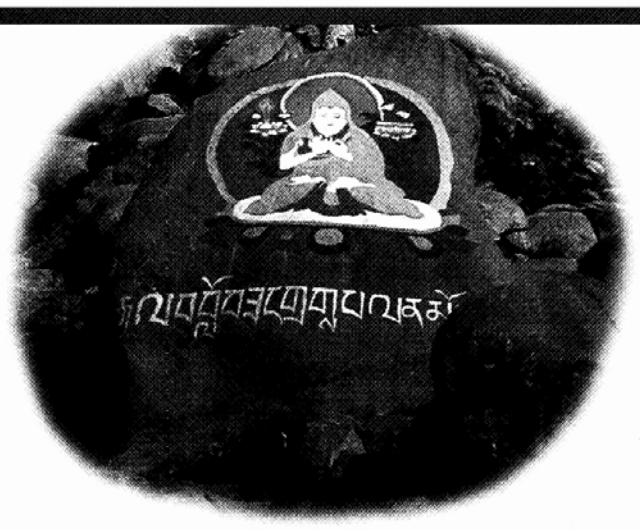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4학년인 딸애가 핏기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6학년 언니들 몇 명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자꾸 위협한다는 것이다. 아이들 일에 부모가 개입하는 것은 불썽사납다는 신념이 있는 터이라 그냥 흘려 들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이의 표정은 심각하다 못해 울음을 터트릴 것 같았다. 또래끼리 치고 박고 부딪치고 깨지고 하면서 자라는 것이라는 생뚱맞은 말로 아이를 달래기에는 사태가 심상치 않았다. 표적으로 삼아놓고 복도건 운동장에서건 마주치기만 하면 허리 숙여 인사를 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힘한 일, 궂은 일은 남에게만 생기는 것인 줄 알면서 사는 것이 우리네 심보다. 얼마 전 브도된 선모군(13)의 죽음도 남의 일이다. 또래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끝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다. 쉴 새 없이 괴롭히는 고통을 참지 못해 어린 생명이 꽃잎처럼 몸을 날려버린 것이다. 휴대폰으로 '엄마,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아이가 이 세상에 남긴 유언이 되어버렸다. 가해 학생의 정서적 결함, 폭력물의 유행, 학교와 교사의 책임 회피 급급이란 말마저 공허하다. '가칭 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법'이란 긴 이름의 특별법마저 미덥지 못하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구원을 호소하는 딸애에게 말했다. 한 번만 더 너보고 허리 숙여 인사하라고 하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해라. 언니가 깡패야? 내가 왜 모르는 언니한테 인사해라고. 그리고 덧붙였다.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서 단단히 혼을 내 주겠다고 딸애는 안심이 되었는지 울먹거림을 멈추었다. 그러나 나는 계속 분을 삭히지 못해 부들부들 떨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부당한 괴롭힘이 있으면 분노하며 나서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어른된 자의 책무일 것이다.

서구인들은 왜 '라다크'를 꿈꾸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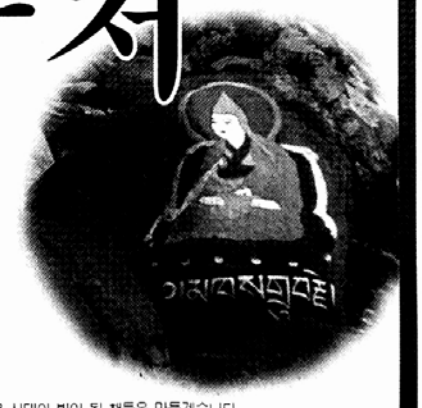
작은 티베트 '라다크' 그 곳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인도 태생의 영국 시인이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앤드류 하비 지음
연호택 옮김





A5신 378쪽/ 값 12,000원

이 책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원제 : A Journey in Ladakh)는 인도 태생의 영국 시인, 앤드류 하비가 라다크에서 만난 스승, 링포체(Thuksey Rinpoche)를 통해 얻게 된 영적 눈뜸의 과정을 그린 책이다. 글을 쓰기 전에 입정 상태에 들어가 마음 속에 떠오르는 라다크에서의 체험을 하나하나 살려내 글로 옮겼다. 지은이는 이 책을 쓸 때, 자신의 에고를 완전히 죽이고 링포체의 마음 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갔을 때 드러나는 생각과 지혜를 그대로 옮겼다고 한다.



저자 앤드류 하비는
인도 태생의 영국인 명상 수행가이자 시인이며 작가이다. 1952년 인도 뉴델리에서 태어나 9살에 영국으로 건너가 교육을 받았다. 21살에 옥스퍼드 대학 역사상 최연소 교수로 임명되기도 했다.
역사학자이자 시인, 셰익스피어 연구자로 천재성을 나타냈지만 틀에 박힌 영국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25살에 인도로 돌아와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 살면서 파리, 독일, 뉴욕을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온라인 서점 www.yosiamun.com

사·부·대·중

상근기와 하근기



도각스님
〈동국대 강사, 불교사〉

지난 11월은 그 어느 달보다 불교문화 행사가 풍성한 달이었다. 그 가운데 태고보우 스님 탄신 7백주년, 대각국사 의천스님 열반 9백주기 학술행사가 열렸다. 주지하다시피 보우스님은 임제선법을 석옥청공에게 직접 전수받은 조계종 법통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고, 의천스님은 고려 천태종을 개창하신 분이다. 두 스님을 종조로 모신 해당 종단에서 두 스님의 선양을 위한 각 행사를 주최했다. 물론 행사를 어느 종단에서 개최하느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큰스님의 구법정신과 대중교화에 종단이 따로 있겠는가. 그런데 유감인 것은 예의 학술행사가 그렇듯 예전과 비슷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물론 한 시대의 인물을,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조명하는 한계를 갖고 있으니 달리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그 분들의 하화중생, 애민섭수의 면을 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태양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은 자기 등 뒤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법이다. 양지와 음지가 둘이 아니듯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지 않는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세모를 눈 앞에 두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종단의 규모가 큰 만큼 전법의 방향도, 대 사회봉사도 걸맞은 수준에 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다.

'불교는 상근기 아니면 하근기가 믿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잘못 하면 냉소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 말이다. 주위에는 우리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부르짖지만 이상일 뿐 우리네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선대 고승들이 왕실이나 귀족들의 귀의만을 받았으며 동료 승려에게만 덕화가 미쳤겠는가. 크나큰 사상 못지 않게 대중의 아픔을 같이하는 실천궁행의 삶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에까지 그 정신이 이어져 왔겠는가. 우리들 곁에 큰 스승이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작은 일화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며 난세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느꼈으면 한다.

목탁소리

종교계의 성차별

김 재 경 (취재1부 차장)

비구 스님에 대한 비구니 스님의 8가지 공경법을 명시한 팔경법(八敬法)은 여성 불자들을 억압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최근 한국 불교계에서는 '팔경법은 불설(佛說)이므로 불제자들은 마땅히 이를 따라야 한다'는 보수적인 비구 스님들과 '팔경법은 후세의 삽입이며 불설이 아니라'는 여성 불교학자들 간의 견해가 맞서고 있다.

80년대 초 불교계는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는 동국대 이영자 교수의 발언이 충격적일 정도로 여성 주의적 시각이 전무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잇달아 논문을 통해 '팔경법'의 비불설과 종단내 선거권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 내 불교여성개발원을 비롯 여성불교연합회, 불교여성회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한국비구니연구소는 비구니사 정립을 위한 학술사업에 나서고 있다. 불교 여성운동은 아직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에 해당하지만, 종교계의 성차별을 극복하려는 여성운동과 궤를 같이하면서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간 한국 종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를 막론하고 남녀의 성역할을 구분한 유교문화 등의 영향으로 교리 및 경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관습과 문화적 이유로 여성 성직자 및 여신도들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존재해 왔다.

그러나, 늦은감은 있지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종교연대를 비롯, 여성 종교인들의 연대를 통한 움직임도 태동하는 추세여서 종교여성운동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체 스님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구니 스님들. 덕과 지혜를 갖추고도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이들이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불교계도 문을 활짝 열었으면 한다.

전자 사천왕이 '사찰안전' 지킨다

조계종, 방범·방화업체 5곳 선정

내년 4월까지 무인경비시스템 의무화

'더 이상 눈뜨고 앉아 당할 수는 없다.' 해마다 줄지 않는 불교문화재 도난에 시달리던 조계종이 드디어 방범 시설 강화에 나섰다. 변변한 경보시설이나 비상벨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사찰에 무인 경비 시스템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종단 소속 사찰에 방범·방화 감지시설을 설치할 경비업체 5곳을 선정, 공고했다. 조계종 소속 2000여 사찰은 지난 7월 제정, 공포된 '방범·방화에 관한 령'에 따라 이 5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을 선정, 내년 4월까지 방범·방화 감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범·방화 감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성보 도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찰 주지는 승려법(47조 1호, 48조 11호, 51조 7호)에 따라 중과실 또는 고의 책임을 물어 징계에 회부된다. 성보를 도난 당한 사찰의 주지에게는 면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승려법으로 규정돼 있다.

◆어떻게 선정했나=현장 실태 조사 등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친 조계종 총무원은 올 7월 10일 '방범·방화에 관한 령'을 제정, 공포했다. 과다 경쟁을 막고 사찰에 적합한 방범방 구축을 위해 7월 23일 방범경비업체를 공개 모집해 에스원, 캡스 등 7개 업체를 선정했다. 8월에는 사찰에 적합한 방범방 구축을 위해 도 단위로 8개 시범사찰에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했다. 8월 말 모의 도난훈련 결과 등을 종합해 에스원 에스오케이, 현대안전공사, 세파치서울시, 고려정보통신 등 5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사찰이 총무원에서 인증한 업체를 통해 방범·방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월 25%의 용역료 할인과 보험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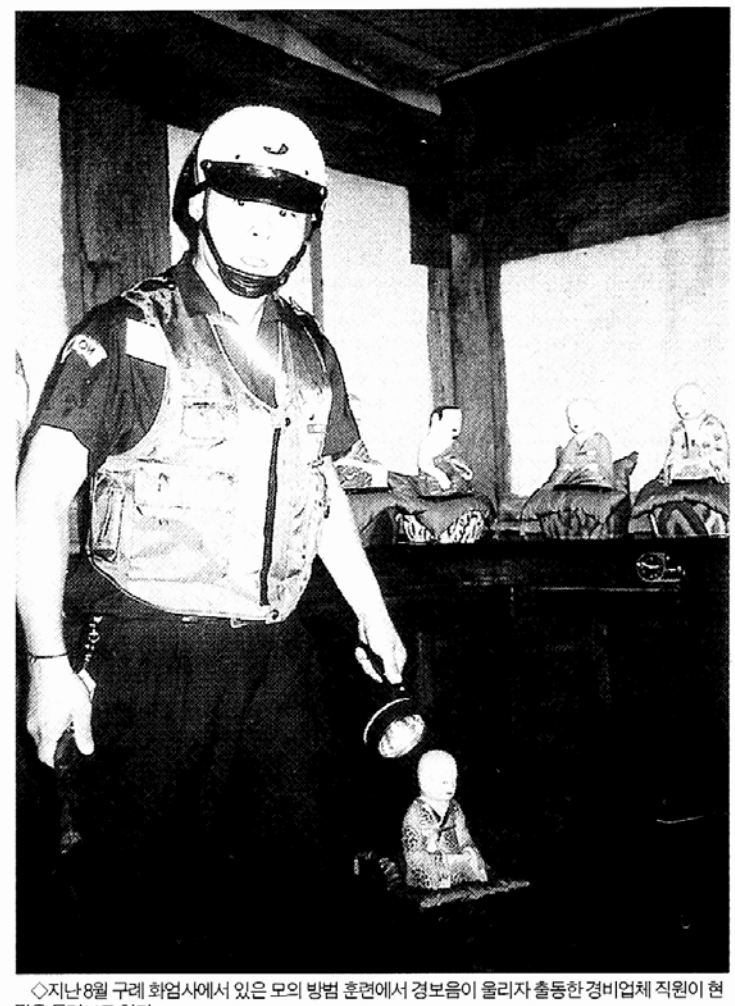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내년 4월까지 사찰이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무인 경비 시스템이다. 대웅전 등 전각 내부에 설치하는 것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있다.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잠금 장치는 가장 기본이다. 문이나 창 등 열고 닫는 장소에 설치해서 침입자를 감지하는 방범 센서도 방범 감지시설에서는 기본이다. 온도 차이에 의해 내부 침입 여부를 식별하는 열 감지기도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 탱화나 불상 등 분리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성보에는 분리 감지 장치나 추적기 등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방범·방화에 관한 령'은 소속 사찰을 사격에 따라 네 단계로 분류해 설치해야 할 시설에 차이를 두고 있다. '가' 군에 속하는 79개 사찰은 내년 7월까지 화상 감시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지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로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금 사찰, 관람료 사찰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정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280여 사찰('나' 군)은 2003년 7월까지 설치하면 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를 위해 최근 참여업체 모집 공고를 낸 바 있다.

성보 도난·화재발생
사찰주지 징계회부

조계종 총무원 인증 방범·방화 설치업체

회 사 명	특 징	연 락 처
(주)에스원	198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스템 경비 시작. 전국 규모 통신 네트워크 구축.	(02)3287-3824
(주)에스오케이	1981년 설립. 시큐어 소프트 '수호신' 국내 보안업계 최초로 K4 인증.	(02)409-6915
(주)현대안전공사	2000년 설립. 침입자를 외부에서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시스템.	(02)571-0487
(주)세파치	1991년 설립. 디지털 영상 감시 시스템 구축. 사후 보상 용이.	(02)571-0487
(주)고려정보통신	1998년 설립. 이상 감지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에 통보하는 홈케어 서비스 제공.	(02)2105-0190



◇지난 8월 구례 화엄사에서 있은 모의 방범 훈련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어떻게 운영되나=침입상황이 발생하면 경보음과 함께 방범 경비업체의 중앙 관제실로 상황이 접수된다. 관제실에서는 사찰 관리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도 침입 상황을 알리게 된다. 문화재가 있는 사찰의 경우 지난 9월 출범한 우리 문화재지킴이 담당 경찰과 비상 연락망이 설치돼 있어, 즉각 출동하게 돼 있다.

'방범·방화에 관한 령'에 따르면 중앙교무기관과 교구본사, 사찰의 주지는 방범·방화 관리자를 임명해야 하며 교구본사는 년 1회 이상 방범·방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비용=총무원은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방범 시스템은 시범 운용과 모의 테스트 등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해 규모가 작은 사찰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라'에 속하는 모든 사찰이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잠금장치, 열 감지기, 자석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데는 1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무원은 문화재청 등과 협의, 경보 장치 설치에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완주 송광사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보안 장치를 설치한 예가 있다.

◆문제점=8개 시범 사찰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실시됐던 모의 방범 훈련 결과는 일단 만족스러웠다. 경비업체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수사는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새벽 예불을 위해 방범·방화 감지시설을 해제하는 새벽 2시경부터 새벽 예불이 끝나는 새벽 4시 사이가 취약 시간으로 나타났다. 모의 훈련 당시 실제로 한 사찰에서는 경비원이 방범시설을 해제하고 다른 전각의 문을 열기 위해 이동한 사이 모의 침투 요원이 성보 한 점을 훔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인증업체서 시설설치
월 25% 용역료 할인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도서출판 참수행

고도의 참수행인의 체험담

참수행과 참수행 건강법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참수행



이책은 고도의 참수행인이 실제 체험한 초자연적인 삶과 참수행 방법의 모든것을 상세하고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현세와 공존하며 사는 귀신의 세계및 죽음 후의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사후세계(靈 의世界)와 이 마음에 지배를 받는 육체의 고통인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마음으로 말끔히 해소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고도의 참수행인만이 뵌이 보고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노력 여하에따라 육체를 초월한 초월적 (마음) 참행복을 영구이 얻으며 영원하고 영구한 .대자유를 얻는 목적도 수록하였습니다.

각권 10,000원

도서출판 참수행
TEL : 02-2244-6002 HP : 011-707-6002
http://chamsuhaeng.pe.kr
http://참수행
E-mail : champyc@chamsuhaeng.pe.kr

- 목초 수액 시트 -

화제의 발 건강법



◉ 목초수액이란? 나무가 지하로 부터 물을 빨아 올리는 힘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뿌리로 부터 수액을 뽑아 올려 앞으로 기는 사이에 깨끗하게 정화된다. 이 원리에 의하여 발바닥에 붙여 여분의 수액과 노폐물을 빼주는 방법이다.

◉ 배독요법으로 자연 치유력을 높힌다
나무의 천연성분을 분말로 만들어 발바닥과 환부에 붙여 수독을 배출 할때를 깨끗히 정화하여 몸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인체의 약 70%가 수분인데 여기 오염된 수분을 제거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 잠자는 동안에 배출한다
전신이 편안한 상태인 수련중 발 바닥으로부터 뇌로의 자극전달이 제일 좋으며 낮에 활동하면서 아래로 쌓인 노폐물을 잠자는 사이에 빼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용천에 시트를 붙이면 수분의 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

◉ 21C 새로운 건강법 수액시트
우리 몸안에 노폐물이 쌓이면 건강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몸에 대사기능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인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면 우리몸의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다.

※ 자매품 : 담배사냥꾼, 수맥사냥꾼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운동선수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 굽어진 근육, 어깨, 무릎, 허리 등이 상쾌해 집니다.

❖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 02]455-6944, 02]453-5851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낳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자궁 불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영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간 헛개나무 열매로 간염치료!

(MBC 9시 뉴스데스크 2001년 2월 26일 보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

- 헛개나무열매 임증 발표



2001.1.30 MBC 9시 뉴스
간질환(지방간, 간염)에 탁월한 효능 입증
2001.1.30 SBS 8시 뉴스
간질환(지방간, 간염)에 탁월한 효능 입증
2001.1.30 SBS 신물질 개발

숙취와 위장에 좋은 헛개나무열매(지구자) 해장국

나천수 박사(산림청 임업연구원 박사)
간기능을 회복시켜서 간염이나 지방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과정
원재료 및 성분 배합 비율 : 헛개나무열매(지구자) 95%, 줄기 2%
잎 2%, 칡 1% - 국내산 100%
헛개나무 열매(지구자)를 무색소 무방부제 무첨가물을 특수가공 추출기로 고유의 색상과 맛을 유지하면서 성분 파괴가 되지 않도록 온도 약 100~110가 넘지 않게 6시간 이상 달여서 100mg씩 포장, 1달분 60포로 주문 판매 및 통신판매를 한다.



헛개나무열매(지구자)

자료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문의전화 041-852-0468
041-852-0469
민속식품(민속농원)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⑥비유품 ●화택유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성문승(聲聞乘) · 연각승(緣覺乘) · 보살승(菩薩乘)의 3승(乘)을 분별해서 설했다. 이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한 것이나 이 3승 모두가 부처가 되기 위한 수단(方便)일 뿐, 사실은 모두가 성불을 위한 하나의 가르침 즉 1불승(一佛乘)이다"고 천명하시며, 〈법화경〉의 유명한 일곱 가지의 비유(七喩) 가운데 하나인 '화택의 비유(火宅喩)'를 설하신다. 원래 〈법화경〉에는 열 여섯 가지의 비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명한 것이 일곱 가지다. 그러면 '화택유' 즉 '삼계화택유(三界火宅喩)'를 듣기로 하자.

"어느 마을에 자식 많고 나이 많은 억만장자가 있었다. 그는 넓고 큰 저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이미 낡아서 폐가처럼 황폐해 있었다. 새들이 집을 짓고 있었으며 뱀들도 서식하고 있었다. 큰 저택이지만 무슨 까닭인지 출입구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불이 나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장자는 재빨리 문밖으로 뛰쳐나왔으나 그가 사랑하는 수많은 아이들은 불이 난 것도 모르고 집 안에서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몸에 닥쳐오는 위험을 알지 못하므로 피할 마음도 없었다. 아버지인 장자의 마음은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위험하니 빨리 밖으로 나오너라' 고 밖에서 크게 소리쳤으나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이 났다는 것이 무엇이며 불이 집을 태운다고 하는데 그 집이란 무엇인지, 또 불에 타서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그저 집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문밖의 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장자인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으므로 아이들이 평소에 원했던 것을 이것저것 생각한 끝에 '너희들이 항상 원하던 양(羊)이 끄는 수레, 사슴(鹿)이 끄는 수레, 소(牛)가 끄는 수레가 문밖에 있으니 빨리 밖으로 나와라' 고 소리쳤다. 장자는 비록 늙기는 했지만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써서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뛰쳐나오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므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와 소가 끄는 수레는 모두 아이들이 꿈에서나 그리던 것들이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자 손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내던지고 앞을 다투어, 오직 하나뿐인 좁은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버지가 말한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는 그림자도 없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무사한 모습을 보고 안도의 숨을 쉬었으나 아이들은 이에 승복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다' 며 막무가내로 아버지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약속한 양 · 사슴 · 소가 끄는 수레보다 더 크고 훌륭하며 날쌘, 흰 소(白牛)가 끄는 수레를 아이들에게 전부 나눠 주었으므로 아이들은 모두 만족했다."

이상이 장자화택(長者火宅) 또는 삼거화택(三車火宅), 삼계화택(三界火宅)의 비유다. 불난 집(火宅)은 3계(三界) 즉 사바세계를, 아이들은 중생을, 장자는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다. 양 · 사슴 · 소의 세 가지 수레는 각각 성문승 · 연각승 · 보살승인 3승을 비유한 것이며, 대백우거(大白牛車)는 1불승(一佛乘)에 비유한 것이다. 모든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1불승을 3승으로 나누어 설한다고 하시며 앞의 '방편품'에서 설한 3승방편(三乘方便) 1승진실(一乘眞實)의 가르침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무설정사 조실

사바세계는 불타는 집

3승 가르침으로 중생 불길서 구해내



그림 · 문병성

하나가 전체 전체가 하나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수주 ⑧

이완과 평형

단단한 정육면체의 강철 상자의 한쪽 면에 작은 구멍을 뚫고 일정한 크기의 탄환을 일정한 속도로 매초마다 하나씩 상자 안으로 쏘아 넣는다고 하자. 그리고 이때 탄환이 강철 벽에 부딪칠 때의 입사각과 튀어나오는 반사각이 같고, 또 탄환의 운동 방향은 바뀌지만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지구의 중력도 무시한다. 그래서 강철 상자 속에 들어간 탄환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상자 속에서 계속 돌아다닌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무중력 상태에서 일어나는 완전 탄성 충돌 실험에서 우리는 탄환에 관한 초기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1시간 후에 그 탄환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10초 후에 두번째 탄환을 쏘아 넣으면 이것이 강철 상자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먼저 발사된 탄환과 충돌을 일으키며 두 탄환의 진로가 엉뚱하게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첫번째 탄환의 위치와 운동 방향의 추정이 점차 불확실해진다. 2시간 후에 탄환을 100개 쏘아 넣고 난 후 첫번째 탄환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알기는 전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100개의 탄환들 사이에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면서 각 탄환의 초기 정보가 완전히 상실돼 어느 탄환이 몇번째에 발사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는 완전한 무질서 상태이며 이때 상자 속의 탄환들은 이완 상태에 있다고 한다.

무질서 한 별 섭동으로 깨진 평형상태 회복

인간사회 선악 애증도 '나' 버리면 조화 이뤄

무질서란 각 탄환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정보가 사라져 초기의 질서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보면 이 무질서는 곧 조화로움이다. 예를 들어 예쁜 조각품을 정원에 둔다고 하자. 비바람을 맞으며 오랜 세월을 지나면 점차 그 모양과 색깔이 변해 가다가 언젠가는 부서져 형체조차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 세계가 인간의 유위적 견지에서 보면 무질서해 보이나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안정된 질서를 가진 세계이다. 우리는 어떤 물체나 인위적 현상이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진행할 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엔트로피의 증가는 자연적 질서의 증가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상의적 수수 관계를 통해 개체들의 구별이 불가능해지면서 모두가 평등한 보편적 상태로 이완되면 개체들이 지닌 초기의 고유 특성들이 모두 사라지므로 개별적 고유 특성을 지닌 존재자는 이상 더 존재하지 않게 된다(非有). 그렇다고 해서 개체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非無). 이처럼 비유비무(非有非無)인 상태가 고유 특성을 지닌 대립적 관계를 떠난 이완상태이며 이를 통계적 평형상태라고도 한다. 여러 개체들이 모인 집단이 이완상태에 이르면 개체들이 가진 초기의 고유 특성이 모두 사라지면서 집단 전체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때 개체의 특성은 집단의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

한 성단이 안정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작은 성단이 가까이 지나면서 섭동이 미칠 경우, 성단은 역학적 평형이 깨지면서 성단 내 별들은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별들이 서로간의 조우, 섭동을 통해 점차 안정된 질서를 찾아가면서 성단은 새로운 평형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성단의 평형상태가 깨어진 후 다시 새로운 평형상태에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완 시간이라 하며, 이 시간이 길수록 성단은 더욱 안정된 집단이다.

인간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람에 따라 화가 나면 이것이 몇 일 내지 몇 주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지나면 화가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다. 화가 쉽게 풀리는 사람은 이완 시간이 짧은 사람으로 화를 잘 낼 수 있는 불안정한 성품을 지녔고, 화가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이완 시간이 긴 사람으로 어지간해서는 화를 잘 안 내는 안정된 성품의 소유자다. 그러면 우리 나라 전체의 이완시간은 얼마나 될까? 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형 사고가 생길 땐 야단법석을 떨다가도 며칠 지나면 모두 잊어버리고 소용해진다. 결국 우리 사회의 이완 시간은 뜨겁게 달구어진 빈 남비가 금방 식어버리는 정도의 짧은 시간이다.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차별하고 분별하기 쉽지만, 긴 세월 동안 섭동을 주고받다 보면 대립이 사라지고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이치에서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되는 불법을 깨닫게된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변견(邊見)을 벗어나 선과 악, 사랑과 미움 같은 대립되는 양쪽을 모두 여의면서 올바른 이치를 찾아간다. 이처럼 이완의 세계는 자연이나 인간 사회에서 가장 조화롭게 살아가는 불법의 세계이다. 나를 잊지 않고 어찌 남을 잊을 수 있으며, 남을 알지 못하고 어찌 나를 알 수 있겠는가?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티베트 종교자유 보장" 中 정부 공언은 거짓말

지구촌 불교 / AP기자 '쿰번사원' 실태보도

중국 정부의 말처럼, 중국 내 티베트 스님들은 자유롭게 수행하고 있을까? 최근 중국 칭하이(淸海) 지역에 있는 쿰번(Kumbun) 사원을 탐방한 에이피(AP) 통신의 크리스토퍼 보딘(C. Bodeen) 기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여전히 티베트 스님들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서구 기자단의 방문은, 1959년 달리아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스님들의 대규모 망명 이후 중국 정부가 주도해 온 '티베트 불교계 개혁'의 성과를 서방 언론에 알려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40여 년 간 중국 정부는 불교계 개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불교사원과 교육체계를 정비했다.

C. 보딘 기자는 쿰번 사원 방문 관련 보도에서 "중국 정부는, 기자단이 쿰번 사원에서 스님을 취재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기자단을 설득하지는 못했다"며 기자단의 입장을 전한 다음, "쿰번 사원에서 중국 공안과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자단은 중국 정부가 여전히 티베트 스님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중국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쿰번 사원의 스님들.

공안 · 관리 사원상주하며 스님 감시
종교학교 세워 전통말살 세뇌 교육

이는 서구 기자단이 쿰번 사원을 방문한 날에도 10여 명의 무장 공안들이 경찰봉을 흔들며 경내를 서성거렸던 점과, 스님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중국 정부의 관리가 사원 내 상주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티베트 스님들은 "달라이 라마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당황하면서, "이제 사원을 둘러보자"며 인터뷰를 피하려고 했다고 C. 보딘 기자는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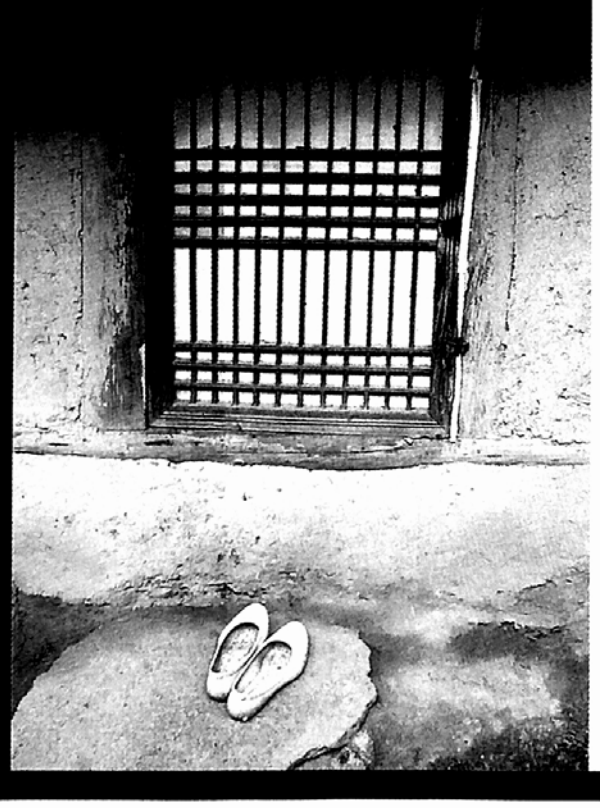
그러나 서구 기자단과 동행한 중국 정부의 관리가 자리를 잠시 비우자, 티베트 스님들은 익명을 요구하며 "쿰번 사원의 외형은 그동안의 증 · 개축으로 많이 변했지만, 중국 정부의 탄압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4백40년 전에 세워진 쿰번 사원은 13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로 밝혀진 텐진 갸쵸(Tenzin Gyatso, 14대 달라이 라마)가 공부했던 곳이자, 중국과 티베트 망명정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칭하이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지난 6년간 티베트 망명정부는 티베트와 중국의 서편 국경 지역인 칭하이에 대한 티베트의 자치권을 인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반면 중국은 티베트 망명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칭하이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티베트 스님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동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쿰번 사원 경내에 '종교 학교(Religious school)'라는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고, 칭하이 지역의 티베트 스님들을 정기적으로 소집해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의 전통을 말살하는 내용을 수록한 교재를 가지고 세뇌를 해 왔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외딴 섬 스님이 일구는 따뜻한 삶의 뜰



스님은 얼핏 수줍고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다.
그래서 큰 스님들의 훌륭한 인품과 고된 수행 모습에서 느끼는 감동과는 또 다른
순수한 감동을 읽는 이에게 선사한다. —조선일보

스님은 무척이나 솔직하셔서, 가끔씩 빙그레 웃음 짓게 만듭니다.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 이야기의 경우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스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었겠어요?
읽다 보면 이분이 스님이란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pssmm(YES24 독자서평)

내가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글 속에 묻어나 있는 진솔함 때문이었다.
갖가지 소음과 사람에게 치일 대로 치인 내게 그 책은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빛망울(모닝365 독자서평)

| 푸른 섬 비진도의 작은 스님 이야기 |

꽃담

해만 스님 지음 | 국판 변형 | 237쪽 | 값 7,500원

각박한 세상살이,
허루허루 등 떼밀려 가듯 숨 가쁩니다.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법을 알려 줍니다.

벽 틈으로 바람 들어오듯
마음 틈으로 욕심 들어온다

이욱태 외 지음 | 신국판 | 269쪽 | 값 7,000원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에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거울과도 같이 마음을 비춰 주는 책.

서두를 때 서두르면
느릴 때는 얼마든지 느려도 좋다

유동호 외 지음 | 신국판 | 251쪽 | 값 6,000원

느림과 여유로 돌아보는 나와 세상.
나를 바로 찾고, 세상을 바로 보고,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한 몇 가지 대담들.

전화(02)588-0833 팩스(02)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www.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차 관련 단체들 '분주'

"禪茶의 멋과 맛 세계에 알린다"

'헬로우(Hello, 안녕하세요), 끽다래(喫茶來, 차 드시러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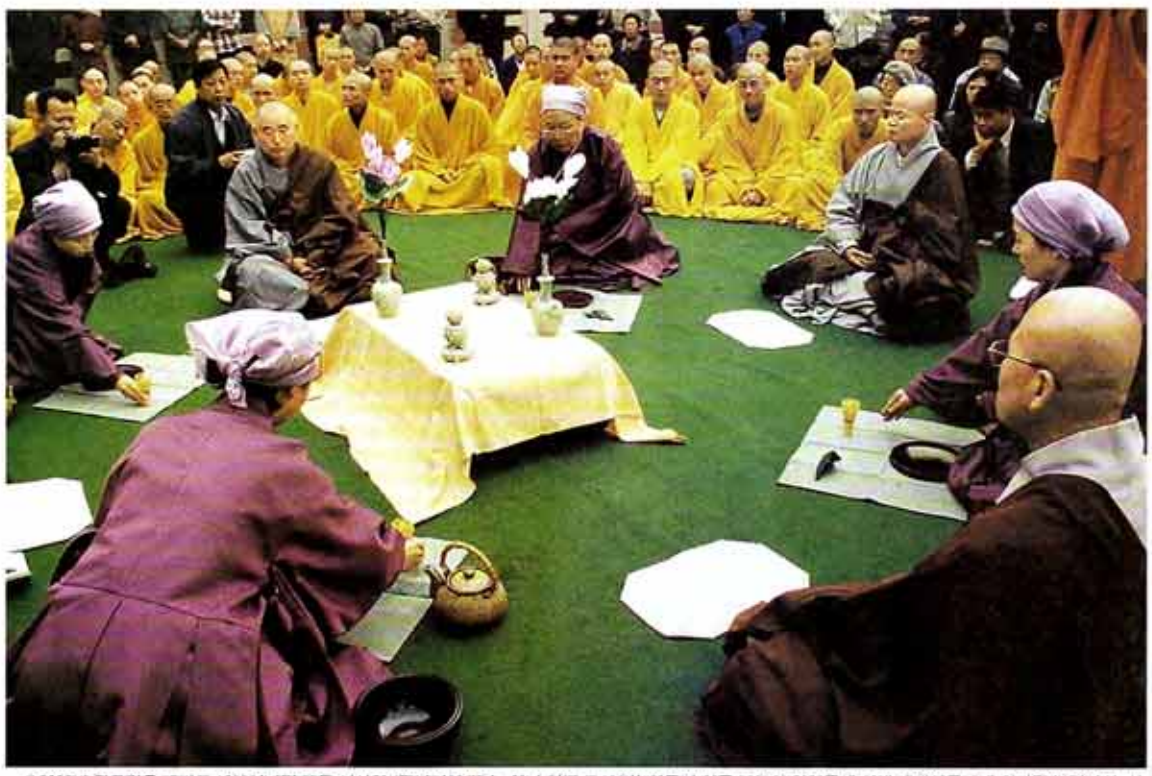
내년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열리는 2002년 월드컵을 맞아 불교의 선차(禪茶)를 널리 알리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이 추진중인 '템플 스테이(Temple Stay, 사찰 숙박)' 즉,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사찰을 숙소로 제공하고 불교 문화를 체험토록 하는 이 사업의 주 내용을 선차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통문화포럼(공동집행위원장 성광 · 김의정)과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템플스테이 추진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템플 스테이 사업에 자원봉사자로서 적극 참여해 한국선과 선차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전통문화포럼 집행위원장 성광스님(화계사 주지)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월드컵 기간중 우리가 가장 자랑할만한 문화는 임제선의 정통 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선이다"며 "월드컵을 계기로 다선일미(茶禪一味)의 한국불교 선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템플 스테이'란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정무형 한림대 교수도 템플 스테이 제도가 정착된 일본의 차와 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설명하며, 다도체험 등 고급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인터넷 홍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인철 전통문화포럼 집행위원장 대행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선차를 알리는 다도관 설치, 인터넷 홍보 사이트 개설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1200여년전 조주 선사의 '끽다거(喫茶去, 차나 한잔 드시오)' 화두가 한국 불교의 차인들에 의해 세계인들에게 회자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0월19일 중국 하북성 백림선사에서 조주선다비 제막식을 가진 후, 명원말정다선법(茗園八正茶禪法)을 시연하는 명원문화재단 회원들.

"템플스테이 통해 한국 다도 체험"

이처럼 명원문화재단과 화계사가 전통문화포럼을 구성, 한국 선차의 세계화를 선언한 것을 비롯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선차를 알리기 위해 움직이는 단체들이 늘고 있다.

반야로 차도문화원(원장 채원화)은 지난 10월 2일 강화 선원사에서 '2002년 월드컵 성공 기원 효당스님 한일 문도 추모 차례'를 봉행한 것을 계기로, 차도와 국악이 어우러진 선차 시연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효당본가의 차도를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대전 보현문화회관(관장 오상현)도 11월 23일 보현문화회관 대법당에서 일본 정토종 본원사파 정국사(주지 타찌바나 카쿠오)와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다도 문화 교류전을 개최했다. 이번 문화 교류는 양국 불교 및 다도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선차문화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템플 스테이 사업을 주관할 예정인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외국인 우리문화 체험프로그램'이란 보고서를 통해 다도 실수를 전통예불 참석, 발우공양, 참선, 전통등 제작, 선무도 및 범패 등과 함께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의 하나로 채택했다.

외국인들에게 다도 시연을 통한 시음의 기회를 마련하고, 쌍계사 등 차밭이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차의 재배와 가공, 완성까지의 과정을 체험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선차에 대한 강좌와 자료설명을 통해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사상을 가르쳐 '보여주기' 식의 상품화된 일본 다도와는 달리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한국 선차의 멋과 맛을 알릴 계획이다.

우리의 선차문화는 한국 정신문화의 총화로서 세계인들의 이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9월 서울시의 '2000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을 방문한 미주, 유럽의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꼽힌 바 있다.

(사)차문화연구원 이사장인 여연스님(일지암 암주)은 "손수 샘물을 길어 차를 달여 마신 후 지니는 마음가짐과 추구하는 바가 참선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사상이기에, 선차를 따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불, 발우공양, 참선 등과 함께 자연스럽게 선차를 체험토록 한다면 한국불교의 선을 이해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30일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장 정몽준씨의 부인인 김영명씨를 비롯, 유럽 미국 등의 집행위원 부인 30여명이 통도사를 방문, 통도사성보박물관 등을 관람했다. 이어 이들 일행은 포교국 산하 선다회의 다도시연 등을 통해 한국의 멋과 맛을 체험했다.



전통문화포럼 집행위원장 김의정씨 "선차는 한국 문화상품"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된 전통문화포럼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의정(60 · 사진)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한국불교의 선맥과 초의선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차와 선은 하나라는 선다일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전통문화포럼을 구성하게 되었다"며 "우리 민족의 얼과 드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정수인 선차문화를 세계만방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한국 차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국 선차문화의 우수성과 특색을 밝혀 본래의 모습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학문적 정립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故 명원 김미회 선생이 30년전 설립한 명원다회를 이어받아 명원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김 이사장은 지난 10월 19일 조주선사의 '끽다거(喫茶去)' 화두로 유명한 백림선사에서 조주선차시비 건립에 나서는 등 한국 선차의 국제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삼청각 전통문화관내에 명원차문화원도 개원한 김 이사장은 이미 해오고 있는 선차강연과 함께 참선수행과 발우공양을 교육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시민선방도 개설할 계획이다.



◇차 한잔 달여마시는 일은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하며, 자연과 인간의 진리를 저절로 터득하게 하는 참선의 한 방편이다.

쌍계사 다원…대둔사 동다실…

산사의 찻집들 그윽한 茶香

산사의 찻집은 한국 불교의 참맛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곳이다.

하동 쌍계사 쌍계다원, 해남 대둔사 동다실, 강진 백련사 선다원, 장성 백양사 다연원, 승주 선암사 선각당, 김천 직지사 산중다원, 양산 통도사 선다원, 남양주 봉영사 불연다원, 순천 송광사 다송원, 남양주 수종사 삼정헌, 인제 백담사 농암실 등 10여 곳이 넘는 사찰에는 시민들을 위한 찻집이 운영되고 있다.

차의 시배지로 널리 알려진 하동 쌍계사는 스님들이 손수 만든 야생녹차로 유명하다. 이른봄에 야생 차나무에서 잎을 채취해 사찰 특유의 제다방법으로 만든 녹차는 유난히 향기롭다.

다성(茶聖)으로 일컬어지는 초의선사의 온기가 느껴지는 대둔사 동다실은 유난히 많은 다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동다실에서 먼저 따뜻한 반야차로 심신을 정화시켜 보는 것도 겨울 산사의 정취를 만끽하는 좋은 방법이다. 20여분 산길을 올라 일지암에 이르면 한국 선차의 중흥조인 초의선사의 법향도 느낄 수 있다.

백양사 다연원은 대나무가 은근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야생차밭에서 아침이슬이 채 마르기 전에 채취한 차잎으로 만든 죽로차와 백양사 솔잎차로 유명하다. 약효뿐만 아니라 향이 남달리 탁월하기 때문이다. 강진의 만덕산 백련사 선다원은 멀리 남해의 물빛이 아스라히 안개처럼 보이고 동백나무 숲이 굽어 보이는 풍경과 그윽한 다향이 자랑이다. 직지사 산중다원은 황악산으로 오르는 길목에 위치해 개울물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오고 창밖으로는 앞산의 나목들이 그림처럼 보인다. 수종사 삼정헌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서울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보정스님의 선차사상을 기리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문을 연 송광사 다송원은 1백여평의 규모로 송광사 입구에 위치, 일반인에게 다도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재경 기자 gkm@buddhapa.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위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안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청강 대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재월선사 '心月覺'

선사는 어릴 적부터 골상(骨相)이 빼어나고 성품이 덕스러웠다. 또한 또래들과 어울릴 때는 불사(佛事)놀이를 즐겨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를 '이동(異童)'이라 불렀다. 10세에 브모를 여의고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던 선사는 출가할 생각을 품게 된다. 이러한 뜻을 알아챈 할아버지는 "네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의지할 데가 없는데, 너마저 나를 버릴 생각을 하느냐"고 출가를 만류했다. 그러나 선사는 15세에 천관사로 들어가 옥주선사를 은사로 삭발하였다.

구족계를 받은 선사는 도(道)를 배우기 위해 이름난 선비를 찾아다니며 시서(詩書)를 배워 사물(事物)의 이치를 깨닫는다. 하지만 선사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 깨달음은 세간의 도(道)일뿐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하는 일이 아님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결국 부처님 품 방장(方丈 : 선림)의 구름에 차를 달이네.

선사의 깨침은 서리 앞의 솔(松)과 같고, 빈 가슴은 물 속의 달과 같다. 이러한 선사는 평생 베옷과 나물밥으로 수행에만 전념할 뿐 세상의 일에는 전혀 힘쓰지 않았다. 심지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선조의 부름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그러나 스승의 부름을 받고서는 유나(維那)의 직책을 맡아 납승(衲僧) 몇 사람과 함께 출진하여 적을 물리쳤다.

이에 선조는 선사를 치하하고 선교양판(禪敎兩判)의 직책을 내렸다. 하지만 선사는 "만리의 긴 강물도 나쁜 이름을 씻어 가지 못한다"며 사양하고 묘향산으로 들어가 은거하며 살았다. 그럴수록 선사의 명성(名聲)은 더욱 더 높아졌다. 사방의 학승, 수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큰 회상(會上)을 이룰 정도였다. 하지만 선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풍악산, 오대산, 치악산, 보개산 등으로 운수행각을 계속했다. 결국 76세 되던 해 금강산 선동에 암자를 짓고 7년 동안 주석하다 제월당(霽月堂)이라 집을 짓고 납자들을 제접하였다.

평생 베옷 · 나물밥 먹으며 수행
묵언 용맹정진 3년만에 깨달아

안으로 다시 돌아온 선사는 원철 선사의 지도를 받은 다음 지리산에 들어가 현운 중덕 선사에게 경학(經學)을 두루 섭렵해 삼장(三藏)의 바다를 노닐었다.

30에 이르러서는 묘향산으로 들어가 청허 선사에게 수참하였다. 청허선사는 금추(金椎 : 부처님 법)로 서래의(西來意: 달마가 서방에서 중국으로 온 뜻)를 밝히자, 문자에 얽매여 있던 선사는 정해(正解)가 한꺼번에 풀렸다.

선사는 금강산 내원동에 들어가 묵언으로 용맹정진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늦은 봄, 비가 온 뒤 온 누리를 밝게 비추는 보름달을 보고 크게 깨달았다.

심월각(心月覺 : 마음의 달)

飄如雲不繫(표여운불계)
皓大明無疵(호대명무흔)
採藥蓬萊島(채약봉래도)
烹茗方丈雲(팽명방장운)

구름처럼 나부껴 매이지 않고,
달처럼 밝아 그 흔적 없다.
봉래도(蓬萊島)에서 약을 캐고,
방장(方丈)의 구름에 차를 달이네.

선사의 깨침은 서리 앞의 솔(松)과 같고, 빈 가슴은 물 속의 달과 같다. 이러한 선사는 평생 베옷과 나물밥으로 수행에만 전념할 뿐 세상의 일에는 전혀 힘쓰지 않았다. 심지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선조의 부름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그러나 스승의 부름을 받고서는 유나(維那)의 직책을 맡아 납승(衲僧) 몇 사람과 함께 출진하여 적을 물리쳤다.

이에 선조는 선사를 치하하고 선교양판(禪敎兩判)의 직책을 내렸다. 하지만 선사는 "만리의 긴 강물도 나쁜 이름을 씻어 가지 못한다"며 사양하고 묘향산으로 들어가 은거하며 살았다. 그럴수록 선사의 명성(名聲)은 더욱 더 높아졌다. 사방의 학승, 수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큰 회상(會上)을 이룰 정도였다. 하지만 선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풍악산, 오대산, 치악산, 보개산 등으로 운수행각을 계속했다. 결국 76세 되던 해 금강산 선동에 암자를 짓고 7년 동안 주석하다 제월당(霽月堂)이라 집을 짓고 납자들을 제접하였다.

선사의 설법은 마치 구름과 같고 비와 같아서 그 언구(言句)가 천하에 가득하였다. 교해(敎海)에 앉았으면 이는 물결이 호호(浩浩)하였고, 선풍(禪風)은 심심(深深)하였다. 그리하여 선교(禪敎)의 학도(學徒)들이 허(虛)로 왔다가 실(實)로 간 선자들이 수를 셀 수가 없어 법의 바다가 이루워졌다.

선사는 인조 10년(1632) "진흙소가 바다에 들어 그저 멀리 아득하나, 삼생의 한 큰 인연을 환히 깨쳤거니, 무슨 일로 번뇌로운 생각이 다시 일어나, 재각(齋閣)에 달려와서 묵은 시를 청하는가" 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입적했다. 세수 91세, 법랍76세.

선사는 중종 37년(1542)에 장흥에서 태어났으며 법명은 경헌(敬軒), 법자는 순명(順命), 법호는 제월(霽月), 속성은 조씨(曺氏)이다. 아버지는 예창(芮昌)이며 어머니는 이씨(李氏)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숭산스님은 30년 이상 전 세계를 돌며 인종과 언어, 문화와 종교를 초월한 폭넓은 전법활동을 해왔다.

숭산스님은? 숭산 스님은 제자들로부터, 존경하는 선의 선생님이라는 뜻인 '선사(禪師)님'으로 불린다.

30년 이상 전 세계를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온 숭산 스님. 그동안 세계 30개국에 세워진 선원만 120여 군데나 되고, 교수 박사 등 엘리트층의 일반신도를 비롯해 신부 수녀 목사 등에 이르기까지 인종과 언어, 문화와 종교를 초월한 폭넓은 포교를 해왔다.

숭산 스님은 5년 전 부터 전 세계의 불교신자들이 함께 모여 수행할 수 있는 국제선원을 계룡산에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계룡산 국제선원에서 수행하여, 법사나 선사가 된 후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 선원을 세우고 한국식 불교를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1927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숭산 스님은 47년 마곡사에서 출가해, 49년 수덕사에서 고봉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58년 화계사 주지, 60년 불교신문사 초대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66년 일본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 홍법원과 국제선원을 개설하며 적극적인 해외 포교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며, 화계사 조실이다.

"우리는 오직 모를 뿐"

가까이서 뵌 큰스님

숭 산 스 님 (화계사 조실)

"언제나 이 순간 밖에 없다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라"

11월 29일 동안거 결제일.

계룡산 국사봉 자락에 위치한 국제선원 무상사에서도 3개월 동안 용맹정진을 다짐하는 결제 법회가 열렸다. 이번 결제 법회에는 특별히 화계사 조실인 숭산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해주시기로 한 까닭에 무상사는 아침부터 큰 스님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오전 10시경 숭산 스님과 화계사 대중들이 무상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대중들이 "헬로우, 하우아 유?(안녕, 잘 지냈어요?)"하며 서로 정겹게 악수하고, 포옹하며 가벼운 볼 키스까지 나누는 풍경이 자연스럽고 다정해 보였다.

숭산 스님도 대중들을 향해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헬로 에브리바디(여러분 안녕하세요), 결제일입니다. 결제일이라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우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법회가 시작됐다. 무상사 선원동 2층 법당 앞쪽에 대중들을 마주보며 숭산 스님과 무상사 조실 대봉스님, 주지 오진 스님, 그리고 통역을 맡은 도관스님이 나란히 앉았다. 주지 스님과 조실 스님의 짧은 인사와 법문이 끝나고, 숭산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자들과 '공안인터뷰'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와서 결제를 하게 되고, 이곳 무상사가 수행하기에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무상사는 백두산에서부터 태백산을 거쳐 계룡산으로 이어진 국사봉 정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계룡산은 그 드높고 신비한 힘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동학사, 갑사, 신원사와 같은 큰 사찰들이 계룡산에 자리를 잡았으며, 한국 근대 불교의 정신적 스승인 경허 · 만공 스님과 같은 위대한 선사들이 이곳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2년 후 무상사가 완공되면 이곳은 옛 선인들이 예언했던 대로 한국을 돕고, 세계를 도울 훌륭한 스승들이 여럿 나올 것입니다. 예로부터 큰 사람이 날려면 그 터를 보라고 했습니다. 명당이 아니고서는 훌륭한 도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장소와 시간, 노력 모든 것이 들어맞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세계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대중 모두가 저마다 큰 원력을 갖고, 무상사에서 참선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 제도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법문은 짧고 간단하면서도 힘찼다. 숭산 스님은 평소에도 긴 법문을 하지 않는다. 제자들의 질문에 간단한 대답으로 응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이는 순간 순간의 연결을 통해 제자와 스승의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숭산 스님은 줄곧 이 방법을 고수해 왔다.

이날 법회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7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3개월간 무상사 선원에서 함께 수행할 것을 서원했다. 보통의 한국 선원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다. 승속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본성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숭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승속을 초월해 모든 대중이 똑같이 수행한다. 최근 재가불자들이 안거수행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스님은 스님들만의 공간에서, 재가불자들은 또 다른 공간에서 각각 따로 수행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파격적이다.

숭산 스님의 안거 수행지도 방법 또한 전통적인 한국의 수행지도 방법과 다르다. 철저한 묵언수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법회를 연다. 이때 참석자들은 수행에 대한 모든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숭산 스님과 제자사이에 오가는 질문과 대답을 '공안인터뷰'라고 하는데, 숭산 스님은 이번 동안거 기간 중에도 화계사와 무상사를 오가며 공안인터뷰를 통해 제자들의 수행을 점검, 지도할 계획이다.

지난 30년간 해외 포교를 통해 숭산 스님이 배출한 서양인 제자는 5만명이 넘는다. 그 제자들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서양철학에 심취하고, 기독교적 전통에서 살아왔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과 목표를 찾지 못했던 이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접하고서야 비로소 그 의문들을 풀고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읽었던 많은 책의 지식과 논리적 근거들을 버리고, 원래 그대로의 본성인 마

2002 보드가야
깔라차크라 참가단 모집

석가모니 부처님 성불의 땅에서 달라이 라마와 만납시다.



⊙ 일시 : 2002년 1월 17일(목)~2월1일(금) / 15박 16일
⊙ 항공편 : 아시아나 델리 직항
⊙ 내용 : 성지순례 (나란다 대학 / 라지기르 / 보드가야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깔라차크라 관정 및 법문 (9일간 진행) / 인도 관광 (아그라 / 델리)
⊙ 비용 : 1인당 230만원 내외 (20명 기준)
⊙ 특기사항 : 한국인 가이드 2명, 한국식 제공 (요리사 대동)
⊙ 신청마감 : 2002년 1월 3일(목)

▣ 예약 및 문의 :
정신세계원 02-747-7033 (담당 황길재) /
인도로 가는 길 02-723-0333 (담당 염주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깔라차크라 의식은 티벳 불교의 정수로서 공과 보리심,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깊은 사색과 명상을 하면서 만달라를 그리고 우주적인 에너지를 형상화하는 의식입니다.

정신세계원 서울 종로구 원서동 171 원서빌딩
전화 02-747-7033 / 팩스 02-747-7034 / 홈페이지 http://mindvision.org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41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고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먼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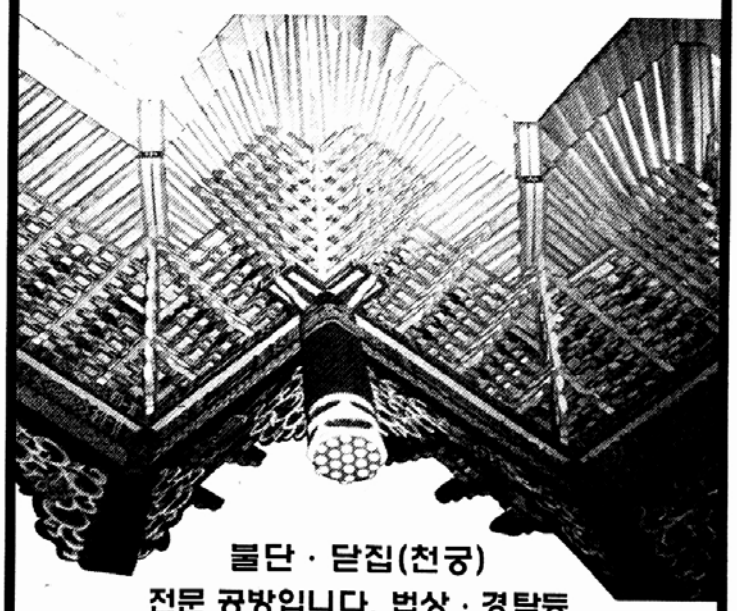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1년 12월 15일까지
◆ 개강일시 : 2001년 12월 17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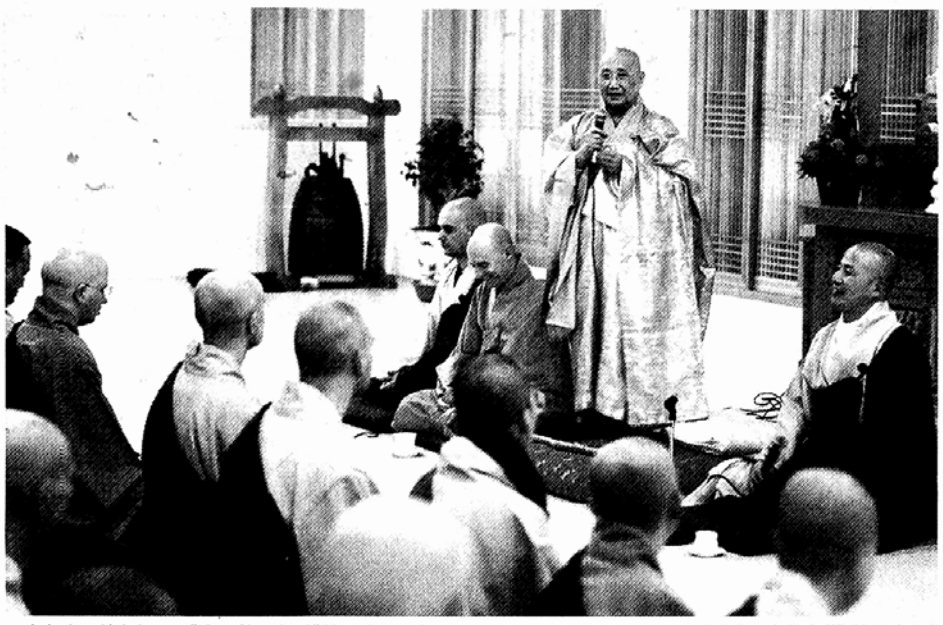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누 리 공 방



불단 · 닫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등
박연호 합장
TEL : 031)543-9130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



◇숭산스님(서있는 스님)은 11월29일 봉행한 무상사 결제 법회에서, 큰 원력을 세우고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아 진리를 향해 나갈것을 당부했다.

서양인들 설교식 불교 원치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보고파 해

음자리로 향하는 수행의 길에 올랐다. 이미 자전적 에세이집 〈만행〉으로 유명해 진 현각스님(미국인)을 비롯해 무상사 조실 대봉스님(미국인), 무상사 주지 오진스님(폴란드인) 등이 모두 그러한 인연들로 이국땅인 한국에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다.

이 스님들은 모두 숭산 스님의 생활 자체가 그대로 가르침이며 귀감이 된다고 말한다. 숭산 스님은 "언제나 이 순간 밖에 없다. 아무 것도 집착하지 말라. 우리는 오직 모를 뿐이다! 공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과 같이 있는 것이다. 우리 생활과 떨어진,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의 영향을 그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래 있는 그대로에서 깨달음을 구하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제자들과 신도들은 순간순간 올바른 상황, 관계, 행동으로 자신의 인생을 실천하고 있는 숭산 스님을 수행자의 사표로 삼아, 스승의 삶을 바로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본래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하나씩 터득해 나간다.

나와 남 경계 없는 것

오래 전 숭산 스님이 제자들과 멕시코에 갔을 때의 일이다. 어느 곳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숭산 스님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러 대봉 스님이 숙소를 찾아갔다. 그때 스님은 잠에서 깨어나 속옷 차림으로 대봉 스님을 반갑게 맞았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다른 스님이 숭산 스님을 찾아왔다. 숭산 스님은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그 스님을 반갑게 맞았고,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나서 잠시 후에 한국인 제자 스님이 숭산 스님을 찾아왔다. 숭산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고리와 마고자를 차려입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저마다 어떻게 다른지 헤아리는 스님은, 찾아오는 제자들에 따라 옷 입는 그 한 가지에도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신 것이다. 그때 대봉 스님은 숭산 스님의 작은 행동에서 큰 가르침을 얻었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이번 동안거 결제 법회 날 아침 대봉 스님은 몇몇 스님들과 유성의 여관으로 숭산 스님을 모시러 갔다. 한국인 시자 스님과 외국인 스님들이 큰 탁자에 둘러앉았는데, 숭산 스님이 언제 준비해 오셨는지 사탕, 과자, 빵 등을 한아름 내놓고 먹으라고 권했다. 계룡산 산골에서 군것질거리가 궁했을 외국인 제자들을 위해 서울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직접 휴게소에서 사 오신 것이다. 외국인 제자들은 그 과자들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자 한국인 시자스님이 과자, 빵을 다시 숭산 스님 앞에 가져다 놓았다. 숭산 스님은 다시 그 과자들을 앞으로 내어 놓았고, 몇 번의 오고감 속에서 모두의 눈빛이 하나로 모아졌다.

대봉 스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 생활방식과 문화도 다르다. 어떻게 그 사람과 사람사이를 연결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숭산 스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가르침이다. 숭산 스님은 진정으로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집착 없이 모든 상황들에 대처하라고 당신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말없는 법문을 항시 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대봉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서양의 불자들은 기도와 명상 외에는 관심이 없다. 대부분이 수행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고 깨달음을 얻길 원한다. 기독교적 선교 방식에 피곤해져 있는 서양인들은 불교의 스님들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설교식으로 하는 불교를 원치 않는다. 숭산 스님은 한국인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방식이나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시더라도 그 나라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구하는 바가 바르고, 마음이 맑을 뿐. 순간에 한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올바른 방향을 보여줄 수 있나를 몸소 보이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다."



◇무상사 결제 법회후 기념촬영에 나선 숭산스님(중앙)과 제자들.

이렇듯 제자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진정한 보살도로 이끌어 주는 숭산 스님. 매일 매일의 생활수행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깨우고, 이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중생 제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숭산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사랑으로 제자들 감싸안아

"우리는 진리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만물은 공(空)하므로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한 길입니다. 이것을 지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이해하려 하면 안됩니다. 수행을 통한 어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절대이고 경계가 없으며, 나의 모든 행동이 순간순간 중생을 향한 큰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본래 '나'라는 것도 없으므로 다른 중생을 위한다는 말조차 틀린 말입니다. '나'와 '남'의 경계가 없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 길에는 생각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간순간의 모든 행동은 진리이며 완벽하게 다른 중생의 고통과 닿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도와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며, 완벽한 길이며, 진리의 길입니다."

무상사에서의 동안거 결제 법회가 끝나고, 숭산 스님은 무상사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요사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오! 에브리바디 히어. 원더풀, 원더풀.(여러분 다 여기 모여 있었군요. 좋아요)" 특유의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미소로 숭산 스님은 제자들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 차에 올라타 무상사를 뒤로 하면서도 연신 손을 흔들며 "바이, 바이"를 외치는 스님과 합장으로 배웅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자비로운 큰 스님의 그늘이 얼마나 크며 포근하고, 또 소중한 것인지 알수 있었다.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월공스님



지장보살이 한가히 노닌다고 말하지 말라.
지옥문전에 서서 눈물 거둘 날이 없나니
악업을 짓는 사람 많고
선업을 닦는 사람 적으니
지옥중생 교화하기에 어느 땐들 쉴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 누구나 다 자기업보의 완전한 소멸을 원한다.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도, 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에 왕생하길 바라는 사람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업보의 완전한 소멸은 어떻게 해야 얻어질까? 지장보살은 일체 모든 중생이 다 해탈하기 전에는 결코 혼자만의 해탈은 이루지 않겠다는 애틋한 서원을 세우셨다. 우리가 이 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모두가 업보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참회와 기도를 통한 자기 수행 없이는 불가능하다.

수만 겁 이전 지옥중생의 구원을 맹세한 지장보살은 영겁을 지나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오랫동안 구원의 행을 했지만 아직도 지옥이 북적이는 것은 구해주어도 우리가 다시 깊은 미혹에 빠져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이리라.

여의주 같아, 그 광명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이

수행 안하면 지옥만 가까워져
매주 지리산서 점찰법회

를 해처럼 비추고, 길 잃은 사람에게 밝은 햇빛이 되어주며 번뇌의 뜨거운 불길을 없애주는 청량한 달빛처럼 일체중생들이 고통을 여의고 갖가지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건만 우리가 수행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극락은 멀고 지옥은 가깝게 될 것이다.

지리산자락 인월 오봉산. 차가 뒤집어 질 것 같은 험난한 길을 오르면 분홍색의 화려한 5층 건물을 만나게 된다. 산 꼭대기에 웬 연수원 건물 일까 내심 황당해 하며 알아보면 바로 그 곳이 영선사다. 원래는 아주 작은 기도처였던 곳을 월공(月空)스님이 원력을 세워, 업장이 두터워 수행에 장애가 되는 이들을 위해 지장기도를 시키며 점찰법회를 여는 곳으로 거듭난 사찰이다.

점찰법회란 신라 원광법사가 고승대덕을 모시고 사부대중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대중화한 신행운동으로 진표율사가 정착시켰다. 불자들이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장애에 부딪쳐 일어난 산란한 마음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전생의 선악업보와 현재의 고락길흉을 살펴 참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안락을 얻게 하여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과 무명을 사라지게 하고 청정행을 실천하게 하는 수행법이다.

월공스님은 역사 속에서 이 점찰법회를 끌어내 매주 토요일이면 50여 대중들과 함께 옛 점찰법회의 면모를 갖추어 간경과 독경, 사경과 염불을 하며 지장보살 전에 참회와 기도로 수행하고 계신다. 공군법사 출신인 스님이 신라 화랑의 스승이신 원광법사의 점찰법회 맥을 잇고 있으니 예사 인연이 아니지 싶다.

내가 월공스님을 처음 본 것은 재작년 함양불교대학 출범을 위한 모임에서였다. 군 법사 출신답게 모든 일을 절도있게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있는 모습은 불타는 열정의 소유자 젊은 부루나처럼 보였다. 함양 사부대중 모두의 원력으로 불교대학이 문을 여는 날, 나는 깜짝 놀랐다. 시골의 작은 동네에서 어디서 그런 신심 있는 선남선녀들이 나타났을까 싶었다. 백 오십명 정도가 입학하여 날이면 날마다 늦은 밤에도 나이에 상관없이 졸음을 참아가며 공부하는 불자들을 보며 가슴속에서 환희심이 마구 솟았다. 스님은 이미 남원에서 불교대학을 출범시킨 경험이 있었다. 남원불교대학은 불교계에서 오래 전부터 알려진, 지방을 대표하는 불교대학 가운데 하나이며 그 곳에서 배출한 포교사들과 근처



의 군 법당 법회를 도맡아 지원하고 계신다. 이처럼 남다른 정열과 신심으로 포교와 수행을 하시는 스님의 배경엔 2대째 스님가문이며 모친이 불교교육원을 운영하는 대보살이라 스님의 포교불사는 누대에 걸친 원력으로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다.

스님은 반드시 지장보살이 발하는 광명처럼 중생의 번뇌를 사르르 녹여줄 시원한 달빛처럼 온 허공에 가득하게 진리를 펴시리라 믿는다. 언젠가 참 대단한 스님이라고 내가 면전에서 칭송을 하자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먼 산 바라보며 하던 말이 생각난다.

"초발심이 변하지 않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요. 교만함이 물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불사 때문에 잠시 멈춰선 점찰법회를 다시 열면서 수행해야겠지요"

지리산 검은 산등성이가 마주 보이는 경치 좋은 영선사 수련원이 신심 있는 불자들의 기도처가 되어 많은 이들의 수행공간이 되길 바라면서 언제 나도 점찰법회가 열릴 때 꼭 참석하리라 마음 먹어본다.

▩서울 반야사 주지

교수초빙

세계수준의 전문대학원인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를 개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님을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

학 과	전공분야	초빙인원	비 고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	2명	계약제 임용

2. 지원자격
가.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다. 불교를 이해하고 신심이 돈독한 분

3. 제출서류
기. 이력서 및 연구실적 목록 각 1부
니.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부 제출
다. 경력증명서 (이력서상의 경력증빙자료, 사본은 인정하지 아니함) 각 1부
리. 연구실적물('97. 3. 1. 이후에 발표된 연구실적물) 각 1부
미. 석·박사 학위논문 각 1부
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제출기한 2001. 12. 12 ~ 2001. 12. 18. 17:00까지(토요일은 13:00까지)
5. 제 출 처 우편번호 153-0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 설립추진위원회 (1층 학무팀장실)
6.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2001. 12. 18.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외국어로 된 각종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전형결과는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마. 임용직급은 자격기준에 따라 결정함.
바. 불교 신자인 분은 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02) 808-3321, 8562 Fax (02) 808-8561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 (가칭)

권 대창 불교 건축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고건축 시공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한옥(전통한식)
◦황토방 시공
※ 불사 하실 스님 상담 환영

권 대창 목재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판매 종류규격
◦연목 : 12자~24자까지 5회~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 1자 ~ 2자까지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오.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전화 02)595-1573 FAX 02)595-1575
H·P 019)327-0374
이종봉 합장

3일간의 깨닭음
깨달음에는 시절이 없습니다.
깨침의 숲을 거니는 즐거움을
체험해 보십시오.
• 중국의 백림사(아북성 조연)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3시간 깨달음의 수행법이 있으며 사람의 근기에 따라 수행방법이 천차만별이나 이곳의 핵심은 단박(돈오)에 깨우치라고 합니다.
•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생의 업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소망을 실현하며 오랜 질병도 다스려져 새 삶이 시작됩니다.
◉ 방학기간 중 단 3일 ◉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 지혜를 가장 값진 유산으로 남겨 주십시오.
• 공개강좌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예약접수)
• 정규수련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화요일 오후 3시
• 특별수련 : 개인사정에 따라 시간조절
• 위치 : 강원 홍천 공작산(서울 강남에서 1시간 20분)
• 문의 :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心田堂 (구대광사)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농축액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헹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수묵과 채색, 미학의 세계 알기

한·중·일 현대수묵화展
세 나라 작가 70명의 솜씨
12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이용로 作 '구성'.

한 중 일 삼국 수묵화의 특성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수묵의 향기, 수묵의 조형-한 중 일 현대수묵화' 전이 1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1, 2전시실과 중앙홀에서 열린다.

먹이 지닌 고유의 미감을 바탕으로 종이의 수용성과 붓의 활달한 움직임을 조형화한 현대수묵화의 멋을 보여줄 이번 전시에는 서구 추상미술의 미학 개념을 한국화단에 도입한 故 이응로 화백을 비롯해 서세옥 홍석창 송영방 등 한국작가 24명과 중국 근대 100년 사상 최고의 화가로 평가되는 故 저우스춘과 장리천 천싱 스환시 등 26명의 작품이 선보인다. 일본은 자유분방한 기질과 수묵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일본 현대수묵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故 요코야마 미사오를 비롯해 이라마쓰 레이지 가호 아키라 이시오도리 타쓰야 등 20명이 참가한다.

나라별 출품작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은 문인화풍과 실험정신이 두드러지고, 일본은 폭넓은 재료와 전위적인 운필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정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동양회화가 갖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02)2188-6043

채색, 그 아름다움과 힘展
박생광 씨 등 6人의 작품
14일부터 가나아트센터

'채색의 숨결-그 아름다움과 힘' 전은 20세기 채색화의 영역을 확립한 작가와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 채색회화사의 맥락과 성과들을 짚어 보는 전시다.

14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전통의 계승과 현대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전시에는 박생광, 박래현, 천경자, 이화자, 정종미, 김선두 등 6명 작가의 작품이 선보인다. 한국채색화단의 독보적 존재인 박생광은 '토함산 해돋이' '청담스님' '무속2' 등 민족 정신을 직관으로 형상화했으며, 전통채색양식을 과감히 탈피했던 천경자는 '장미와 나비' 등 감각적 색채의 작품을 내놓는다. '몽유도원도'와 '행' 시리즈를 각각 선보이는 정종미와 김선두는 장지기법으로 독특한 색채감각과 체계를 발견해 나가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제1전시장에는 박래현과 천경자씨의 작품이, 이화자 정종미 김선두의 그림은 제2전시장에서, 제3전시장은 박생광의 특별전 코너로 꾸며진다.

이번 전시는 전통채색화의 다양한 수용 방식과 채색화가 갖고 있는 힘 정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02)720-1020

이은자 기자 eeee@buddhapia.com


◇박생광 作 '토함산 해돋이'.


◇전통 우리음악의 세계를 감상하여 한해를 마무리 하자. 사진은 국립국악원 정악단 공연 모습.

국립국악원 송년음악회 '섣달의 정감'
황병기 교수 '달하 노피곰' 가야금 독주

국립국악원은 올 한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송년음악회 '섣달의 정감'을 마련한다.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꼽힌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으로 장중하고도 화려하게 무대를 여는 이번 송년음악회에서는 서도소리 인간문화재였던 故 오복녀 명인의 뒤를 잇는 김광숙, 유지숙이 들려주는 서도소리의 백미 '수심가, 엮음수심가'와 남도 민요, 풍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첫날 21일에는 올해 가야금산조 유파별 연주를 총완성한 서울대 이재숙 교수가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관현악과 협연하는 특별무대가 마련된다. 둘째날 22일에는 창작국악의 상징적 예인이라 일컬어지는 황병기 교수가 자신이 작곡한 가야금독주곡 '달하 노피곰'을 연주한다.

이밖에도 창작 우리 노래 '어디로 갈거나'(김영동 곡), '백 띄워라'(박범훈 곡) 등을 젊은 국악인들이 부르고, 대금연주가 원장현씨의 대금독주 등이 이어진다.(02)580-3300 이은자 기자

티베트박물관 '문 열다'
'의식용 법구展' 마련

티베트인들의 삶과 문화를 담은 유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 티베트박물관(관장 신영수)이 1일 문을 열었다.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자리한 티베트박물관은 개관기념으로 '의식용 법구(法具)' 전을 마련했다. 박물관 1층에는 불교의식에 쓰이는 마니차와 마정수기봉을 비롯해 불상과 탑을, 2층에는 라마승의 의식용 법의 등 3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열반한 라마승의 두개골로 만든 탈과 티베트 길상 8보 중 하나인 대법라(소라 나팔) 등은 티베트 문화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박물관은 앞으로 신영수 관장이 수집한 티베트 유물 1000여점을 각기 다른 주제로 전시할 예정이다.

신 관장은 "전시품들의 사진과 설명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www.tibetmuseum.co.kr)도 곧 문을 연다"며 "앞으로 티베트 유물뿐 아니라 불교서적들과 다구(茶具)들도 모아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요일 휴관.(02)735-8149 여수령 기자


◇티베트박물관에는 불교유물, 생활유물 등 3000여점이 전시돼 있다. 사진은 티베트 항로.

문화소식

범진 스님 초청 선화전

'선화에 담긴 범음의 세계'를 주제로 한 범진스님 초청 선화전이 15일부터 23일까지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40여년간 범패를 연구해 온 스님은 이번 전시기간동안 매일 오후 2시 '그림에 담긴 소리' 범패공연과 오후 3시 '즉석 그림' 시연을 펼칠 예정이다.(02)732-2183

불교합창단 '한마음 축제'

전국 8개 지역 불교합창단이 참여하는 전국연합합창단 '한마음 축제'가 12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전국연합합창단 창단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청주, 울산, 포항, 제주 등의 사찰합창단으로 구성된 지역합창단 8개팀 400여명이 동참한다.(02)723-0440

신품종 녹차 3종 선보여

전남 보성군 보성차시험장은 보성1호(보향), 보성3호(명선), 보성5호(참녹) 등 3개 신품종 차를 개발, 농림부 산하 종자심사위원회에 등록을 출원했다.

새 품종 보성1호는 생장이 균일해 기계화 재배에 적합하고, 보성3호는 고탄닌 계통으로 기능성 차 품종으로 알맞다. 보성5호는 저카페인 계통이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미국의 월든 호숫가에 토굴을 짓고 모든 시간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진실된 삶을 시도한 소로우가 2년이 지난 뒤 그 동안의 숲 생활을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쓴 것은 '숲 생활의 경제학'이란 글이다. 인적 없는 숲 속에서 홀로 생활하며 그가 내린 결론은,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철학과 경제학은 동의어'라는 사실이다. 자연과 그 속에 깃들은 생명력에 대한 놀라운 발견은 인생에 대한 통찰과 깊은 사색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형성된 신념과 철학은 먹고 자고 입는 등의 사소한 일상의 경제학으로 실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숲 생활은 그에게 먼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깨우쳐준 것 같다. '그 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백장청규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경제학과 철학이 동의어라는 소로우의 말은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학(Economy)과 생태학(Ecology)이 어원학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파생한 단어라는 사실을 상기해 준다. Eco는 그리스어 Oikos에서 온 말로 '집' 혹은 '거주'라는 뜻이다. -nomy는 nomos(법칙)에서, -logy는 logos(학)에서 왔다. 따라서 Economy(경제학)는 '살림하는 법'이라고 번역될 수 있고, Ecology(생태학)는 '살림의 학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말하자면 두 단어 모두 원래는 '가정살림을 꾸린다'를 의미했는데, 지금은 '사회의 살림살이'로 그 뜻이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두 단어가 원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동의어였지만, 자연에 대한 입장에서는 각각 '자연개발'과 '자연보호'를 지향하며 서로 반의어가 되고 말았다. 현대사회의 모순적 상황은 단어 한마디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일까.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살림'은 '살리다'의 명사형으로 생명을 살리자는 것인데, 경제학은 인간만을 살리자는 이기주의가 되어 오히려 자연을 죽이고 있다. 그래서 마침내 경제학을 견제하기 위해 생태학이 출현하기에 이른 것이다. 태생적으로는 쌍둥이지만 이제는 라이벌이 되어버린 이코노미와 에콜로지가 서로 화해하고, 궁극적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는 없는가?

소로우의 '월든' (2)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정신의 힘'

숲 속 호숫가의 생활을 기록한 소로우의 책을 읽으면, 그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주위의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했는가를 알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세밀한 관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연 속에서 늘 '정신의 힘'을 발견해 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런 깨달음이 올 때마다 그는 자신이 옥수수처럼 훔쩍 크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숲 생활 중에 〈바가바드 기타〉, 〈논어〉, 〈도덕경〉 등의 동양고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깨끗하기 그지없는 '월든' 호수는 그에게 물질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차라리 정신적인 공간이었다.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내 생각 드높은 곳에 떠 있다." 그리고 그 순수한 호수는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도 고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운다. "진실로 바라건대, 당신 자신을 탐험하여 내면의 월든 호수를 발견하라." 2년 간의 토굴 생활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영혼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의 필수품은 '깨어남'이라는 사실이다.

■문학평론가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시공된연등 용▶
전선 케이블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육각등



공단등



종 등

신제품



종등 보관상태



만월등



* 종소리는 사방으로 울려 퍼지며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어져왔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종 소리로 지옥 중생을 구제하여 억업과 고통을 멸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새겨 많은 옛 사람들이 초파일 전에 종등을 만들었습니다.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이러한 뜻을 받들어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쉽게 장엄할 수 있는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연꽃임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031) 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사랑은 모든것과 함께 있다

'첫사랑은 맨처음 … ' 틱낫한 스님 지음



〈첫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다〉(나무심는사람)는 스님, 시인, 평화운동가로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틱낫한 스님의 첫사랑 고백서다. 하지만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연애 이야기가 아니다. 이 속엔 사랑을 수행의 바탕으로 삼은 깨어있는 영혼의 소리가 들어 있다.

틱낫한 스님의 첫사랑은 24살 때 베트남 원각사에서 한 비구니 스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스님은 비구니 스님을 보는 순간 "신선한 미풍이 얼굴 위로 불어오는 듯한 느낌을 들었다. 전에도 많은 비구니 스님을 보았지만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다"고 고백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둘러 표현하기 위해 밤새 설명한 것, 비구니 스님이 준 한 알의 약 이름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멀리 떠나보낼 수밖에 없던 날의 일 등 첫사랑의 모든 일들을 모두 털어놓는다.

이 사랑 이야기는 스님이 매일 아침 제자들에게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의 대승경전을 강의하면서 들려주었던 내용들이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틱낫한 스님은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똑같은 열병을 앓게 될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으로 강의의 반 정도를 할애했다.

'틱낫한의 첫사랑과 대승 경전 이야기' 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은, 사랑 이야기와 경전 이야기가 한번씩 번갈지만 별개의 것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승 경전의 내용을 첫사랑의 이야기로 녹여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그것은 사랑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 에서 그 감정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사랑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물의 본질도 꿰뚫을 수 있는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꽃 한 송이가 햇빛과 물과 흙, 시간, 공간 같은 꽃 아닌 요소들만으로 이루어졌듯이, 그래서 한 송이 꽃을 통해 태양과 온 우주를 만나게 되듯이, 사랑을 깊이

사랑을 수행방편 삼은 틱낫한 스님 첫사랑 얘기

들여다볼 때 그 안에 깃든 다른 모든 것과의 연관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의 사랑이야기가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첫사랑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으며, 그 순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깊이 있게 참구하는 것이다. 스님은 말한다. 당신의 첫사랑은 당신의 맨 처음 사랑도 아니고 맨 나중 사랑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과 함께 있는 사랑이다. 이처럼 이 책은 사랑과 경전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대승불교가 흘러온 길에서부터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등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상(無常)에 관한 설명을 보자.

"꽃 한 송이가 시들어 죽어갈 때 여러분은 슬픔에 젖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꽃이 무상한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의 무상함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아주 큰 고통에 빠지게 되지요. 여러분이 만일 무상함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상함에 깨어있을 때 여러분은 적극적이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혜로워집니다. 무상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상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이 외에도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나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에 대한 설명, 번뇌를 사르기 위한 통찰, 또 마음 모으기 수행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힘 등에 대한 설명도 명쾌하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곁에서 본 큰스님의 삶과 수행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1, 2' 원택 스님 지음



암자에 철망을 두르고 10년 동안이나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산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스님, 수십 년 간 눕지 않고 철저한 수행을 한 스님, 거침없는 경책 때문에 선방 수좌들에게 '가야산 호랑이' 라는 별명으로 통했던 스님, 삼천 배를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만나주지 않았던 고집스러운 스님. 성철(전 조계종 종정) 스님을 두고 하는 말들이다.

이러한 스님의 삶과 수행, 가르침과 깨달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성철스님 시봉이야기〉(전2권, 김영사)가 나왔다. 지은이는 성철스님 곁에서 20여 년을 시봉했던 원택(조계종 총무부장) 스님.

이 책의 미덕은 다소 딱딱한 법문으로 만났던 성철 스님을 시자의 시각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원택 스님이 기억을 더듬으며 담담하게 써내려간 시봉이야기들은 법문을 넘어 감동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더하거나 뺄 것 없이 누구나 성철 스님처럼 살아가면 위대한 인간, 깨달은 사람으로 성철 스님과 꼭 같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싶다." 이것이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을 이야기하는 진정한 이유다. 이 이야기는 이미 중앙일보에 '산은 산, 물은 물-곁에서 본 성철스님' 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간 연재됐었다. 값 각권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감동과 깨달음 있는 선사일화

'한생각 열어주는…' 김기석 엮음



한 객승이 뜰을 거닐다 선정에 든 선사에게 다가와 물었다. "스님, 무엇을 일러 도(道)라 합니까." 뜰에 핀 작은 풀꽃들을 바라보며 스님이 말했다. "무심(無心)이 바로 도라네."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네가 할 일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는 일이네."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네지."

〈한 생각 열어주는 108가지 지혜〉(미래문화사)는 선승들의 지혜와 깨달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스님이 왕을 맞이할 때는 앉아서 하고, 왕의 하인이 오자 깍듯이 일어나 맞이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배우는 '수준한 방문객을 앉아서 맞는다' 를 비롯해 '못된 성질을 내놓거라' '마음속에 지닌 생각으로 본다' 등 인간관계에 편견을 없애고 감동을 주는 선문답 108가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인간복제시대 인류의 나아갈 길

'과학 종교 윤리의…' 최재천 엮음



인간 복제 등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달로 과학이 신의 영역에까지 다가선 이 시대에 사는 과학자들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하는가.

〈과학 종교 윤리의 대화〉(최재천 엮음, 궁리)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과학 종교 윤리학자들의 성찰을 담고 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식지인 '자연과학' 에서 특집으로 다룬 내용을 토대로 꾸민 것이다. 자연과학은 물론 종교학, 윤리학, 철학, 인문, 사회과학 등 관련 분야 교수 22명이 환경 윤리, 인권문제, 국가 정책, 시민운동, 과학과 종교 문제 등에 대해 분석한다. 그렇다고 섣부른 결론이나 상투적인 화해를 끌어내지는 않는다. 상호간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각자 처한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힌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

불교를 알려면 부처님을 보라

'내가 본 부처' 도법 스님 지음



도법(실상사 주지) 스님이 조계종 행자교육원에서 '부처님 생애' 를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담은 〈내가 본 부처〉(호미)가 나왔다.

스님은 '부처님이 곧 불교' 라고 이야기한다. 불교를 제대로 알려면 부처님을 제대로 알면 된다는 이야기다. 불교의 출발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 까닭은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불교 사상과 정신의 근본이며 실현해야 할 최고의 수행자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불교 수행자들의 모습은 이와 반대라고 꼬집는다. 대접받으려 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자기 도취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스님이 말하는 우리 수행자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 불교는 부처와 멀어져 온갖 문제와 폐단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상적 정체성에 대한 무지라고 스님은 잘라 말한다. 곧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제는 불교를 모르는데, 어떻게 불교를 바로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살피지 않는 데에서 연유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행자들에게 말한다. 싯다르타가 걸어간 길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스님은 우리 생활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파괴를 비롯하여 인류의 앞날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또한 부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이 책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흔히 부처님의 생애를 탄생, 사문유관, 출가, 수행, 성도, 전법, 열반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지만 도법 스님은 이러한 시간적 나열을 넘어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출가행자들에게 자상하게 일러준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제주섬아 사랑해(박승룡 지음, 우리글 刊)= 여행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승룡 시인의 수필집. 한라산 관음사를 시작으로 제주의 대표적 명소를 여행하며 느낀 단상을 북제주, 서귀포, 남제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시와 함께 실었다. 또 교통과 숙박 안내에서부터 박물관, 축제 등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여러 정보를 부록에 싣고 있어 가이드 북으로도 활용할 만하다. 값 7천5백원.



▲문명왕후 김문희(전3권, 김지수 지음, 삼진기획 刊)= 태종무열왕(김춘추)의 아내이자 김유신의 누이이며, 문무왕의 어머니인 문명왕후 김문희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다. 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뿐만이 아니라 삼국통일의 숨은 주역이 되기까지의 문정황후의 열정적인 생애를 담았다. 하지만 이 소설의 초점은 황후의 삶이 아니다. 여성을 위한 선언이다. 이런 점에서 독자들이 이 소설에서 읽어야 할 것은 바로 여성성의 개화다. 값 각권 8천원.



▲나의 눈(데이비드 호킨스 지음, 문진희 옮김, 한문화 刊)= 정신분석학, 의학 전문가인 지은이의 체험을 토대로 영적인 성장을 위한 방법론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지은이가 체험한 영적인 앎의 주관적인 상태에 대해 서술하고, 영적인 길이 무엇인지, 의식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 마지막에서는 세계 각국의 영적인 탐구자들 및 단체들과의 강연, 대화, 인터뷰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이 실려 있다. 값 1만3천원.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최은영 옮김, 마주한 刊)=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 병사들을 위한 '병사와 책' 시리즈 가운데 불교편. 부모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부모은중경〉(용주사 본)을 단원 김홍도의 그림과 함께 싣고 있다. 병영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진실로 부모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이 책은 선물용으로 권할 만하다. 이 시리즈는 모두 20여권으로 출간될 계획이다. 값 6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풍경소리	풍경소리	샘 터
2	찻잔 속에 달이 뜨네	지 운	법 공 양
3	현대관음기도 영험록	성 일	불 광
4	금강경 역해	각 묵	불 광
5	파아나두라 대논쟁	오 진	운 주 사
6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7	꽃담	해 만	시 공 사
8	불교입문	조계종 편집부	조계종 출판사
9	불교수행의 이론과 실제	근본불교학교출판부	근본불교학교
10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도서 안내 : (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승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12,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그 누가 인생을 고해라 하였던가?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당신도 행복한 미래를 예약할 수 있다.



소원성취를 위한 脈 기도의 맥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김윤보 큰스님 편저
신국판 355면 값 10,000원

근심 보따리를 풀어놓고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불교는 자력으로 해탈하는 능력적인 종교입니다.
순간의 깨달음에 의해 원인을 찾게 되면 기도의 방편을 통해
스스로 지어놓은 전생과 현생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악업을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준비, 작법, 작단법

3일기도, 이레(7일)기도, 3 · 7일(21일)기도, 49일(7 · 7일)기도, 가정에서의 49재 의식, 100일기도, 108일기도, 1,000일기도, 3,000일기도, 10,000일기도 / 재(齋), 영산재, 생전예수재, 7재, 49재, 사리탑 탑돌이기도, 마니주 · 마니륜기도, 법륜상돌리기기도, 금강저돌리기기도, 만다라작법기도, 사경기도 / 산신기도, 용왕기도 등

【총판】 운주사(02)3672-7181~5 【서울】 교보문고397-3587 서울문고6002-6002 영풍문고399-5635 종로서적733-2331 반나서적2267-7385 【부산】 고려불교예술원807-6842 부다가야865-4383 영광도서816-9500 부산도서517-1911 동방서적925-1318 【대구】 한일서적923-0781 삼영불교서점421-3980 파계사서점984-4550 【인천】 인천불교서점773-9086 【광주】 원각사불일서점232-7542 삼복서점222-0258 【대전】 보문불교서점253-6446 세종문고536-6700 【강원】 관음불교사642-8880 금강불교사743-7442 마하불교434-8446 여래불교사632-9004 원주불교사748-3993 월정사석경원332-9685 【경기】 만다라654-6656 목아불교885-9954 법보서적253-1055 대동서점949-4488 【경남】 보문불교서적741-6709 성주사불심원267-2623 정법불교사741-2683 제일불교서점742-8174 혜인사서점932-7473 【경북】 영광도서742-9133 포항문고249-4900 삼문사서점247-8412 학원사284-8250 대원서점770-2586 보송서점742-6607 불교서점749-1580 영주불교서점631-3940 경주제일서점742-9393 상주제일서점534-2377 【전남】 불일서점743-9672 송광사불일서점755-5305 운주사서점374-0668 화엄서점782-1125 【전북】 금산사서점584-1354 내소사서점583-7281 실상사서점636-3822 【제주】 동연마을721-4005 불교종합점755-9800 약천사서점738-5000 【충남】 동학사불서각825-7808 【충북】 구인사서점423-7100

기도의 불가사의한 힘, 그 작법과 방편을 낱낱이 모아 엮은 책!

도서출판 글 밭 TEL. (054)749-0650 FAX.(054)772-5344 E-Mail : glbatc@empal.com

※ 서점에서 미처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주문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배달해 드립니다.

고대 역사유적 연구방향 문헌서 '현장 중심으로'

신라학硏 학술회의서 제기

고대 역사유적과 유물을 문헌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재조명하자.

경주 위덕대 신라학연구소(소장 진창영)는 5일 '신라학의 현장론적 접근'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위덕대 박물관을 비롯해 동국대, 경주대, 서라벌대, 국립경주박물관 등 경주 지역의 학자와 문화재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학술회의는 신라를 중심으로 한 고대 역사유적을 유적·유물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재평가해 보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경주 지역의 문화유산을 다루면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모두 지역 학자들이라는 점도 특별했지만 그보다 더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이날 발표된 논문의 '파격성'이다. 하나 같이 학계의 통설을 부정하거나 완전히 뒤엎고 있기 때문이다.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통일신라시대 조각의 시대 구분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굴불사터 사면석불(보물 121호)의 조성 시기에 의문을 던졌다.

박 실장은 〈삼국사기〉 기록을 바탕으로 신라 경덕왕 대에 조성됐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를 바탕으로 박 실장은 "사면석불이 모두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는지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며 "남면 삼존불, 동면 약사여래좌상, 북면 부조 보살입상은 그 시기가 7세기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확실하게 경덕왕대의 작품으로 보이는 서면 본존불과 좌협시보살의 목에는 뚜렷한 삼도(三道)가 있는 반면, 남면 삼존상 좌협시보살의 목에는 삼도가 없으며 동면 약사여래좌상은 아예 목부분이 없는 고식을 띠고 있다는 점, 남면 우협시보살과 북면 부조 보살입상의 측면이 서면의 양협시보살을 세울 때 조금씩 깎여 나간 점으로 봐 서면 양협시 보살보다 빠른 시기에 조성된 것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박 실장은 설명했다.

박홍국 · 김창호 · 박광렬 씨 등 정설 뒤엎는 파격주장 잇달아

경주 백률사 앞의 굴불사터 사면석불의 조성시기가 7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조로2년(調露二年, 서기 682년)명 벽돌 조각에 새겨진 문양과 비슷한 양식의 연꽃 문양 벽돌 조각이 1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됐는데도 〈삼국사기〉 기록이 워낙 강력한 방증이 되다보니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창호(경주대) 교수는 신라 금석문 가운데 불교와 관련되는 금석문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인 울산 천전리 서석 을묘명(535년)에 나오는 법명 표기를 바탕으로 고구려와 신라에 삼론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박물관 박광렬 전임연구원은 고식 도질 토기가 400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남침으로 인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경주 지역에서 확인되는 1기 적석목곽묘 단계의 고식 도질토기의 제작 기술이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기 서라벌대 교수는 볼국사 구품연지의 배치, 청운교·백운교를 이루는 석축 결합 구조의 의미, 범영루 하부의 자연석 석축과 수미산 형상의 관계 등 불교와 관련된 조형적 특징을 살펴봤다.

신라연구소장 진창영(위덕대) 교수는 "경주지역 역사유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현장 중심의 답사에 전념해 온 지역사학자들이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대학 강단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발로 뛰는 학자들이 지역 문화유적 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바탕이 마련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보물 121호 경주 굴불사터 사면석불.

학술 단신

여주 신륵사 종합적 고찰

동국대학교 부설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는 13일 오후 1~6시 경기도 여주 군민회관에서 '봉미산 신륵사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제5회 정례학술회의를 연다.

신륵사와 여주군, 동국대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김상현 홍광표 박경식 정기호 교수 등 6명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김동현 정영호 김상영 김두규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종합토론을 벌인다. (054)770-2501

22일 불교수행론 학술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는 22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제42차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불교 수행론 연구를 주제로 두번째 열리는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김상일(한신대) 교수가 '원효의 판비량론에 대한 현대논리학적 고찰'을, 김성철(동국대) 교수가 '중론 주석가들의 연기관'을, 계환 스님(동국대 교수)이 '중국 화엄의 수행론-화엄법계관과 법계연기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02)733-5315

"율장의 '不同住' 계율 위반 아닌 독립그룹 인정"

이자랑 씨 주장

수행 공동체인 승가(僧家)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어떠했는가?

1일 인도철학회 가을 학술발표대회에서 '율장에 나타난 부동주(不同住)에 관하여'를 발표한 이자랑(동국대 강사) 씨의 논문을 보면 초기불교 교단은 이들에게 비교적 관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씨는 '율을 위반하지 않은 청정한 비구들이 죄를 지은 비구들과 함께 거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지닌 여러 용어 가운데 그 동안 개념이 모호했던 '부동주'의 의미를 빨리율을 통해 분명히 했다.

이 씨는 율장에서 비슷한 의미로 다루고 있는 별주(別住), 부공수(不共受) 등의 용어와는 달리 부동주는 계율의 위반이 아니라 '경율(經律)의 해석을 둘러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어느 한쪽의 비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견해가 다른 양쪽 비구를 모두 가리킨다는 점이다. 이 씨는 〈코삼비 건도〉에 보이는 "이 비구들은 너희들과 부동주이며, 너희들은 그들과 부동주이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보면 그 뜻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붓다 스스로도 의견 대립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행사를 따로 개최할 때 그 행사를 여법(如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똑같은 승가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권형진 기자

"조선후기 불교사 복원 寺誌 적극 활용"

오경후 씨 논문 '주목'

조선후기 불교사 복원을 위해서는 사찰 사적기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철선사상연구원은 최근 오경후(동국대 강사) 씨의 '중관해안의 사지(寺誌) 찬술과 불교사 인식' 등 6편을 올해의 연구논문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오 씨의 논문은 그 동안 참고문헌이나 자료소개 수준에 머물던 사찰 사적기를 조선 불교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사적기의 전형이 된 중관해안(1567~?)의 금산사(1635년)·화엄사·대둔사 사적기(이상 1636년)를 중심으로 17세기에 나온 사적기를 문헌학적으로 검토한 오 씨는 "'해안이' 사적기를 찬술한 가장 일차적인 등기는 임진왜란 등 전란으로 소실된 사찰 기록의 복원을 통해 조선 불교사를 복원하는 데 있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탄압과 무관심으로 묻혀졌던 조선 불교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조선 후기에 찬술된 사적기들은 조선불교사 연구에 대한 무관심과 내용의 신빙성 문제로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요원한 실정"이라며 "사적기에 대한 문헌학적 검토는 조선 후기 불교사를 연구하는 데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가산포럼 '지성의 정체' 찾기

14~16일 월정사서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14~16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가산포럼을 연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수행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라는 기치 아래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가산포럼의 두번째 마당이다.

'수행과 지성의 발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유불선 등에 담겨 있는 수행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을 통해 우리 전승 사상 속에 나타난 지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의미를 되짚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성의 실천적 모델을 전망하고 모색해 보는 자리다. '마음 수행과 지성의 발현-수행의 가치'를 주제로 한 원장 지관 스님의 기조 발제에 이어 7명이 주제 발표를 한다. (02)765-9602

高僧 다시보기

만항 스님과 禪 바람

만항(萬恒, 125~1315) 스님은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되는 충렬왕과 충선왕 대에 활동한 선승이다. 우리 나라 불교계의 주도적 흐름인 임제 간화선풍(看話禪風)은 스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만 최근에야 부각되고 있다.

고려후기 대문인 익재 이제현이 남긴 스님의 비문에 의하면, 속성은 박씨이며 역대 수선사 사주와 같은 지방인 웅진군 향리층의 자제였다. 14세인 원종 3년(1262)에 수선사 6세인 원오국사 천영에게 출가하고 구산선(九山禪)에 장원 급제하였으나 지리산에 은둔하였다. 충렬왕의 명으로 삼장사와 수선사 등 사찰의 주지를 역임하면서 선(禪)뿐만 아니라 경전도 함께 강론하여 주목을 받았다. 제자만 700여명에 이르며 이 중엔 사대부들도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한다. 후에 혜감국사(慧鑑國師)로 추존되었다.



◇송광사 16조사 진영 中 만항 스님 영정.

무엇보다도 스님에게서 주목되는 사실은 지눌 스님이 수용한 간화선 선풍을 계승하면서 그 위에

중국 몽산선풍 받아들여 침체된 고려말 불교 혁신

몽산덕이(蒙山德異, 1232~129?) 스님의 새 선풍을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몽산 스님은 고려에 다녀가지 않았으나 그의 생존시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우리 나라 불교계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 예컨대 일연 스님의 상수제자인 혼구 스님(1250~1332) 등 승려들은 물론이고 재상과 대신들이 앞다투어 몽산 스님과 교류하였다.

몽산 스님은 '무자(無字)' 화두 위주의 간화선 수행법과 깨달은 후에 명안종사(明眼宗師)를 찾아 인가받는 전통을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 조계선풍의 큰 골격을 이루고 있는 몽산선풍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선풍을 받아들이고자 만항 스님은 편지를 보내 질의하였고 상인을 통해서 몽산 스님이 서문을 쓴 〈육조대사 법보단경〉을 구하여 이를 고려에서 간행하였다. 이는 스님이 당시 보수화되고 침체된 불교계에 몽산스님의 새 선풍을 받아들여 불교를 크게 일으키려는 뜻과 노력의 결과였다. 그리하여 여말삼사라 일컫는 태고 보우스님이나 나옹 혜근스님은 물론이고 화엄종의 진각국사 천희스님도 몽산선풍을 추종하였다.

만항 스님이야말로 지눌 스님이 세운 간화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위축된 수선사의 사세를 진작시켰으며 고려말 여말삼사를 거쳐 조선시대 불교계의 선풍에 큰 영향을 끼쳐 오늘날에 이어지게 한 고승이었던 것이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한 장, 한 눈, 한 방으로 말할 수 있는 신시서(神示書)! 이 책 한 권으로 활인천역자의 고민과 애로가 확 풀렸습니다.

六壬來情秘法 革新版 출시

육 임 래 정 비 법 혁 신 판

오행을 전혀 모르는 분을 위해
크게 필요하나 오행공부를 시작하기 힘든 분을 위해
오행에 아주 능통한 분을 위해
또, 간판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명예와 양심을 걸고 후회없이 다시 썼습니다. -효 사-

매일 한 장씩을 바인더 처리된 본 책에서 빼내 책상위에 올려 놓기만하면, 하루에 몇 십명이 찾아오든, 전화해오든, 가서 만나든, 그 사람들의 속 사정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 마자 전화 받자 마자 만나자 마자 먼저 쏠 말(初辭)을 다시 갈고 닦아 송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귀신과 빌미부정과 산소탈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어 그 것을 보고 말씀만 하시면 적중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제압법을 부록에서 본 후 수법을 행하면 틀림없이 이를 해제시킬 수 있게 됩니다. 확인 천역자의 평생 반려가 될 수 있는 귀한 기이서(奇異書)가 될 것입니다.

가격 : 1,300,000원(일백삼십만원) 입금처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각종 신용카드로 장기분할 구입이 가능합니다. ●본 책은 월장법 12권으로 분권, 60갑자일을 매일별로 바인더 처리 ●부록·비디오 포함됩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을 못따르고, 육임 10년을 해도 이 책의 진수를 밝혀 내기 힘듭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생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어도 되는 책입니다.

-「발 문」중에서-

금번 효사 선생께서 심혈을 기울여 써낸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비서(秘書)에는 참으로 귀한 것들이 밝혀져 있는데, 그 중 특히 귀신과 빌미·부정과 산소 탈을 알게 해 놓은 것이 백미인 것 같다. 수만 억겁이 윤회하면서 낳고 죽는 것이 반반 되어 천하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 해탈없이 죽은 자의 원혼이 어찌 산자의 삶을 엿보지 않으랴?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은 팔만대장경 속에도 이같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거니와, 오늘날 문물이 조금 진보했다고해서 이 사바세계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鬼怪가 경시되고 있으나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귀신들의 훼방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생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간의 전쟁 역시 원귀들의 장난이 틀림없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조상만을 논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조상이 어디 한 두 분이겠는가? 수천·수만 일진대, 구체적으로 어느 조상, 누구 산소를 명시해서 제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 점을 효사 선생은 잘 밝혀 놓고 있는 것이다.

빈도가 그동안 이를 신중히 적용해 보니 틀림이 없었다. 그것이 보람이라면 보람이겠다.

이 진서(珍書)가, 귀신들이 제 설곳을 찾아가는데 영락없이 쓰여졌으면 싶다. 일독을 권한다.

나무지장보살!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건봉사 주지 정 영 도 합장

전 내용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시보관망표시	점단판단시간	국수局數	일일辨疑과修正여부(+)(-)	점시가 갖는 천天	점시가 갖는 장將	점시에 의한 래정(來情)	과체로 본 래인(來人)의 전체적 정황	초전 등장 動靜	초 사 (점자에게 던질 첫 말	길흉속지 모두 可·否 利害得失 여부	선인 보통인 △ 악인 ×	점자가 저지른 일 남으로부터 당한일	옛날 일 근래사 반복사	이미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일의 시작과 그 결과 판단 시작	중간	결과	귀신침범 여부 어떤 귀신인가	산소탈 음덕묘지상태 여부(누구 산소인가)	빌미 부정여부 (띠 별)	家相 吉凶 이사 可否	이사 吉方 및 택일	소송 승패 국가 개인	수상 수하	원가 피고	용기 일이 되는 일, 월	피해를 가해 올 남여 방위	사과삼전 요 해 (丁 解)
奇宮神七殺	+ 申 ⑤ 亥	뒷면 제 10 국	+	구진	천	예사가 불성하고 만물은 상한다 병재·관재·침범사로 원수가 된다 이별사가 있다 *집에 죽은 사람이 있네?	증심과(重審課) : 적신·적덕을 해야 신을 후김하는 사람이다 당면 일에 순응하라	申 관 살	변화가 심하군요? 관재송사가 붙겠어! 주거에 고심이 있으니, 가택이나 생업을 변동할 수 밖에 없는데 뜻대로 안되겠어! 귀신의 장난으로 시작은 있어도 끝은 안보이네! ⊕도로 귀아! ⊖가택신이 노했군!	卯 이득 가능	△	아 발동사 후회·원망 동요 심정 외사가 내입됨	신 사	올일	시작 申 × 시 묘	중간 亥 ○	결과 寅 ○	낮 도로 시 묘 밤 가택신 시 묘	男 외조부 탐 女 낙태 탐	낮 辰·戌·丑 未·巳·亥 밤 丑·未 卯·寅 시 미	吉 안정	辰 方 육합日	○	○	○	未·申 日 月	낮 亥 方 시 남자 밤 亥 方 시 남자	초 亡
위 내용은 갑자(甲子)일 신(申)시에 찾아 왔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할 말들입니다. 아래 내용은 갑오(甲午)일 신(申)시에 두 번째로 왔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두 번째 사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 亥 午 ⑫	뒷면 제 1 국	+	태음	空亡	예사가 불성하거나, 실재·실팔려이다. 합·후 등공은 임신이고, 점시에 청 등공은 결혼사가 있다. 상인의 범재가 있다.	복음과(伏吟課) : 상하좌우가 막히서 고민하는 사람이다 신인이 자신을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자기 과신으로 재난이 있다	寅 비 견	문세가 기복이 있게 생겼네? 말장서면 안돼! 정·형·송사를 주의해야겠어! ⊕여귀가 붙었네? ⊖전·흉사귀가 발동했어!	子 이득 가능	△	아 발동사	신 사	일어난 일	시작 寅 ○ 시 묘	중간 巳 ×	결과 申 ×	낮 여귀 시 묘 밤 전·흉사 시 묘	男 탐 女 탐	낮 辰·戌·丑 未·子·申 밤 辰·戌·丑 未·子·午 시 미	吉 안정	寅 未 亥·午 해 육합日	○	○	○	辰·巳 日 月	낮 寅 方 시 남자 밤 寅 方 시 남자	入 廟
아래 내용은 갑오(甲午)일 유(酉)시에 찾아왔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할 말들입니다.																											
합지·破	- 酉 ⑧	뒷면 제 11 국	낮 - 사 관	밤 + 음 천	낮 사 관	밤 음 천	파재, 또는 실주건이다 남녀 불문하고, 색정사에 관련된다	중심과(重審課) : 적신·적덕을 해야 신을 후김하는 사람이다 당면 일에 순응하라	辰 재 성	부부 다 같이 삼라관계에 똑지 있네? 男:남의 부인을 유혹해서 끼고 사네? 女 남의 남자를 후렸네! ⊕여귀의 부정을 탔어! ⊖전·흉사 귀신이 붙었어!	寅 이득 노력	×	아 발동사	구 사	일어난 일	시작 辰 ○ 시 묘	중간 午 ×	결과 申 ×	낮 여귀 시 묘 밤 전·흉사 시 묘	男 탐 女 子·낙태 탐	낮 寅·申·巳 亥·辰·戌 밤 寅·申·- 子·午·未 시 미	吉 안정	子·巳 해 육합日	○	○	○	巳 日 月	낮 方 시 밤 方 시	訪因姻而訟

위와같이 하루 각 시간별 래정사항이 한 장에 담겨 있어 그 날치 한 장만 본 책에서 빼 사용하면 됩니다.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전12권 ■크기:540×385×30 ■지질:스노우지 무광 100g ■표지:우단금박 ■제본:타공, 바인더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한국 비구니 법맥 세계적 유산이죠"

인터뷰 비구니史 정립 발원 본각 스님

900여 스님 인터뷰 자료 축적
학술회·논문집 발간 등 계획

연구원 20여명 '동분서주' … 지원 열악



비구니 스님들이 스스로의 뿌리찾기에 나섰다. 비구 승단의 일부로 묻혀온 비구니 승단의 역사를 찾고자 비구니 스님 20여명이 모였다. 두달전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수회관인 정진관에 새로 자리잡은 '한국비구니연구소'(소장 본각스님, 031-980-7775)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다.

연구소는 소장인 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과 황인규 연구원(동국대 강사), 학인 연구원 14명을 비롯해 국내외 교수 10여명(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99년 11월 창립이래 학교의 정식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아래서도 비구니사 정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본각스님으로부터 그간의 어려움과 서원을 들어보았다.

◆비구니연구소를 만든 목적은 불교계의 차별적인 성문화를 개선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들은 비구니사의 정리 라는 학문적 과제가 우선입니다. 팔경법 등 예민한 문제는 비구니계에서 가능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구니사 연구를 발원한 계기는 무엇인지요.

"99년 10월 연구소를 만들기 얼마 전, 대한매일신문에서 '한국 여성지도자 명감'을 작성한다고 제게 연락해온 일이 있어요. 불교계 여성지도자에 관한 자료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는 일찍부터 박마리아 여사가 낸 〈기독교와 한국여성 40년사〉 등 많은 자료가 누적돼 있는데, 역사가 2000년에 가까운 불교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 하나 없었어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말하자면 비구니들의 인명마저 정리되지 않은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발심하게 된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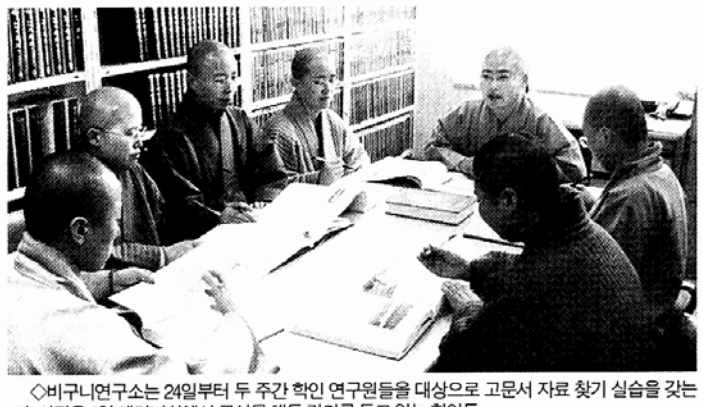
◆그간 말못할 어려움이 많았겠는데요.

"연구활동을 위한 공간 및 예산(연간 3500만원 소요) 확보와 스님들의 이해 부족 등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올해까지는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께서 지원한 5천만원의 연구비로 지탱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인들은 노스님들 친견하러 다니다 매도 많이 맞았지요. 왜 수행은 안하고 쓸데 없이 돌아다니냐고 혼이 난거죠. 물론 학인들과 불교계 신문과 잡지 등을 뒤져 40여년간의 산재된 기록을 모으는 작업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비구니사 연구현황은 어떻습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사료 역시 미미한 실정입니다. 일본에는 〈조동종 비구니사〉란 책이 있는 정도예요.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비구니관련 논문들이 다소 있어서 거의 입수했습니다. 사료가 부족한 만큼 각종 사서와 금석문에서 비구니 및 우바이 관련 자료를 수집해 해독하는 작업이 절실합니다. 해외에서 오히려 한국 비구니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 회원으로 참여하려는 교수들의 편지와 관련 논문들이 도착하고 있어요. 폴 그로너 버지니아대 교수, 로버트 버스웰 UCLA대 교수, 엘리슨 핀들리 트리니티 칼리지 교수, 심재룡 서울대 교수 등과 젊은 여성학자인 조은수 미시간대 교수와 이향순 조지아대 교수 등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히려 한국 비구니 승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비구니연구소는 24일부터 두 주간 학인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고문서 자료 찾기 실습을 갖는다. 사진은 4일 세미나실에서 금석문 해독 강의를 듣고 있는 학인들.

"한국 비구니의 법맥은 세계적인 유산이예요. 현재 비구니 승단이 남아있는 것은 한국과 중국 뿐입니다. 일본 불교는 재가중심이어서 여성 수도자를 전통적인 비구니라고 볼 수 없죠.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 불교전통이 거의 끊어진 것과 다름없고, 대만의 비구니 승단은 대륙의 전통에 맥을 갖다대는 것인데 그 전통이 사실 희미합니다. 다만 불광사 등이 중심이 돼 비구니들의 활발한 국제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점이 부러운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보람도 크시겠어요.

"철저한 수행의 자취를 남기고 간 비구니 스님들의 행적을 좇다보면 신심이 절로 납니다. 그런 발자취를 찾아내 알려야 후학들이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까지 학인 연구원들이 900여 스님들을 인터뷰 했는데, 가장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 기억이라고들 말해요."

◆향후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비구니사〉를 편찬하는 것이 장기 목표이지만, 시급한 것은 대학당국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는 일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도 가능하니까요. 학술활동은 우선 비구니 강원사, 비구니 계율 정신사, 비구니 포교활동사 등 비구니 관련 13개 주제로 논문집을 발간하는 동시에 학술회의도 열 생각입니다. 학교측의 공식인가가 나오면 2003년 비구니 관련 국제학술회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동국학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입장

동국대학교는 교계 선각자들의 커다란 원력에 의하여 설립되어 모든 불교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서려있는 교육불사의 총 본산입니다. 작금에 들어 이러한 동국대학교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대외적인 대학 교육환경 속에서 표류하면서 건학이념의 쇠퇴, 교육환경 악화에 따른 대외 경쟁력의 저하, 나아가서는 방만한 교육재원의 운영에 따른 재정위기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학내구성원은 물론 교계의 우려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발생한 금번의 공금횡령 사건은 내외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하게 반증하고 있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재단과 학교당국에서는 당연히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공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명하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재단 사무처장의 종립학교위원회에 대한 경위설명에서는 본 사건의 실체와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는 이렇다할 내용도 없이 사고금액의 환수조처들에 대하여만 장황하게 언급하고있습니다. 학교당국 역시 본 사건을 단순한 개인횡령 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재단의 단순 경리사고 정도로 미봉 하려는 속내를 곳곳에 내 비추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 12월 3일 이사회에서 조사소위를 구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수립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사건의 정황에 대한 재단사무처장의 해명과 자체의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재단뿐 아니라 학교당국에 대하여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학교의 전반적인 재정운영실태의 점검을 통한 본 사건의 실체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본 사건은 회계조직에 대한 관리부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당국에서는 재단직원 김태규가 법인 직인을 도용하고, 이사장의 인감을 위조하여 별도의 법인통장을 신설하여 세무서에서 환급되는 법인세 환급금 약 34억을 임의로 인출 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환급금은 법인이 은행에 예치한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중 은행에서 원천징수 한 선 세금을 세무서에서 법인결산 신고 직후 비영리기관인 학교 등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횡령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별도의 법인통장을 신설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현금관리 시스템으로 볼 때 현금 관련계좌가 모두 법인 명의로 개설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는 학교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환급법인세 관련계좌가 재단의 경리직원 수중에 들어갔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 법인의 직인을 말단직원이 도용할 수 있는 회계관리 시스템이라면 법인세환급금 관련계좌 이외에도 또 다른 현금관리 계좌를 마음만 먹으면 임의로 신설하여 현금을 도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 주목하면서 금번의 금융사고가 재단뿐 아니라 학교의 현금관련 계좌 전반에 걸친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본 사건은 특정 개인의 공금횡령사건이 아닙니다.

이번의 사건은 법인세환급금 관련계좌를 특정인이 일시적으로 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횡령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2000년도 5월 법인결산 직후 자동으로 입금되어야 하는 법인세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재단은 물론 학교당국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은 2001년도 5월에 열린 결산 이사회에서도 지적되어 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묵살하였다는 점에서 학교의 회계관련 담당자들의 단순한 실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자금운용과 현금관리에 관계하는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결제선상 다수의 직무유기, 나아가 직 간접적인 묵인이나 공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약 34억에 달하는 학교 현금이 장기간 유용되면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실로는 학교의 현금이 관련 계좌를 빠져나가 임의로 유용되는 사례가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학교와 법인간의 변칙적인 자금 이동이 관행화 되면서 자금의 흐름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와 재단의 최고책임자간의 묵인과 결제선상에 있는 회계관련 담당자들 다수가 연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본 사건과 관련, 또 다른 현금유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학교에는 각종의 적립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예금잔고가 400억 이상이고, 등록금수입 등 일시적인 예치금액이 발생하면 학교통장에는 1000억 이상의 예치잔고가 남아 있게도 됩니다. 이러한 예치금의 통장 잔고를 항상 장부상의 금액과 대사 하는 것이 경리활동의 일상 업무로 학교는 엄격한 규칙에 의하여 매일, 또는 매달 장부상의 잔고와 통장의 잔고가 대사 되도록 회계조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장부상 단돈 몇 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여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경리활동의 생리상 34억에 이르는 막대한 결손이 2년 가까이 묵과되어 왔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피의자 김태규가 세무조사 운운하면서 이를 숨겨왔다고 하나, 학교법인에 세무조사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사실관계를 학교당국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세금이 1년 이상 환급 보류되는 경우는 범부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현재 학교의 회계관리 시스템 상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현금유용의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연성을 높여주는 사실로는 2000학년도 결산서 상 학교의 적립금잔고가 전년도에 비하여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이 전년도 대비 50%, 금액으로는 34억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 원인이 이자율의 하락에도 있을 수 있으나 2000년도의 경우 이자율하락이 전년도에 비하여 3-4%정도임을 감안할 경우 또 다른 적립금의 유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본 사건은 상당기간 묵인되어 왔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10월경 재단의 안재봉 팀장에 의하여 발각되어 총장에게 보고가 되면서 학교당국이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 1달이 지난 11월 말경에 경리 담당직원 김태규를 검찰에 고소하고 경찰에 인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의 주요 간부가 사건 수습을 위하여 숙의를 계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바로 조치하지 않고 학교당국이 상당기간 은밀하게 사건 수습을 논의한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욱 10월경 안재봉 팀장의 제보로 학교측이 사건을 인지하였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로는 학교의 현금이 유용되기 시작한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2000학년도 결산직후부터 이고, 더구나 올 5월 이사회에서 분명하게 문제제기가 된 것에 미루어 당시를 전후하여 법인세환급금이 유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상당기간에 걸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본 사건이 재단 경리직원개인의 횡령사건으로 축소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학교의 무리한 자금운용 및 변칙적인 회계관리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본 사건과 같은 경우 정상적인 회계시스템 상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까지는 그에 상응한 원인과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인과 배경에는 학교당국의 무리한 자금운용과 변칙적인 회계관리, 그리고 불비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학교의 최근의 전반적인 재정운영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주, 포항병원에 대한 결손금의 축소보고, 일산병원건립과 관련한 무리한 자금 동원, LA로얄 대학의 인수와 운영과정에서의 학교와 재단간의 불투명한 자금이동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학교당국과 법인, 학교와 부속병원, 그리고 부속병원 상호의 변칙적인 자금이동과 변칙적인 운용 내역, 그리고 부실한 회계관리시스템이 본 사건이 발생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금집행 포인트별로 불법적인 자금의 유출입 가능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전체적인 자금흐름 및 집행실적의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학교의 자금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운영, 결제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전체적인 자금운영 시스템의 검토 및 진단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본 사건의 실체규명과 더불어 재발방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역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천명하면서, 학교당국과 재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학교당국은 본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본 사건의 전말을 명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학교당국과 이사회는 본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더불어 외부감사인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본 사건의 실체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그 조사의 범위를 특정 개인의 부정적발에 한정하여서는 안되고, 동국대학 전반의 자금운용과 현금흐름, 그리고 학교의 회계시스템의 검토와 진단을 동시에 수행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3. 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학교운영의 관련 책임자는 외부감사를 통한 본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직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본인들 역시 실질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불기 2545년 12월 3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 립 학 교 관 리 위 원 회

'나는 누구' 화두 찾아 참선 · 명상… 삼천배 하고…

사찰 · 교계단체 겨울방학 수련회 다채

겨울방학을 맞아 사찰과 교계 청소년 수련관에서 겨울 수련회가 잇달아 열린다.(표 참조)

이번 수련회에 참가하면 발우공양법에서부터 참선, 불교레크리에이션, 3천배 정진, 영화감상, 명상산행 등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탈출해 불교와 레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디지털 청소년 열린상담실은 내년 1월 24일부터 2박3일간 청소년 상담실 법당에서 복지시설 원생들과 함께 겨울 수련회를 연다. 무료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기초교리 강의, 레크리에이션, 그림그리기, 공동체 게임, 눈썰매타기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조계사는 '법우들과 하나되는 작은 보살이 되자'를 주제로 28일부터 30일까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수련회를 개최한다.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한 특강과 '108염주 만들어 법우들과 나누어 갖기'의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26일부터 28일까지 다보수련원에서 열리는 대한불교진흥원의 겨울 수련캠프도 참여해 볼만하다. 화두를 들고 하는 명상산행, 사경, 참선수련, 불교문화 특강, 인근사찰인 공림사와 채운사 참배 등으로 꾸며진다. 8년째 꾸준히 겨울 캠프를 열어온 우리는 선우도 4일부터 7일까지 전라도 주요 불교문화유적을 찾아 떠나는 겨울여행을 개최한다. 부산백련문화연구원의 겨울 수련회는 철저한 수행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26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해인사 백련암에서 초 · 중 · 고 생을 대상으로 열리는데 3천배 정진이 들어있다.

발우공양 · 명상산행 눈길
유적답사 · 독거노인 방문도

이외에도 강남 봉은사, 무진법장사, 금강정사, 화성 신흥사 등 전국의 주요사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산사 체험이 마련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겨울방학 동안 전국 사찰과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들은 다채로운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우리는 선우 동계 캠프에서 청소년들이 장기자랑을 하고 있다.

▩ 사찰 · 단체 겨울방학 수련회

사찰 및 단체	일 정	대상	전화번호
조계사	12월28일~12월30일	중고생	(02)734-8179
신흥사	12월23일~12월30일	초중고생	(031)357-2695
봉은사	12월23일~12월25일	초등학생	(02)511-6070
미황사	12월23일~12월29일	초등학생	(061)533-3521
금강정사	12월22일~12월26일	초등학생	(02)893-2700
무진법장사	12월23일~12월24일	중고생	(02)971-0303
우리는선우	내년 1월4일~1월7일	중고생	(02)2278-8672
목동청소년회관	12월26일~내년 1월11일	중고생	(02)2646-0181
부산백련문화연구원	12월23일~내년 1월3일	초중고생	(051)253-0277
디지털열린상담실	내년 1월24일~1월26일	중고생	(043)257-0807
대한불교진흥원	12월26일~12월28일	중고생	(043)833-7789
하동청소년수련관	12월17일~12월20일	중고생	(055)883-8156

주부 신행담

잘못된 인연 (下)

아이를 문제로 남편과 다툴 때마다 나는 〈금강경〉을 읽었다. 정확한 뜻을 알면서 읽은 것은 아니었지만, 속상할 때마다 방에 혼자 앉아 향을 피우면서 〈금강경〉을 나지막히 독송하면 마음 속에 쌓였던 울분이 나도 모르게 삭혀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때부터 나는 불교에 서서히 심취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도 틈만나면 경전 테이프를 들려주었으며, 부석사로 나들이 삼아 참배를 가기도 했다. 남편은 종교가 없었지만 내가 절에 가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하니까 아무말 없이 함께 가주었다.

음이 안정되자 아이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었다. 두 아이가 의견이 안맞아 싸우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게 해서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일깨워주고 상대편을 이해하게끔 만들었다. 두 아이가 싸우면 앞뒤 가리지 않고 고함부터 질러대는 것이 예전의 내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차분하게 일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다보니 자연히 집에서 큰 소리 나는 일이 적어지게 됐다. 나의 이런 변화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사람은 다름아닌 6개월 동안 묵묵히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던 남편도 나의 변화된 모습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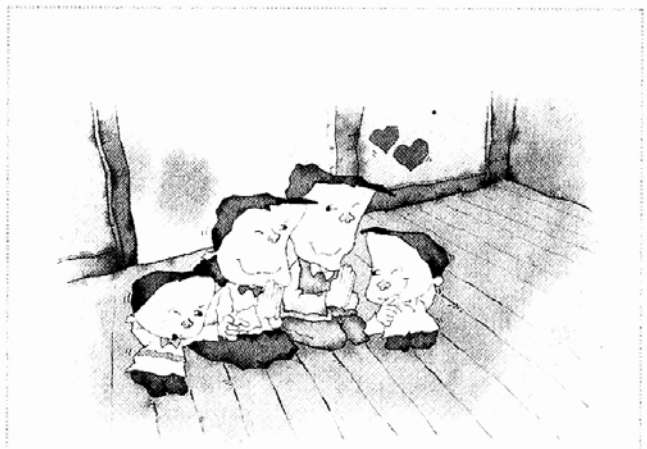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사경 · 108배로 화목 되찾아

경전 읽는 것이 재미있어지자 〈반야심경〉 사경을 시작했다. 불교 기초교리에 대한 책을 보니까 '사경은 글자를 쓰면서 흐트러진 정신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행할 때 장애가 빨리 오는 초심자들도 특별한 지식이나 가르침없이 쉽게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사경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반야심경〉을 다 끝낸 뒤에는 서점에 가서 〈금강경〉과 〈천수경〉이 적힌 사경집을 구해 열심히 써내려갔다. 사경을 하다보니 한자 한자 써내려 갈 때마다 마음을 집중하게 돼 망상이나 잡념이 없어지고 정신통일이 잘됐다. 또 주옥같은 경구들을 항상 가슴에 새길 수 있어 정신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자 아이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었다. 두 아이가 의견이 안맞아 싸우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게 해서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일깨워주고 상대편을 이해하게끔 만들었다. 두 아이가 싸우면 앞뒤 가리지 않고 고함부터 질러대는 것이 예전의 내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차분하게 일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다보니 자연히 집에서 큰 소리 나는 일이 적어지게 됐다. 나의 이런 변화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사람은 다름아닌 6개월 동안 묵묵히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던 남편도 나의 변화된 모습에 격려를 많이 해줬다. 또 불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도 내가 경전 독송을 하거나 절에 가서 기도할 때면 옆에서 함께 따라했다. 남편도 불교가 무엇인지 경전에 무슨 말씀이 들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경전을 독송하거나 절에 가서 기도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된다고 좋아했다. 이러다보니 절을 찾는 횟수도 많아졌고 네 식구가 법당에 나란히 앉아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법당에서 108배를 하면 흐르는 땀방울 속에서 법열을 느낄 수 있었다. 가족 모두가 불법의 그늘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니 모든 근심 걱정이 눈녹듯이 사라지고 화목을 되찾을 수 있었다.(끝)

이경순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㉔



• 금강법보살 수인 익히기 •



금강법보살 수인은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자연스레 맞붙이고, 나머지 손가락은 모두 곧게 펴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1. 다리를 어깨넓이 만큼 벌리고 양발이 십일자가 되도록 한다.

2. 이때 손은 금강법보살 수인을 취하고, 팔꿈치를 세워 두 손을 마주보게 가슴 앞에 둔다.



엄지 검지 붙이고
양발은 십일자로

3. '이' 소리를 내며 단전을 수축하면서 팔을 어깨 양옆으로 벌린다.

4. 단전을 이완하면서 팔꿈치를 구부리며 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와 마주보게 한다. 무릎을 쭉 펴고 기가 항문을 통해 척추로, 정수리에서 가슴으로, 다시 단전으로 통하도록 한다.

5. '뭐' 하면서 단전을 수축하면서 팔을 어깨 양 옆으로 벌린다.



6. 다시 천천히 반복해 연습한다.

유해 사이트 차단 '모야' 개발 김성진 군

2001 소프트웨어 공모전 대상



종립학교인 청담정보통신고 2학년 김성진 군이 유해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모야(moya)'를 개발, 인터넷을 통해 무료 배포한 공로로 지난 11월 '2001 소프트웨어 공모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모야'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8만8천여 개의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주는 것은 물론 자녀가 접속한 사이트를 저장해 준다.

김 군은 청소년단체에 프로그램 '모야'를 배포한 것 외에 '음란사이트 우리 손으로 없애자 연합'을 만들고 인터넷 사이트인 넷츠튠(www.netstune.com)을 운영해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스스로 컴퓨터에 미쳤다고 말하는 김 군은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차단율이 30%도 안된다는 기사를 접하고부터 '뭐야'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군이 개발한 프로그램 '모야'는 11월 29일부터 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소프트 엑스포 2001 디지털 컨텐츠 페어 전시회'에서 전시됐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 단신

소년합창 · 무용단원 모집

대한불교 소년소녀 합창 · 무용단(단장 황학현)은 16일까지 초등학교 3년부터 중학교 2년을 대상으로 '제9기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오디션은 16일 오후 3시 불교교육연구원 연습실에서 열리며, 오디션 곡목은 '겨울나무'다. 접수는 14일까지 불교교육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02)725-7527

'달마야 놀자' 원만회향 법회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는 4일 '달마야 놀자'가 상영되고 있는 명보극장 앞에서 '달마야 놀자 원만회향 문화법회'를 열었다.

2백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영화 관람에 앞서 반야심경봉독, 법문 등이 펼쳐졌다. 정우식 회장은 "이번 법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영화는 물론 연극, 음악회 등 뜻깊은 문화행사 관람과 함께 법회를 자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신간

아! 일타 큰스님

참선과 교학과 계율을 두루 통달하셨던 일타 큰스님의 일대기와 가족 41명의 출가기



얼굴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태양을!
큰스님께서 살아 생전에 남기셨던 말씀을 바탕으로 과장됨이 없이 진솔하게 엮었습니다.

소설보다 더 재미있고 극적인 큰스님의 수행담을 읽다보면 기도 · 참선 · 경전공부의 방법을 체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비보살 일타 큰스님이 함께 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신국판/ 값 5,000원

■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신국판/ 값 5,000원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신국판/ 값 5,000원

우룡 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 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구성〉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천수경 천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참뜻,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준제진언, 여래십대발원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어, 불자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7,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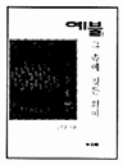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지기를 돌아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야운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현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끔한 말씀으로 빛을 들이켜 스스로를 비춰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제 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책.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과 지장염불을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방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업장소멸 소원성취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믿음 강하면 한 생각이 곧 결정력 돼

올바른 장례방법 알고 싶어요

문 스님의 귀하신 말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바른 장례의 방법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들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화장이 좋지 않다고 하는 말도 들은 터라 무척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좋은 장소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산을 깎아서 묘를 쓰고 그렇게 해야 만이 조상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관습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잘 파악해서 행하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름도 달라졌고 땅덩어리도 좁아졌고,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아직도 그렇게 한다면 차에다 싣고 금방 갈 것을 마차에다 싣고 느릿느릿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지금대로 생각이 달라져야죠.

요즘은 곳곳에 화장을 해서 유골을 모시는 공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내가 하고 싶으면 그대로, 우리가 지 · 수 · 화 · 풍으로 뭉쳐진 거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 밝게 불 밝히고 향 사르고 주인공에 다 맡기면서 위패를 다라니에 싸서 탑에 올리고, 한 가정에서 탑 하나만 마련하면 대대로 들어가고 되 들어가니 돈도 안 들고 후대로 내려가면서 관리하기도 좋고 후손들에게 부담감도 주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손들한테 산으로 찾아다니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부모들이 염치없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사람이 사는 도리에 맞추어서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먹은 대로, 시대를 잘 봐서 돌아가는 대로 하세요. 그게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골을 상자 같은 곳에다가 전부 모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유골을 전부 모신다 하면 이 공부를 영 모르시는 분들이죠. 그건 산소에 갖다 그냥 모시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자손들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탑에 모시는 것과 마음의 도리를 모르고 그냥 탑에 모시기만 하는 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탑에다가 뼛가루를 넣는 것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섭섭하실까 봐 세 번씩 요렇게 손으로 꼭꼭 집어서 넣으시라 한 거는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한해서죠.

그리고 탑에 들어가는 영령들은 어떡하든지 자유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거처라고 생각하고 항상 거기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모여서 토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모셔 놓은 탑들은, 그런데 공부를 안하고 있다가 그냥 탑으로 모신다 하더라도 사찰에 모신다면 염불소리 듣게 되고 그러는 거죠. 모두가 그렇죠. 그러니 다른 점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영원히 세세생생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산다는 점입니다. 마음공부를 하면서 탑에 모시게 되면 항상 마음 공부하는 분들도 영령과 둘로 하지 않고, 내가 밥을 먹어도 그 부모와 같이 먹는 거라는 얘기죠. 뭐든지 같이 하니까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함이 없이 하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지 자식을 안 되라고 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서린 마음이 한마음으로, 공심으로 하는 거고 공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共生)이면서 공심(共心) 공체(共體) 공용(共用) 공식(共食)으로서 산다고 했습니다. 공생이라고 하는 건 종자가 같다는 얘기죠. 때로는 탑에 모실 때에도 영령이 본래 착한 분, 마음 공부를 안했어도 본래에 착한 분들은 그냥 훌훌 벗고 떠나세요. 떠나셔도 거기에 근거지가 있으니깐 항상 무슨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다면 같이들 모이죠. 이렇게 하는 도리, 이런 도량이라는 뜻입니다.

마음공부를 해서 벌써 먹는 거 입는 거 모두를, 모습이 공했다는 걸 알고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그냥 다 벗어버릴 수 있으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아무 곳에나 모시게 되면 영령들이 때에 따라서는 집으로 들고 그러는데 이걸 말로 어떻게 하리까. 조금만 잘못해도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이 살면서 부모 조상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지, 알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탑에 모시는 조상님들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문제죠. 그래서 탑에 모셔 놓고 꽃 한송이를 들고 가서 공부의 도리를 같이 한 자리하자고 하면서 염원하고 오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어느 거든지 다 종자가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지만 종자가 다 있어서 끼리 끼리들 모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금강과 같다고 하죠. 금과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림 · 최주현

자식이 잘못할때도 주인공 똑같으니 마음의 불이 들어오게 이끌어 줘야죠

하고 싶은 일 잘 안될때 놓는법

문 얼마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입니다. 정말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한마음 홈페이지에서 '길을 묻는 이에게'를 읽으며 다시 관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제가 왜 제 뿌리를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인공 공부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스님, 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요즘은 이렇게 관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난 잘 모르겠으니까 되게 하는 것이 주인공 뜻이라면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 뜻이라면 안되게 하라' 구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것을 주인공 뜻으로 알고 놓을 수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루기 위해서 주인공에 다시 관하며 노력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더 배워가야 할 점도 많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 그렇게 하면 더더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뒤집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보통 그냥 살림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고 정말 급하다, 내일 일을 모르고 내년 일을 모르는데, 결정을 지어야 할텐데 이거 큰일났구나. 결정지어야 하는 이 문제가 인생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결정지을 수가 없을 때 생각해 봐서, 세계적으로 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결정을 탁 지어서 놓으면, 무슨 몸에서 뭐 모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결정 짓는 거예요. 그럼 거기 포함이 되죠.

그러니깐 믿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진짜 믿는다면, 그냥 던져놓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하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금방 죽는다 해도 참 편안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해서, 자리를 못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를 정말 믿으세요. 과거 자기를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고 그렇게 결정지으면 금방 그게, 얼른 쉽게 말해서 구정물인데 맑은 물로 화해서 우리가 목이 마를 따,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게끔 무조건 따지지 말고 좋게 살 수 있게 결정을 지세요. 모든 거를 다.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결정짓고 살수가 있나 하지만 상대방에서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게 거짓말인줄 알지 말고 안되든 되든 무조건 해보세요. 무조건 해 나가면 몸과 마음에 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법이 있었던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루 종일 울다가 땅을 내려다보고 웃게 돼요. 이렇게 근중한 법이, 이런 법이 있었을까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는 하염없이 눈물 흘리다가 냇물 흐르는 걸 보고는 너무 웃음이 나서 웃었대요. 이렇게 인생이 물 흐르는 거 같은 거를 가지고 내가 발버둥쳤구나 하는 생각에서요.

그러니까 생각으로서 언제나, 앞으로 미래도 생각지 않고 또 살아나가는 데도 이 공부가 뭔지도 생각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도예요. 삶음이 도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딱 자리가 뒤집어진 사람은 그게 바로 도예요. 바로 놓는 거예요. 뒤집어진 자리를 바로 제자리에 세워 놓는 거죠.

이 도리를 말로만 듣고 경험을 못한다면 참 억울하기가 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열심히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내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무조건이에요. 나는 그냥 나다 이러더라도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다는 거, 동자가 있다는 거, 동자를 키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꾸 해봐야 키워지죠. 그러면 그 동자하고 자기하고 둘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 군데가 다 통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해 봐야 이렇구나 하고 눈물도 저절로 나오고, 웃음도 저절로 나오고 기가 막혀서 껄껄댈 수도 있고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마음가짐

문 그동안 여러 스님들께서 마음 내어주신 덕분에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다보니 절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임신 중에도 시간이 되는 한 스님의 법문테이프와 한마음요전 그리고 선법가를 늘 가까이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관을 하면서 아가에게 '널 이끌고 나온 것도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을 믿고 절실하게 관하면서 이 우주법계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 되라' 고 늘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물론 태어나서 두 달이 된 지금도 잠자리에 들기 전 관하면서 '아이와 내가 둘이 아니듯 이 글을 읽는 것도 그 자리니까 전달이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야' 하면서 아이한테 「한마음요전」을 읽어줍니다. 때로는 선법가도 불러주고요. 하지만 좀더 아이한테 구체적으로 주인공자리를 알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을 내어야 하는지요. 스님의 가르침 바랍니다.

답 여러분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지간에 애로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애로점을 어떻게 해야 만이 슬기롭게 방지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불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단에 가야만 부처님 법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있으니까 부처님도 계시고, 한 분 한 분 계시니까 부처님 법도 있는 거고, 한 분 한 분 계시니까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식구라고 한다면 생명의 근본은 그 한식구가 똑같습니다. 전력이 똑같듯이, 안 그렇습니까? 팔만대장경에 어렵게 한문으로 나와 있는 것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지금 가정에다가 맞추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부처님 법이니까요.

모든 생명은 똑같은데 모습은, 전력은 똑같이 흘러도 전구는 전부 다르죠? 여기는 요런 것, 저기는 조런 것 방안마다 전부 다르네요. 한방 식구가 다 같은 가족이지만 모두가 제각각 생겼듯이 말입니다. 크면 큰 걸로 전력이 좀더 들어올 뿐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전력이 덜 들어올 뿐이죠.

그런데 주인공은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만질래야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보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전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쟤는 쟤고 나는 나고" 요렇게 각각 본단 말입니다. 전력이 다 똑같은데도 저건 저것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력이 어떻게 하나인 줄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식이 어떻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가서 안 들어오고 공부를 안하고 그래서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 "들어오기만 해 봐라. 요놈의 새끼 가만 놔두나."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다섯 식구든 여섯 식구든 살아나가는데 어느 누가 잘못되면 그냥 죽일 놈 소리가 허영 나옵니다. 그러고 자식이 잘못하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러면 좀 따뜻하게 대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아예 폭력이 먼저 나갑니다. 그럭하면 안 되죠.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나가면 '아이고, 추워. 집이라고 좀 따뜻한가 하고 들어왔더니 더 춥네.' 그러고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저 전력도 내 전력과 똑같으니까, 저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똑같으니까 당신만이 저 애를 이끌어 갈 수 있어." 하고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 맡겨 놓았다면 굳이 입으로 속상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 배 안 고프냐. 나갔다 들어와서 피곤하지 않느냐. 어디서 그렇게 지냈니?" 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면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가도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따뜻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귀가 뜨이고 눈이 열려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 마음의 불이, 전력이 둘이 아니니까 불이 들어올 수 밖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서 기르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또 가정의 모든 애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어려서는 문제가 많지 않지만 요즘 청소년들 문제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똑똑히 잘 알고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얘기만 듣는 삼자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력이나 내 전력이나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부부지간이든 자식이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돼 있는 거를 닥치는 대로 맡겨 놓고 아리땁고 알뜰하게 잘 다독거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합니다.

한 식구로 만났는데 어떻게 조건이 있이 사랑을 합니까? 식구라면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지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이익을 취해서 자식을 기릅니까? 그렇진 않죠? 자식이 잘돼서 잘 살기만을 바라고 부모는 자식을 기릅니다. 그러니 내내 그런 생각이 변치 않고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어떠한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설사 강도 짓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잘못됐다고 내색을 하지말고 모든 것을 마음으로 부드럽게 해나가라 이겁니다. 그러고 주인공에 맡겨 주면 아이의 마음 전구에도 내 마음 전구에도 불이 들어오게 되니 심지가 올라와서 불이 환히 들어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질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르신다면 반드시 올바르게 자랄 것입니다.

지옥과 극락도 내 한생각이 만드니 무한한 능력 가진 참 자기 믿으세요

기독교 '종'과 불교 '시자'의 차이

문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불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사물들의 실체를 바라보려고 나름대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소리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일에 임할 뿐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에 대해 문득 궁금해지기를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스님들께 자주 듣게 되는 "나는 주인공의 시자일 뿐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일임한다"라는 가르침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는 점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고 '주인공의 시자'가 지닌 뜻을 같은 의미로 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인지 질문 올립니다.

답 물감이 열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열 가지를 한데 모아서 물감이라고 하지만, 이건 비교해서 얘기예요. 열 가지를 통틀어서 물감이라 하지만 색은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물감을 쓸 수도 있고 저 물감을 쓸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쓸 때 물감이라고 하겠느냐는 거죠. 이런 거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어머니를 만날 땐 자식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죠? 아내가 남편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남편을 만나는 마음으로서 대하죠. 동생을 만났을 때는 내가 동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형으로서 대하고, 친구를 만났을 때는 친구를 만나는 마음으로 대해요. 그게 바로 나툼이에요. 색은 여러 가지이지만 근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근본 하나가 이 색을 쓸 때에 나라고 하겠느냐, 저 색을 쓸 때 나 라고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평등공(平等空)이라고 그래요. 열 가지를 다 쓰지만 어떤 걸 내세울 수 없는 게 물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내세울 수 없는 게 보살이라는 겁니다. 자기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게 보살님이죠. 나투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바퀴가 굴러가면 심봉은 꿈적도 안하고 능력만 줄뿐이죠. 심봉이 움죽거리는 건 아예요. 바퀴가 구를 뿐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지금 나투며 살면서도 고정적인 일 해보셨어요? 이날까지 고정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먹고, 한가지만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인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먹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것이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한데 뭉쳐서 그냥…, 만약에 비교해서 에너지라면 에너지가 그냥 전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니 나니 하고 따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종교가 틀리니 저 종교가 틀리니 하고 따지거든요.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종지가 있고, 접시가 있고, 대접이 있고, 컵이 있고 차관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때에 따라서 다 쓰여지죠. 때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발은 종지를 미워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또 사발은 큰 그릇을 위로 보지도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못났다 할지라도 잘난 사람만 못한 게 아니라 잘난 사람보다 못난 내가 더 귀중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비교해서 또 한 마디 할까요. 엄마가 아무리 못났어도, 코가 언청이라 해도 아마 잘생긴 남의 어머니보다는

☞ 20면으로 계속

부처도 예수도 참자기와 한통속

☞ 19면에서 계속

내 어머니가 더 소중한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자기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고 무르익어서 맛이 나는 거지, 딴 나무에서 무르익은 것은 딴 나무에서 무르익은 거지 내 나무에서 무르익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각자 내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부처님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지 믿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똑바로 얘기해서 자신을 믿어라, 각자 내 자신을 믿으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내 자신을 믿으라고 했다면 각자 내 자신이지 그 분을 믿으라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믿으면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 부처도 예수도 어느 생명 안 들어간 게 없네요.

그런데 이것저것 마음으로 갈라놓고 또 이것저것 자기 마음으로 지어놓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나오려고 울기도 하고, 지금 여기 현상세계에서 지옥, 천당을 다 왔다갔다하죠. 한 생각이 지옥을 만들고, 한 생각이 바로 천당을 만들고, 한 생각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고, 한 생각 잘해서 이름이 나고 빛이 나거든요. 그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갖다줘서 하는 겁니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뺏어 갑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자기가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 참 자기는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 이겁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잠재해 있는 원소 자체의, 실상의 주인공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도 '부(父)와 자(子)가 둘이 아니니라' 이런 것이 거기 그렇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의식으로써 생각하는 것은 자라고 하고, 잠재해 있는 의식 자체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크다 작다 이런 논리가 없어요. 우리가 빼서 쓸 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로 가면 부로 하나가 되고, 부가 자로 오면 자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뚱이는 생리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그림자로 따라 다니는 거 뿐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선 종이라고 하고, 불가에서는 현재 자기를 시자라고 하지요. 몸은 시자요, 무(無)의 세계의 자기 정신력은 자기 주장자라고 하기도 하고 '자불(自佛)'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은 그림자와 같은 시자
無의 세계 정신력이 自佛

왜 선사들은 고기 먹어도 되죠

문 부처님께서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시길 고기를 먹으면 자비종자가 끊어지고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다 하셨는데, 한마음 불교방송국에 올려져 있는 불살생계에 대한 글에서는 고기와 한마음이 되면 먹을 수 있다고 써있더군요. 특히나 천도할 능력이 있는 선사들은 먹어도 된다는 부분이 너무 제 생각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글이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답 거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옛날에 선지식들이 길을 걸을 때는 발 밑에서 벌레가 하나 죽어도 그냥 환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런데 어떻게 동물만 생명이 있고 식물은 생명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식물을 먹었다고 해서 계율이 깨지지 않고, 동물을 먹으면 그 계율이 깨진다고 해선 안 됩니다. 그거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동물이 동물로 보이면 못 먹는 겁니다. 동물이 동물로 보이면 못 먹고, 동물을 자기와 같이 물로 보지 않게 되면 먹는 겁니다. 그것이 자격이 있고 없는 데 달려있는 거지 계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디 가든지 편안하고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걸림 없이 그냥 편안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냥 편안하기만 해서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겠지만,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다는 그 말에 모든 공식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국의 절에 한국 스님네들이 갔더니 그 절의 스님께서 그러시더래요. 태국에서는 탁발을 하면 고기든 뭐든 가리지 않고 스님들께 정성껏 올리니까 시주님들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와서 공양을 한답니다. 그런게 한국에서 온 스님네들이 같이 탁발을 해 왔는데 고기가 들어있다고 먹지를 않으니까, 그 스님께서 "가는 거 잡지도 말고 오는 거 마다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스님들께서는 가고 오는 인연에 얽매여서 어떻게 부처를 이루려고 하십니까?"라고 했다고 하더래요.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허투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 팔만대장경의 뜻이 그 속에 다 들어 있다고 봐야죠. 어느 나라는 이거를 먹고살고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러는 것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생명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간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모든 것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지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를 떠나서 가는 인연 잡지 않고 오는 인연 막지 않으면서 자유스럽게 사신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마음공부 하시는 분들, 때에 따라서는 깨우쳤다고 해서 그것이 다 환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야즐을 잡고 진짜로 자기 뿌리를 믿고 가는 분에 한해서는, 어떤 가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닭을 잡는다든가, 뭐 돼지를 잡는다든가, 소를 잡는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반드시 관(觀)하고서 한다면 그 모습이 싹 없어질 수도 있고, 믿고 관하는 사람에 따라서 반만 벗겨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 소가 끌려가는 걸 보면, 그 큰 눈을 끔벅끔벅하고 갈 때 말입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할 때 꼭 내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것 같습디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와 둘이 아닌데, 저걸 도살장에 끌고 가서 죽인다면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죽이는 법이 없거든요. 애를 쓰고 죽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두 가지를,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아프지 않게 죽게 한다, 그 모습을 해탈을 시킨다, 그리고 어디다가 그 종자를 심어서 싹이 나오게 한다, 이게 모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눈물겨운 얘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미생물까지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 되기 때문에 낙(樂)도 아니고 고(苦)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하는 그 뜻을 여러분이 잘 잡수세요. 말을 잡숫지 말고 그 뜻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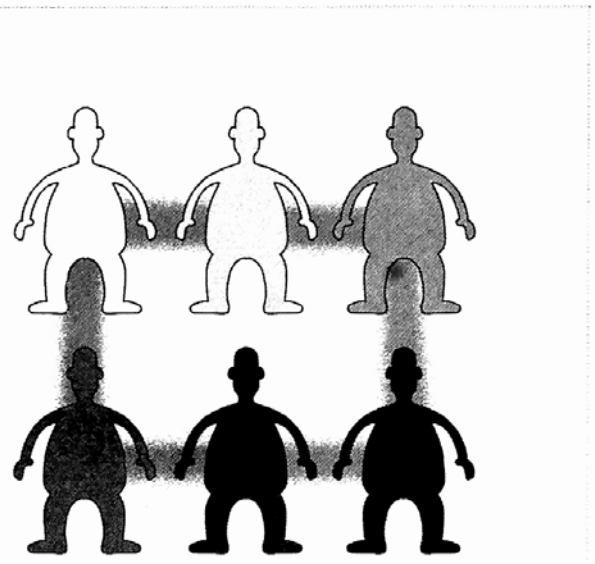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거센 비바람과 폭풍도 마음 다스리고 그릇 커지도록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인줄 알라"

한생각 내면 사회악 없을텐데

문 마음의 도리가 무한광대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과 같이 사회, 경제, 도덕적으로 무척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공부하신 분들이 한생각을 낸다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해결되지 않고 자꾸 나빠만 지는지요?

답 사람이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개발해야 할 문제나 시정해야 할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돌아가요. 아니, 그런 일을 겪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시정하고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두 보고 듣고 자기가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변해 가지고 '아, 이거 잘못됐다, 시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자꾸 변해서 돌아가는 게 진리예요.

그런 경험도 다지지 않고 그냥 성장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러는 걸 그렇게 되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폭풍을 자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폭풍이 일어남으로써 그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러는 반면에 '어이쿠, 이거 이런 거구나.' 하고 다시금 깨지고 부서지게 안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언젠가는 크게 곪아 터져서 잘못되면 그땐 건질 수도 없이 돼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고생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또 풍비박산을 내서 날려보기도 하고 그래야 그걸 경험 삼아 자기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또, 오래 한 사람은 앞에서 비켜나라 한다면, 지금도 머리가 둔하니까 비켜나라 한다고 해도 그것도 자연적으로 제 발로 나가게끔 돼 있는 거지 그거 억지로 남을 내쫓고 한다면 원한이 생겨서 나라의 식구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도 놓고, 무엇이 바뀌어져야 여러 사람에게 더 좋겠다 하면 그것도 그 자리에 진실하게 놓고 지켜본다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 바가 있으리라 봅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유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큰스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범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8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플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양로원의 여러 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天藥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6-4422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구운 마늘환
100% 토종 구운 마늘
- 심한 피로 / 정력 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 / 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 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직접 사찰 (인법당) 운영
하시면서 수행 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충남 아산 온천 부근
011)701-014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부산
051)542-463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인연을 바랍니다
▷ 경기도 가평
031)585-1502

조계종 미륵당 고불사
- 석조여래 약사대불 본당
- 서울교당 불지촌
- 기체험 기치료 인생상담

041)566-0358
02)3444-4376
역학, 선체조, 기공문도 모집
www.bulljichon.com

고급 보이차
廣雲貢餅 · 七子鐵餅
外 각종 보이차 전문
017)406-6682

원조 농산 (어성초 · 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 삼백초 차 (건조 600g) **4인가족 1달분 4만원**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증가, 뇌졸증예방, 중풍 · 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당뇨, 혈압 등
서울지사 02)508-0867 011)479-0633 **대리점 모 집**

임오년 입춘 삼재부 다라니 보급안내

소승이 수십년간 다라니부 사경으로 나누어 지닌 본들이 가피를 얻어, 금번 임오년 입춘을 맞이하여 삼재 소멸부 다라니를 각사찰 주지스님께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액파 달마스님(13×15)도 경영으로 조성하여 드립니다.
▶ 주문시 : 5백장, 1천장...(1장당 천 5백만원)
• 문의전화 : 031)334-0321 / 018)572-2016
• 온라인 우체국 : 102301-06-005928 예금주 박호재
다 라 니 수 호 회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강원도
033)436-6611

-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 공양주나 함께 사실 보살님 찾습니다.
- 기도하실 처사님도 찾습니다.

055)552-7979
011)855-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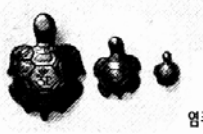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4)833-2324

사찰 (급) 안내
- 위치 : 광주시내 중심가 교통요지, 등림산 중턱
- 2층 법당, 1층 유치원, 요사채, 천불 모시고 있음
- 대지 : 330평 • 가액 : 6억 (절충가)
- 전세도 가능

011)633-8450
062)368-8450

효도상품 - 부모님께 건강을 찾아드리세요!
木목酢초 수액원기시트 의약품 외 食
체내에 독소 배출 몸안에 독소는 만병에 근원

특허 류마티스, 관절염, 목, 어깨결림, 허리, 무릎통증, 교통사고 후유증, 징기간 약물 복용하시거나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시리고 쑤시는 분, 산후조리 및 지고 나면 손발이 붓는 분
◇중 풍 : 마비가 온 손발의 부기가 빠집니다
굳어진 근육이 풀리며 불편감이 없어져 몸이 기분합니다.
삼보기업
TEL : 02)2279-2715 H·P : 011)397-2715

소원이 성취되는
벼락맞은 대추나무

지리산에서 600년된 神木 진짜 벼락을 세번이나 맞은 영험이 있는 보물중에 보물
염주 6만원 단주 5만원 언감도장 5만원 개목 大 5만원
수명장수, 결혼성혼 * 회업성취, 시험합격, 결혼성혼, 가정화합, 사업번창, 건강쾌차, 매매, 사고예방 간절한 한가지 소원이 있는 분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 집니다.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진 행운의 벽조목!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011-9585-4908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 평수 : 약 400평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가능
- 비구니 스님 적합
- 시설비 없음

016)441-009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영산 강변
- 법당시설 A급 3층건물 모두 사용 방 10개 공양간 3개
- 부속 독채 별도 있음(방2, 공양간, 목욕탕)
- 특징 : 호남 금문교 영산강변을 선창 형성된 경관 수려한 곳
- 시설비 : 3000만원
- 보증금 : 1000만원 월 50만원

016)639-9167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8금강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십왕탱 현왕탱 나한탱(오백나한) 신선탱 용왕탱 독성탱
◇ 무속중합탱(리중즉지)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TEL : 041)541-3545 H · P : 016)751-3545
홈페이지 : www.bongen.p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2000여장을 보실 수 있읍니다)
불 모 오 재 택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개발 벤처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국내 최초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황토 베개 개발
※ 전국 대리점 모집
(주) 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영 가 천 도
묘지(墓地) 및 각종 집악령(執惡靈) 영가들에 의한 정체불명의 고질병 및 가정과 일신상의 모든 우환. (神病, 神氣)에 관한 영가문제를 신도(본인)의 입으로 영가가 원하는 사항을 직접 말하게 혀여 100% 해원(천도)을 끝까지 보장하며 만약의 경우 환불까지도 100%책임지겠습니다.
성 불 하 십 시 요
갓난애기 작명 무료 보시 합니다
051)312-5698 / 017-508-5087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고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 평수 : 242평
- 건물 4동 (요사채 2동, 산신각, 대웅전)
- 가액 1억

055)391-5369
016)772-5369

포교당 안내
- 위치 :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6-5 팔달산 산책로 입구
- 평수 : 25평 • 시설비 500만원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가격절충

031)248-0435
011)9762-2286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580평 법당 15평
- 삼성각 4평 요사채 35평(현대식)
- 특징 : 산세와 계곡이 잘어우러진 명당터 임, 교통편리
- 가액 : 1억 2천만원 (교환가능 함)

043)832-4785

찬불가 피아노 렛슨
피아니스트 도연
◇ 직업연주반 ◇
피아노 전공자만 가능 에드립 및 재즈와 클라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피아노과 입시생 실용음악과 입시생 ◇
◇ 찬불가 합창반주반 ◇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재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도연피아노학원
02-741-2214/018-272-2815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종로 3가 지하철 앞 (1.3.5호선)대각사앞
참장연주(법회 · 산사 유악회 · 결혼식) 피아노 반주자를 보내드립니다

- 충 농 증 -
만성 급성 비염 수술 후유증등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충농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신도님께 상담 후 완치시까지 치료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 805-2번지
지장 포교원 석지장 합장
• 상담전화 : 031)376-0025 / 031)372-2747

포교원(급)양도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49평 2층, 독채대문
- 법당 A급, 주방, 거실, 큰방 2칸
- 보 600(월40)+시설비 2000
- 집기물 제공, 몸만오면 법회

011)458-29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온천장 중심지
- 법당, 큰방, 주방, 응접실
- 평수 45평
- 포교에 뜻이 있으신 분
- 직접 만나 상담

011)563-4454

사찰(권) 안내 전문
- 양도를 원하신는 분
- 조용한 절을 인수하실 분
- 좋은 터에 절 지으실 분

※ 즉시 전화주세요 절대보안유지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에 오시면 영남지방의 다양한 사찰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풍수부동산써브
박 창 순 합장
018-563-9575

사찰 안내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읍내에서 5분거리
- 법당 22평, 산신각 5평
- 창고 8평 요사채 40평
- 특징 : 남향 임법당으로 단청 하였슴
- 가액 : 1억 3천만원

017)845-7090

다도명상법 강좌
- 茶에 대한 기본교육(차마시는 법등)
- 차를 통한 명상법 강의
- 1박 2일, 2박 3일 과정
- 여행 + 교육(숙식제공) • 대상제한 없음

055)883-9321
지리산 다도학당 (영목다헌)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3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억 5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절,암자,연수원,별장 최적지
- 위치 : 경남 함양군 병곡면 천해의 자연경관으로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명당터
- 부지 : 1,017평
- 도로와 계곡이 접하고 있으며 자연석돌이 많고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1)570-131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 바로 옆
- 평수 : 20평
- 전세 : 20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300만원

051)516-0650
017)252-2722

봉인사 위빠사나 수련회

◈ **12월 · 1월 위빠사나 수련회** ◈

회 차	날 짜	기 간	동참금(원)	회 차	날 짜	기 간	동참금(원)
1차	12월13일 ~16일	3박 4일	70,000	아봐타	1월 5일 ~13일	8박 9일	합동코스(2백만) +(숙박비20만)
2차	12월17일 ~23일	6박 7일	120,000	4차	1월15일 ~20일	5박 6일	100,000
3차	12월24일 ~30일	6박 7일	120,000	5차	1월21일 ~27일	6박 7일	120,000
어린이 수련회	12월28일 ~30일	2박 3일	30,000	6차	1월28일 ~31일	3박 4일	70,000

◈ **2월 위빠사나 수련회** ◈

1차	2월 1일 ~3일	2박 3일	60,000	3차	2월18일 ~24일	6박 7일	120,000
2차	2월 4일 ~9일	6박 7일	120,000	4차	2월25일 ~28일	3박 4일	80,000

▷ 지도 : 김열권 ▷ 입실 : 오후 4시 ▷ 퇴실 : 오후 2시
▷ 참가자 준비물 : 수련하기에 편안한옷, 개인세면용품
"위빠사나2" "위빠사나 12선사" "보면 사라진다"를 읽고 참가요망
▷ 6박 7일중 3박4일도 가능
▷ 체질개선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사마타 호흡, 단식겸함(희망자에 한함)
▷ 6박 : 15만원 ▷ 3박 : 10만원
▷ 주말수련도 겸합니다.
▷ **참가자는 종무소 031)574-5585 미리 신청바랍니다.**
▷ **국민은행 : 277-25-0000-906 (봉인사)**
※ **기도하시면서 후원에 봉사하실분 연락주세요.**

봉 인 사 한 길 정 진 원

사 찰 안 내
사찰전세
- 위 치 : 서울시 관악산속(과천)
- 부 지 : 임야 10,000평
- 법 당 : 인법당 • 요 사 : 단층 25평
- 보증금 : 5천 전세임 • 시설비 : 7천

※ 산세가 좋으며, 계곡있음 과천 정부청사 5분거리 지하철역에서 10분거리

포 교 당
- 위 치 : 서울시 강북지역 (지하철역 200m거리)
- 법 당 : 50평
- 요 사 : 방 4개
- 보증금 : 6천/월400,000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도심포교당으로 역시 깊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임지 양도, 양수찰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은평구 연신내 4거리 지하철 2~3분 거리
- 평수 : 32평
- 보증금 3,500만원 월 30만원 몸만 들어 오시면 됩니다.

02)388-7041

사찰 안내
- 부지 : 일만평
- 용도 : 사찰 및 사회복지시설
- 위치 : 관악산 사당역 부근
- 자연녹지 주거지역
- 가액 : 평당 25만원

011)241-040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동해안) • 위치 : 강원도 • 위치 : 화정지구
- 법당 : 27평 • 법당 : 8평 • 법당 : 45(포교당)
- 요사 : 30평 • 요사 : 75평 • 요사 : 35평
- 부 지 : 230평 • 부 지 : 7,500평 • 임대층평수 : 100평
- 가 액 : 2억 8천 • 가 액 : 4억 3천 • 가 액 : 5500/5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계명산
- 대지 : 250평
- 법당 : 30평, 2층 정자 30평 (요사채겸) - 조립식
- 가액 : 임대료 300만원 월 30만원
- 특징 : 교통편리, 장승확보(다량) 법당안 그림 100여점(달마그림)

043)847-2545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3억 5천만원

011)678-7691

사찰 양도 안내
- 대지 : 159평
- 건평 : 1층(요사채) 50평
- 법당 : 2층(목조,단청,보집) 30평
- 산신각 : 2평(목조,단칭)
- 부속건물 : 10평
- 가액 : 9억
- 특징 : 도심의 숲속으로 자연경관 수려, 전통사찰, 기도 영험 도량, 지하 150m 암반수
- 부지 : 3,000평
- 법당 : 10평
- 산신각 : 3평
- 요사 : 15평
- 가액 : 4억원
-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의 시내 인접지역으로 깨끗한 물과 계곡이 어우러진 자연청정지역 • 청정 수림 도량 • 대중교통 인접 지역 • 약수물

사찰정보센타 **금강기획** 전화 : 02)736-3578~9 fax : 736-3589 휴대폰 : 011-789-22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양정동
- 평수 : 25평, 옥상, 베란다 사용 가능
- 보증금 + 전세금 : 1,800만원 월 20만원
- 10년동안 운영했던 곳 즉시 법회 가능

스님 건강 관계로 양도함
보살님이나 철학관 운영 가능
051)868-8011
011)550-4425

사찰 안내
- 위치 : 분당구 구미동
- 법당 : 100평
- 보증금 6천만원 월 200만원
- 시설비 일체 완비
- 방 3개
- 법회 즉시 가능
- 특징 : 주차장 50대 주차가능

011)707-5552

참배인파 30만 '불교혁명' 발원

인도 암베드까르 박사 45주기 추모법회

불상 · 초상화 거리 장엄
각주 대표 포교활동 보고
힌두교 탄압행위 우려도

인도의 불자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 집결지는 인도 제1의 도시이며 불자 정치인들의 주된 활동 무대이기도 한 마하슈트라주 뭄바이(Mumbai). 12월 6일은 인도 불가촉천민의 아버지이며 이들을 불법의 길로 이끈 암베드까르 박사가 열반에 든 날로서, 인도의 불자들에게는 의미 깊은 날이다. 이 날 암베드까르 열반 45주기 추모행사가 거행된 짜이띠야부미(Chaitya Bhumi: 사원의 땅)가 있는 뭄바이의 다다르(Dadar) 지역은 꽃으로 장엄된 불상과 암베드까르의 초상화를 마련해 놓은 거리의 법석, 수많은 인파와 불교기를 내건 행사차량들로 축제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다.



◇인도 뭄바이시 짜이띠야부미에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암베드까르 박사 45주기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룬 불자들.



이지은 통신원

인도 델리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짜이띠야부미는 1956년 암베드까르 박사의 다비식이 거행된 장소로, 이후 다비식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그마한 법당을 짓고 남방불교에서 사원을 의미하는 '짜이띠야' 라는 이름을 붙였다. 당시 암베드까르 박사가 숨을 거둔 곳은 델리의 자택으로,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완성되어 출판을 준비중이던 '붓다와 그의 법(The Buddha and His Dhamma)' 원고가 펼쳐진 채였다. 박사의 시신은 델리에서 항공편으로 뭄바이에 있는 그의 본가(本家), 라자그라하(Rajagraha: 왕사성)로 옮겨졌고, 다음 날인 7일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박사의 서거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하층민들 50만명이 운집하여 3km가 넘는 행렬을 만들며 운구에 동참하였다.

박사의 열반 이후 매년 기념되었던 기일은 올해도 변함없이 지켜져서 많은 불자들이 불법을 인도땅에 다시 펼친 그의 뜻을 기렸다. 4일부터 짜이띠야부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쉬바지(Shivaji) 공원에는 천막이 쳐지고 각지에서 불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5일 자정이 지나자 마자 추모법회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추모법회에는 주로 마하라슈트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스님들과 이 지역 불자 약 20만명이 참가하여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부처님전에 암베드까르 박사의 명복을 빌었다.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이 곳을 참배한 인원만 해도 30만을 넘어선다. 법당 안팎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되어 쉬바지 공원에 가설된 대형 스크린과 TV 수상기를 통해 신도들의 참배모습을 실황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저녁 6시경부터는 짜이띠야부미 앞의 공터에 자리를 마련하여 암베드까르 박사가 살아생전에 창립한 인도 불교협회(Buddhist Society of India) 주최로 추모집회가 열렸다. 추모집회에는 인도 불교협회 회장이며 암베드까르 박사의 며느리이기도 한 미라따이 암베드까르(Miratai Ambedkar)여사와, 불교정당인 공화당 국회의원이며 박사의 손자인 쁘라까쉬 암베드까르(Prakash Ambedkar)씨를 - 비롯, 인도 불교협회에서 승가를 대표하고 있는 샹기 샤샤끄(Shangi Shashak)스님, 샹가빨(Shangapal)스님, 인도 불교협회의 임원들과 각 지역대표 등이 참석했다. 매년 행사에 참석해 오던 암베드까르 박사의 미망인은 아흔의 나이로, 현재 와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귀의와 간단한 예불로 시작된 모임은 회장인 미라따이 암베드까르 여사의 개회사로 이어졌다. 상기 샤샤끄 스님은 법어를 통해 암베드까르 박사의 유지를 이어받아 '불법을 통한 혁명'을 이룩하자고 역설하며, 부처님께서 '대중에 의한 정치'를 얼마나 찬양하셨는지 부처님 당대의 공화정 체제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각 주 대표자들은 각 지역에서의 포교 활동과 불교도 권리 신장운동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까르나따까 주 대표는 미라따이 암베드까르 회장에게 불교포교 기금으로 써 달라며 지역에서 모금한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많은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선 쁘라까쉬 암베드까르씨는 힌두 원리주의 정당과 단체들의 횡포와 소수종교탄압을 비난하며, 지난 11월 초 델리에서 있었던 개종식 행사에 대한 힌두교도들의 조직적인 방해공작과 아직도 시골 마을에서 심심치않게 되풀이되고 있는 하층민들에 대한 폭력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 불자들의 뜨거운 불심을 하나로 묶어낼 만한 제2의 암베드까르 박사 출현을 기대해 본다.

北동포 돕기…생태교육…기아퇴치…

행복한 세상 만들기 '성큼'

정토회 3천일결사 회향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북한식량난 실태조사 및 북한동포 돕기운동, 생태교육, 생명운동 아카데미 등의 환경활동과 인도 등 제3세계 기아, 질병, 문맹퇴치운동을 수행의 과제로 삼아 정진해온 결사가 3천일을 맞았다. '일과 수행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불교계의 대표적 NGO인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 회원들이 결사의 주인공들이다.

정토회는 9일 문경정토수련원에서 정토행자 만일(30년)결사 중 제 3차 천일결사 회향식을 가졌다. 나로부터 출발해 나에게로 돌아오는 수행정진을 생활의 근본으로 하여, 사람과 모든 생명이 어우러진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는 정토행자들이 모여 세번째 1천일 결사를 마무리 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정토회는 회향식에 앞서 7~8일,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각자의 수행을 점검하기 위해 1박 2일간의 3천 배 정진을 함께 했다.

이번 회향식에서 정토 행자들은 "정토세상 만들기를 위한 1만일결사는 불교가 인류문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보자는 목표 아래 정토의 기초를 다지는 기간으로 우선 만일(30년)을 잡은 것 일 뿐, 정토를 만들기 위한 서원은 세세생생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토회 산하 좋은벗들은 5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선족 취업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난민지원을 위한 국제연대사업 등 신년도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개인적인 수행과 함께 사회적 실천을 둘로 보지 않는 정토회는 사회활동을 담당하는 상설 단체인 (사)좋은벗들,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한국제이티에스를 설립 북한동포 돕기, 환경운동, 제3세계 지원 등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왔다. 또한 임시기구로 99년부터 쓰레기 제로운동을 시작한 환경특별위원회, 지난해 3월 1일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24시간 1000일 정진을 시작한 통일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환경 및 통일운동을 강화해 왔다. 이와 함께 정토불교대학, 정토수련원의 수련프로그램들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얽어매는 아집과 감정,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재경 · 강유신 기자

병원·교도소 '봉사 마당발'

대통령 포장 천재숙, 장관상 엄춘희 · 조용선씨

5일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IYV2001한국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01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기념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포장을 받은 천재숙(56) 씨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엄춘희(63, 간병인협회 회원), 조용선(65, 구품연지 회장) 씨의 얼굴은 마치 보살처럼 환했다.



◇왼쪽부터 엄춘희, 조용선, 천재숙씨.

전국재소자교화위원회 봉사부장을 맡고 있는 천재숙씨는 교도소 20여 곳에서 포교는 물론 재소자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고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년 넘게 돕고있다.

천 씨는 3년 전부터 장애인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장애인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천 씨의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했던 남편을 보면서 병든 사람을 돕기로 서원한 엄춘희씨는 한국보훈병원, 시립아동병원 등에서 상담과 발원기도는 물론 식사보조, 목욕 및 운동시키기 등 간병인으로 활동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무료장례 봉사팀인 구품연지 회장인 조용선씨는 10여 년 넘게 무의탁 노인과 장애인들의 뒤안길을 뒷바라지 하고있다. 이외에도 염불, 염습 무료강좌를 매월 실시하고 있고, 98년부터는 간병인 교육을 이수, 국립의료원등에서 간병인으로 무료봉사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베트남 관음사 후원회 결성

대구서 기금마련활동

베트남에 개원한 최초의 한국사찰 관음사(주지 정인)를 후원하기 위한 모임이 대구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불교 베트남 포교원 후원회는 13일 대구 후원회 사무실에서 바자회를 열고 포교용품, 불교서적, 현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경비 등의 기금마련에 나선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대덕스님들의 서화, 각종 조각품, 불교용품, 다기와 다구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며 바자회 수익금 일체는 베트남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다.

지난 7월 개원 법회를 가진 이후 최근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인 정각스님을 조실로 추대한 관음사는 현지인들과 교민들을 위한 포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지 교민의 어려운 생활, 종교 탄압 등으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054)963-1474

천미희 기자

천성산 살리기 운동

산내암자 주지 30명 동참

천성산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내원사와 환경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천성산 산내 사암 주지 스님들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3일 내원사 법당에 모인 천성산 산내 사암의 주지 30명은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으로 야기되는 수행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일천만 불자의 성지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천성산을 파괴하는 고속철도 관통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암, 미타암, 원효암 등의 스님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속철도 노선 전면재고 △천성산에 대한 지질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내역 공개 △낙동정맥인 양산천 수원보호 △수행환경 파괴 중지 등을 한국고속철도공단에 촉구했다. 양산=천미희 기자

천천클럽 후원의 밤

종교를 초월한 자비실천 모임인 '천천클럽'의 후원의밤 행사가 5일 전주 대우웨딩홀에서 거행됐다.

이날 '전주 우리는선우' 오종근 회장은 6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후원 및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법인을 설립, 보다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천천클럽은 전주시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6가구에 매월 생활비나 쌀을 보내고, 매월 두 차례 소년원 및 고아원 방문,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 무료급식봉사, 명절 때 10여 가구에 떡과 쌀을 전달해 왔으며 퇴원비를 지원해왔다. 후원=(011)652-8892, 농협 658-02-011364(오종근)

조기식 전북지사장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圓滿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四五年二月二十一日
小林西翁謹書
■ 주천서
■ 고불총림 방장 서옹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부산 051)637-2333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교계 여성복지 '뒷짐'

종교계 운영 시설 29곳중 불교 1곳

"교구본사별 '여성의 집' 설치 필요"

불교계에서도 여성복지는 사각지대다. 경제여건 악화로 근래 들어 가출여성과 여성 실직자가 늘면서 개신교 천주교가 이들을 위한 시설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불교계는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다.(본지 346호 1면 기사참조) 특히 해마다 1천여 명의 가출여성이 양산〈경찰청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불자 여성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여성복지시설 확충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 여성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모자보호원, 여성쉼터, 여성의 집 등 여성복지시설은 모두 59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종교계가 운영하는 시설은 29곳이며, 2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구 '자비의 쉼터(원장 오정스님)' 단 한 곳뿐이다.

현재 불교계 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략 400여 개. 그러나 이들 시설은 거의 대부분 노인복지나 지역복지(종합복지관)에 편중돼 있을 뿐 여성복지 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고, 개신교나 천주교와는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처럼 불교여성복지가 낙후된 원인으로는 종합복지관 수탁 중심의 불교계 복지사업 추진, 여성시설 같은 소단위 시설운영의 불교계 외면, 여성복지에 대한 스님의 인식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립노인요양원 권경임 원장은 "80년대 이후 불교계 복지사업이 종합복지관 수탁에 편중되다 보니 여성복지에 소홀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계 복지 관계자들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각 교구본사별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종단 차원의 여성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비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감천'의 이병규 사무국장은 "불교계 여성복지 정책은 상담·보호 등 소극적 활동에서 법률적 지원, 취업교육, 시설 설립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사찰의 사회적 역량 강화와 폭넓은 포교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수행굴에서 발견된 고려말부터 조선초기 청자, 백자, 기와, 옹기 조각들.

제주 존자암 추정 수행굴 발견

거주흔적 토기 등 출토

한라일보 탐사팀

제주 한라산에서 존자암의 옛터로 추정되는 '수행굴(修行窟)'이 발견돼 제주 불교의 원류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라일보 한라산 학술 탐사팀이 11월 24일 한라산 영실 동남쪽 지역을 탐사하던 중 발견, 전문가들의 확인 작업을 거쳐 5일 발표한 이 수행굴은 길이 28m, 높이 1.5~5.5m, 폭 7~8m로 40여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

탐사팀은 "내부의 지형은 3단으로 형성돼 있었다. 상층부에는 가로 세로 각 1.5m 정도 되는 공간이 있었다. 아마 불상을 모셨던 자리인 듯 내부의 돌이 가지런히 널려 있었다."고 발견 당시의 모습을 설명했다.

특히 이 수행굴은 고문헌에 '존자암의 옛터가 수행동(修行洞)'에 위치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 존자암 옛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 중종 25년(1530)에 증보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존자암은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그곳 동굴에 마치 스님이 도를 닦는 모습과 같은 돌이 있어 세상에 수행동(수행굴)이라 전해졌다"는 내용이 있다. 또 1609년과 1702년 한라산을 올랐던 김치판관과 이형상 목사의 기록에는 "영실의 동남쪽 허리에 석굴이 하나 있는데, 수행굴이라고 일컫는다"고 적고 있다.

김중근 기자

홍경민의 '지혜의 말씀' 청소년팬 몰린다

본사 붓다뉴스 · 핸드폰 접속 급증



청소년들에게 불자가수 홍경민(사진)의 '지혜의 말씀'이 뜨고 있다.

본지가 무선 이동통신의 불교정보 서비스 1주년을 맞아 무선이동통신과 붓다뉴스(buddhanews.com)에 마련한 '홍경민이 띄우는 지혜의 말씀' 코너에 청소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벤트를 시작한 12월 3일 아침부터 이 코너에는 홍경민을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이 몰려왔다.

붓다뉴스의 홍경민 이벤트페이지에는 두 가지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홍경민이 15분 분량으로 녹음한 지혜의 말씀 듣기에 청소년들이 매료된 것이고 또 하나는 흔적남기기 코너에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는 종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를 '경민 오빠'가 제공해 주었다는 고백도 볼 수 있다. 또한 종교를 초월해 좋은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 더욱 오빠가 좋게 느껴진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불자 가수 한 사람의 인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로 확대될 때 청소년들을 향한 포교의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감하게 하는 이 이벤트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몰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美 태고사 '공사중단'

사찰측 "도편수 상대 소송 검토"

미국 내 최초로 한국 전통 사찰 양식을 갖추고, 내년 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던 캘리포니아주 테하차피 산중의 태고사(Mountain Spirit Center)가 공사 중단 상태에 봉착했다.

태고사 주지 무량스님은 4일 조계종총무원 문화부의 조정으로 태고사 대웅전 공사를 맡았던 도편수 이춘식씨와 만나 공사 미 진행 부분(문짝·닫집·수미단), 천장 재시공 비용 등에 대한 환불과 공사계약 중단을 요청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무량스님은 문제 해결을 종단에 위임했고, 종단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이씨가 대웅전 공사를 맡으면서 비상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도면도 제대로 참고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시공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태고사는 숭산 스님(화계사 조실)의 미국인 제자인 무량스님이 미국 내 한국 불교의 포교 거점으로 삼기 위해 7년 전부터 건립을 추진해 온 사찰로, 지난해 12월 도편수 이씨와 대웅전 건립을 계약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지난 7월 22일 대웅전 상량법회를 가졌다.



◇지난 7월 상량식 직전의 태고사 대웅전 모습.

그러나 상량법회에 참석한 스님과 문화재·건축 전문가 등이 대웅전의 처마 길이가 한국 전통양식과 달리 너무 짧고, 천장 역시 전통 우물천장 양식이 아닌 긴 널빤지와 각목을 붙이는 등 한국 전통 사찰양식과 다르게 시공된 점들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무량스님은 도편수 이씨에게 한국 전통 양식으로 다시 고쳐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씨는 스님이 원하는 대로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8월초 이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이은자 기자

진천불교대 개교

충북 진천 지역 불자들의 교육 도량이 될 진천불교교양대학(학장 이영일)이 문을 열었다. 진천불교교양대학은 6일 진천 여성회관에서 도솔암 혜정스님, 보탑사 능현스님, 성림사 혜묵스님을 비롯해 12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개교식을 봉행했다.

교양대학은 진천 지역의 불자들이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들자는 서원이 모아져 진천불교어머니회, 진천불교후원회, 파라미타진천지회의 후원으로 여성회관 내에 설립됐다.

교양대학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찬불가 사찰예절 불자신행생활 불교근본교리 등 14개 강좌가 마련됐다. 강의는 지역 스님과 법사들이 맡아 12월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매월 첫째주 목요일 개설된다. (016)405-4532 오종욱 기자

동국학원 공금횡령조사위 구성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은 3일 법인세 공금횡령과 관련 이사회를 열고 '공금부정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도 이날 조계종 종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관리위는 이사회가 구성한 진상조사위가 자체조사를 할 경우,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할 수 있다며 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또한 '동국학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동국대학 전반의 자금운용과 현금 흐름, 그리고 학교의 회계시스템의 검토와 조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동국대학 교무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입장 표명 문건을 분석한 결과 독립 운영되는 법인의 회계와 학교 회계의 혼동 등 상당 부분 부정확하다"는 내용의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교무위는 "대학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에 대해 조속한 사과와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중근 기자

조계종 내년 주5일근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이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최근 종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를 선도하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중앙종무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실시는 지역 종무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교계관련 사업체와 단체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올해 초부터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원우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실무자협 결성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5일 '사회복지실무자협의회'(회장 조석영)를 결성했다. 지금까지 동일지역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은 있었지만, 전국 규모의 공식 조직으로는 처음이다.

조계종복지재단의 31개 시설의 부장급 불교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사회복지사 권익보호 및 전문화 △불교복지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임원회의 총회 등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복지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조계종복지재단은 5일 세검정 하림각에서 제3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 인덕원 이사장 성운스님(관련기사 1면) 등 4개 분야 14명 3개 팀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철우 기자

도와주세요

백혈병 수술비 '애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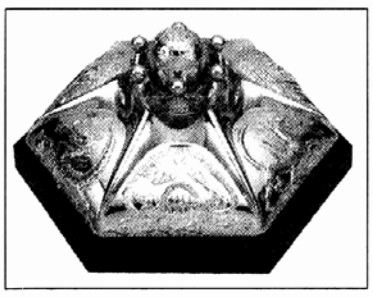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김성림(27·사진) 불자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12개월 된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녀가 이 병을 알게 된 것은 지난 4월. 갑자기 쏟아진 코피가 멈추질 않아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스럽게도 김 씨는 자가 골수 이식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2천여 만 원이나 드는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 남편은 이미 김 씨의 병간호를 위해 직장도 그만 두었고, 12개월 된 아들은 친정 부모에게 보내졌다. 도움 주실 분은 생명나눔실천회 후원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농협 053-01-243778 오종욱 기자

한가지소원을 이루시는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특허받은 명당 육기방



옛부터 금은보화와 육방수호신장(守護神將)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습니다.
명당육氣방에 각인된 좌청용(左靑龍) 우백호(右白虎) 남주작(南朱雀) 북현무(北玄武) 천하(天下) 지하대장(地下大將)의 육방수호신장(六方守護神將)이 모든액운으로 부터 항상 지켜 줄것이며 소원성취 안전운행 사업흥왕 불화방지 가내화합 시험합격 악귀퇴치 극락왕생 선신수호 삼재예방 관재소멸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에 만복(萬福)을 가져다 주며 사업의 성공과 아울러 천지(天地)간의 좋은 氣를 받아 사기(邪氣)를 막아주고 자손만대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만사형통 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주지스님 친견 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사용하십시오.

1.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안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이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많으신 분
5.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6. 돈이 새어 나가고 융통이 안되시는 분
7. 공부를 안하고 자녀가 말성을 부리는 분
8. 부부화합이 잘 안맞어 힘드시는 분
9. 집터나 묘터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10. 위험한 일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
11.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
12. 관재구설과 액운이나 삼재로 시달리는 분
13. 수험생 합격 기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 하십시요.

※ 좋지 않은 사주팔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864-7878
일본지사 : 06-6741-1923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요.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가격 : 1호 10만원. 2호 20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흑육 氣방, 집터, 묘지, 조상합동묘, 합동납골묘 전용 강력한 3천 카우스 25만원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역학 전문 소프트웨어







천지안21 주요기능

사주, 해명, 작명, 궁합, 이사, 택일, 관상, 수상, 부적(크기조절됨), 꿈해몽, 사주비법
회원관리(다양한 출력 기능)

전문역학 프로그램 및 전자 만세력 등을 개발하고 있는 성진문화사(BBN21)입니다.
本社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전문역학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중불교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 제작 보급을 주도하는 종합 멀티미디어 회사로 3년간의 거획을 통해 운명역학 크리닉 천지안 2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출시하였습니다.
천지안 21은 역학세계의 원리를 1장의 CD에 완벽하게 담아 방대한 자료를 입력하여 이를 기초로 컴퓨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이름과 생년월일의 입력만으로 초명리, 고명리사주, 주역사주, 진법사주, 이사, 방위, 궁합, 택일, 관상, 수상, 해몽, 작명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상담자의 사주결과에 따른 부적이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또한 상담자의 상담내용이 자동으로 데이터 저장되어 과거에 제공했던 정보를 상담중에도 볼 수 있어 상담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더 해 드립니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다시 한번 알찬 계획 세우셔서 보람된 결실 거두시길 바라며 本社의 천지안 21 프로그램이 貴고객님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지안21 특징

사주기능(초명리, 고명리, 주역, 진법사주)
이제 만세력을 넘기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주원국, 대운(월, 일까지) 세운, 일운, 속성, 각종 살, 운성, 용신, 쾌, 각종 해설 등을 보여주고 기타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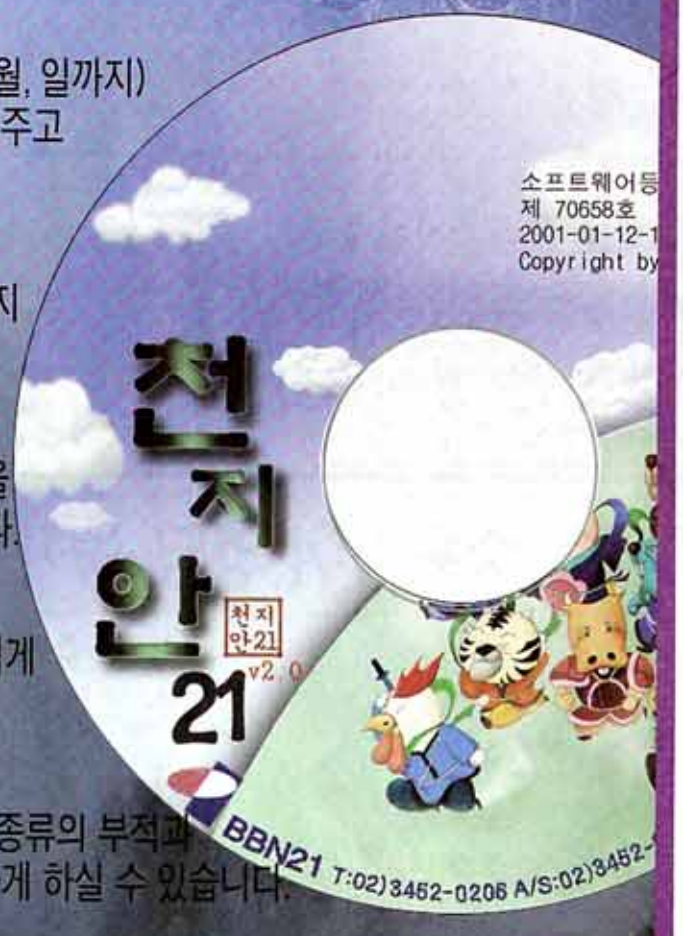
해명/작명기능
해명은 5초안에 작명은 남 · 녀 이름 모두 5분안에, 작명장까지 만들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올 대법원 인용한자 수록!)

궁합/ 이사/ 택일기능
궁합을 250가지를 비교하고 7가지 궁합법으로 결과와 설명을 해주고, 일자도 알려주며 지도와 택일장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관상/ 수상기능
그림파일과 몽타주 작성도 하고 해설까지 보여드리니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적기능
고객의 사주에 딱맞는 종합부적을 자동으로 만들고 1,500여 종류의 부적과 처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출력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관리기능
회원, 회계, 일정, 비품, 도서, 기초관리도 해드리고 고객과 상담한 내용을 기억하여 알려드리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합 운명클리닉 천지안21 전문가도 아끼지 않는 역학 최고의 프로그램

구입문의: (02)762-3890~1
(각종 카드 결제 가능!)
성 진 문 화 사 (천지안21 판매사업부)

본사:BBN21(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20 마르코폴로빌딩 9F 전화:02-3452-0206(代), 0181 팩스:02-3452-1347